

열왕기하 1 장

유다				연대 B.C.	이스라엘				
왕	재위	평가	관련 성구		왕	재위	평가	관련 성구	
르호보암	17	악	왕상 12:1~14:31	930	여로보암 1	22	악	왕상 11:26~14:20	
아비암	3	악	왕상 15:1~8	913					
아사 (910~869) (872~869 섭정)	41	선	왕상 15:9~24	910(909)	나답	2	악	왕상 15:25~28	
				908	바아사	24	악	왕상 15:27~16:7	
				886	엘라	2	악	왕상 16:6~14	
				885	시므리	7일	악	왕상 16:9~20	
				885	오므리 (다브니공위)	12	극악	왕상 16:15~28	
				874	아합	22	극악	왕상 16:28~22:40	
여호사밧 (~848)	25	선	왕상 22:41~50 대하 17:1~20:37	872(869)					
여호람(요람) (~841)	8	악	왕하 8:16~24	853	아하시야	2	악	왕상 22:40 ~왕하 1:18	
				852	요람	12	악	왕하 3:1~3	
아하시야	1	악	왕하 8:24~9:29	841	예후	28	악	왕하 9:1~10:36 대하 22:35~37	
아달랴	6	극악	왕하 11:1~20	841					
요아스	40	선	왕하 8:24~9:29	835					
				814	여호아하스	17	악	왕하 13:1~9	
				798	여호아스 (=요아스, ~782공위)	16	악	왕하 13:10~14:16	
796									
아마샤 (~767)	29	선	왕하 14:1~14	793	여로보암 2	41	악	왕하 14:16~29	
(792~767 아마샤와 공위) 웃시아(아사랴) (~732)	52	선	왕하 15:1~7 대하 26:1~23	792					
				753	스가랴	6달	악	왕하 14:29~15:12	
				752	살룸	1달	악	왕하 15:10~15	
				752	므나헴	10	악	왕하 15:14~22	
750									
요담 (~732 공위)	16	선	왕하 15:32~38	742	브가히야	2	악	왕하 15:22~26	
				740	베가 (20년)		악	왕하 17:1~6	
				735					
아하스	16	악	왕하 16:1~20	732	호세아		9	악	왕하 17:1~6
				722	이스라엘 멸망 (참고: 연대를 기록하는 방식이, 즉위년 방식, 무즉위년 방식이 있고 섭정 기간이 포함되는 경우와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있고, 봄에 한 해가 시작되는 니산월력과 가을에 한 해가 시작되는 티쉬리월력을 사용하는 경우가 뒤섞여 있어서 연대가 약간씩 차이가 나기도 함: 히브리 왕들의 연대기 에드윈 R. 킬레 저, 기독교문서선교회) (또 읽기: '공위' 표시가 있는 경우, 예를 들어서 요담의 경우 공식 통치 기간은 BC 750-735이지만 BC732년까지 아하스와 공동통치를 했다)				
히스기야 (~686 섭정)	29	선	왕하 18:1~20:21 대하 28:1~27	715					
므낫세	55	악	왕하 21:1~18	696					
아몬	2	악	왕하 21:19~23	642					
요시아	31	선	왕하 22:1~23:30	640					
여호아하스	3달	악	왕하 21:31~33	609					
여호야김	11	악	왕하 23:34~24:5	609					
여호야긴	3달	악	왕하 24:6~16	597					
시드기야	11	악	왕하 24:17~25:7	597					
유다 멸망				586					

1.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배반한 이유가 무엇일까?

아합의 평가가 좋지 못하다고 해서 나라도 그렇게 약한 것은 아니었다. 다윗 시대에 복속되었던 모압이 꿈쩍하지 못하다가 아합의 때에 독립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하다가 결정적인 시기를 맞았다는 말이다. 반역에 대한 이야기는 3장에 나온다.

2. 아히시야가 병이 들었을 때 왜 하나님께 묻지 않았을까?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이 살았으니 그렇다치고, 바알이나 아세라도 아닌 동편지같이 바알세불인가? 다음 설명을 참고해서 생각해 보자.

<에그론은 블레셋의 다섯 성읍 중에 가장 북쪽에 있는 성읍이다. 바알은 '주(主)' 세불은 '파리'를 뜻하므로 바알세불은 파리 대왕? 아마도 파리나 날벌레가 병을 옮기는 것을 막아주는 우상이었던 모양이다.>

병든 아히시야에게는 전쟁의 신 여호와, 농사의 신 바알보다 병을 막아주는 바알세불이 더 필요했던 모양이다(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았지만 어떤 분이신지조차 알지 못했다. 막 3:22(마 10:25)에는 바알세불(귀신의 왕, 세불이 왕이란 뜻)이라고 하는데 아마도 이것이 원래 이름이고 이것을 비꼬아 부른 표현이 바알세불일 것이라고 하는 주장도 있다.

3. 아히시야의 병이 왜 낫지 않았을까? 하나님의 사자가 전하는 말을 보면 나올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을 무시한 죄 때문이다(4절의 그러므로) 바알세불이 아니라 하나님께 물었더라면 나았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는데 찾지 않는 것도 죄다. 혹시 패심죄?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

4.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바알세불에게 물으러 가느냐?'고 말씀하시는 것은 어느 정도로 기분이 언짢으셔서 하시든 말씀일까?

천하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하찮은 우상보다 못한 존재로 여긴 셈이니: (사 46:5-7) 너희가 나를 누구에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며 은을 저울에 달아 장색에게 주고 그것으로 신을 만들게 하고 그것에게 엎드려 경배하고 그것을 들어 어깨에 메어다가 그의 처소에 두면 그것이 서서 있고 거기서 능히 움직이지 못하며 그에게 부르짖어도 능히 응답지 못하며 고난에서 구하여 내지도 못하느니라

5. '털이 많은'이란 말은 '털옷을 입은'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다. 어느 쪽으로 번역하는 것이 옳을까? 이유는?

세레 요한의 복장을 생각해 보면 '털옷을 입은'으로 번역하는 것이 좋겠다. 세레 요한은 여러모로 엘리야와 닮았기 때문이다. 털옷을 입고 가죽 띠를 띤 것이 안락한 삶과는 거리가 먼 선지자의 복장이었던 모양이다 (마 3:4, 눅 13:4).

6. 아히시야는 이런 별을 받아도 싸다.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나?

전하는 말과 복장에 대한 것만 듣고도 엘리야인 것을 알아보았다면 하나님에 대해서도 알만큼 알고 있었다는 뜻이다.

7. 불에 타죽은 두 오십부장의 잘못이 무엇인지 알려면 다른 오십부장과 비교해 보는 것이 좋다. 세 번째 오십부장의 태도와 비교해서 앞의 두 오십부장의 잘못을 추정한다면?

'내가 (세 말대로)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엘리야의 이 답변 태도를 보아 두 오십부장은 엘리야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한 것 같지는 않다: 체포조 아니었을까? 15절을 보면 엘리야가 오십부장과 군사들을 두려워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자를 혼자 보내지 않고 부하를 50인이나 데리고 간 이유가 여차하면 강제로 체포하기 위함이었을 것이다. 두 번째 오십부장은 전임자의 비극을 알고도 같은 짓을 했으니 죄가 더 크다. 반면에 세 번째 오십부장은 좀 달라 보인다. 부하들의 목숨도 소중하게 여기고...

8. 아히시야가 기를 쓰고(두 오십부장과 군인들이 죽고) 엘리야를 불러와 봐야 변화는 없다. 그런 노력을 진작에 했어야지. 언제?

바알세불에게 사자를 보내기 전에: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 우리 주변을 둘러보자. 일이 생기면 교회를 찾고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가? 반면에 아무리 권해도 꿈쩍도 하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9. 첫번 오십부장이 왔을 때 그냥 따라갔더라면 이렇게 많은 사람이 불에 죽지 않았을 텐데...

그런 일이 있었기에 왕의 죽음을 전해도 아무 일이 없었지(16) 안 그랬으면 엘리야를 살려 놓지 않았을 것이다. 더구나 하나님을 철저히 무시하고 있는 아히시야 왕과 백성들을 생각해서라도 그대로 넘어갈 수 없는 일이다.

10. 이게 무슨 말인가? '여호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제 2년이었던라'(17절)

북왕국의 왕도 '여호람' 남쪽 나라 왕도 '여호람'이다. 혹은 요람이라고도 한다.

열왕기하 2 장

1. 엘리야의 마지막 장면을 보면 누가 연상되는가?

예녹: 승천한 것

모세: 이적적으로 요단을 건너는 것, 무덤이 없는 것, 같은 지역(모압)에서 이적적으로 사라진 것, 후계자를 남긴 것(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나타난 점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모세와 더 관련이 많아 보인다.

2. 길갈은 여호수아가 진을 설치했던 여리고 근처 길갈이 아니라 벧엘보다 위쪽에 있는 에브라임 산지의 길갈이다(신 11:30, 암 4:4, 호 4:15). 굳이 벧엘로, 여리고로 가서 선지자의 생도들과 입씨름을 하게 하고 요단으로 보내시는 이유는 뭘까?

엘리야가 후계자가 될 것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려는 것 아닐까? 그래야 엘리사가 엘리야의 후계자로 쉽게 세워진다(15). 해야 할 일이 그만큼 다급하고 많았다는 뜻 아닐까? 그러기에 엘리야에게 특이한 일이 일어날 것을 다른 생도들에게도 미리 알게 하였던 모양이다. 그렇다면 정작 정확하게는 몰랐던 모양이다(16절).

3. 선지자의 생도가 벧엘에도 있고, 여리고에도 있었던 모양인데 웬 선지자의 생도들이 이렇게 많아?

이세벨에 의한 무서운 박해에도 엘리야는 선지자 학교를 운영했고 생도들을 키웠던 모양이다. 사무엘의 시대에도 선지자의 무리가 있었다(삼상 10:5).

4. 여호와와의 사심과 당신의 혼의 삶은 공통점이 무엇인가?

영원히 존재한다는 것, 죽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께서 영원한 것을 말할 것도 없고, 혼도란 육체와 달리 소멸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한 표현이다.

5. 왜 따라오지 말라고 했을까(2, 4, 6)? 엘리사는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었나?

엘리사가 말을 잘 듣고 따라가지 않았더라면? 이스라엘에게는 끔찍한 일이다. 말을 너무 잘 들어도 안 되겠다. 악착같이 따라갔기 때문에 큰 능력을 얻었다. 진짜 따라오지 말라는 걸까? 아니면 훈련의 의미인가? 마음을 떠보려고 그러는가? 돌아가라는 말을 듣지 않고 끝까지 따라왔다가 복 받은 사람이 뭇이다. 뭇과 엘리야를 비교해 보는 것도 재미있겠다.

6. 다른 제자들(벧엘, 여리고)과 엘리사의 공통점은 무엇이며 다른 점은 무엇인가?

공통점: 엘리야가 승천할 것을 아는 것

다른 점: 승천하는 엘리야에게 간청하여 능력을 달라는 것, 천국도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마음의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는 이도 하나님이시다(빌 2:13). 어떤 일이 생겨나는지 모두가 다 알았다. 다만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가 달랐다. 바울의 예루살렘 행을 예언한 사람이 많았지만 다들 말리는 상황에서 바울은 굳이 예루살렘으로 갔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려주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라도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는 우리의 몫이다.

7. 모세의 위대한 능력을 상징하는 것이 있다면 지팡이일 것이다. 이적을 행할 때 지팡이를 손에 들고 행했기 때문이다(출 4:17). 비슷하게, 엘리야에게 이적을 상징하는 도구가 있다면?

겔옷: 겔옷으로 요단 강물을 갈랐다. 겔옷을 취함으로 엘리사가 후계자가 되었다. 겔옷으로 아하시야가 엘리야를 알아보았다. 엘리사를 부를 때 겔옷을 던졌다(왕상 19:19).

8. 강물이 갈라지면 무엇이 드러나는가?

육지(8): 젖은 땅이 아니라 마른 땅이다. 모세가 홍해를 갈랐을 때나 여호수아가 요단을 갈랐을 때는 마른 땅이었다(출 14:21, 수 3:17). 여기서 육지라고 번역한 단어와 동일한 단어이다. 젖은 땅이 아니라 사막을 뜻하기도 하는 단어가 사용된 것이 인상적이다. 물만 갈라버리는 것이 아니라 통과하기 쉽도록 말려버리시는 하나님이시다.

9. 엘리사가 스승의 갑절의 영감(은사)을 달라는 것은 너무 얽치없는 것 아닌가?

갑절의 영감을 달라는 것은 후계자로 삼아달라는 청이다. 말이는 갑절의 몫을 받았다(신 21:17). 스승보다 더 뛰어난 능력을 달라는 것으로 이해하기는 어렵다.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하기 위한 열심에서 나온 것이다. 이런 의미로 교회의 직분을 사모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신분상승이나 명예욕에서 교회의 직분을 노리는 것은 엄청난 죄악이지만.

10. 능력의 선지자 엘리야도 자신의 제자에게 자신의 능력을 물려줄 수 없나(10)?

후계자를 세우고 그에게 능력을 주시는 일은 명백하게 하나님의 주권에 속하는 일이란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것이다.

11. 엘리야는 무엇을 타고 승천하였는가? 병거 타고?

회리바람을 타고(11): 병거 타고 하늘에 올라갔다는 것은 찬송가 가사에 있는 말이다. 불수레와 불말은 두 사람을 떼어놓는 역할을 했다. 엘리사가 지독하구만! 이러지 않으면 도저히 떨어지지 않으니 말이야! 우리에게도 이런 다부진 면이 좀 있어야 하는데...

12. 엘리야가 이스라엘에서 한 역할을 잘 나타내는 말은?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병거와 마병은 가장 강력한 병기로 국방과 국력에 가장 중요한 것이다.

13. 요단 강물을 가르면서 엘리사가 외친 '엘리야의 하나님은 어디 계시니이까?'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

하나님께서 엘리야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나와 함께 해주셔야 합니다.

14. 엘리야를 대하는 선지자의 생도들의 태도가 어떻게 변했는가?

나아와 이르더니(3, 5) ↔ 영접하여 땅에 엎드린다(16) 성 사람들은 엘리사를 '주'라고 불렀다(19).

15. 선지자의 생도란 지금 말로 하면 신학생인 셈이다. 신학생들이 엘리야의 시체를 찾으러 수색대를 보낸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영 우습게 아는 모양인데? 왜 이런 생각을 했을까?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간 것은 엘리야의 영혼이고 육신은 어디엔가 던져두었을 것이라는 생각 때문이었을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의심은 아니다.

16. 우리가 강청하는데 엘리야가 왜 부끄러워지나?

부끄러워지다고 번역한 말은 '당황하다, 실망하다'는 뜻이 가능하다. 남 보기에 부끄러울 정도로?

17. 소금을 뿌리면 되는 간단한 일을 가지고 그렇게 고민을 했나?

소금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역사하심이다(216). 예수님께서 소경을 고치실 때 침을 흘려 이겨서 바른 것과 비슷한 상황이다. 그렇다고 침이나 흘려 소경의 눈을 뜨게 한 것은 아니다.

18. 선지자가 된 엘리사가 아이들을 저주하여 죽게 한 것은 너무 심했다는 분이 많다. 이 점을 생각해 보기 위해서 우선, 젊은 아이들이란 12-15세 정도의 소년들을 가리키는 말이다. 이들의 태도와 선지자 50인과 여리고 사람들의 태도를 비교해 보라.

엘리야를 따라가던 때에는 아마 엘리사가 동급이었을 테지만 능력을 받고 돌아온 엘리사에게 땅에 엎드려 간구했다. 여리고 사람들도 엘리사를 보고 '우리 주'라고 불렀다. 그런데 이 아이들은? 아이들 중에 42명이란 그 이상이 있었다는 말인데 아무리 소년들이라 해도 이렇게 많은 애들이 한꺼번에 이랬다? 더구나 금송아지 숭배의 중심지였던 벰엘이라면 이 소년들이 바알의 선지학교 생도들은 아니었을까? 시대적 상황, 하나님의 말씀이 영 권위가 서지 않던 시절의 반영인가? 불이 나와서 오십부장과 병사들을 사르듯이 심판이 필요했던 시절인가?

19. '대머리어 올라가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 엘리야처럼 승천하라는 말? 벰엘로 가는 길이 오르막이니...

대머리 자체는 부정한 것이 아니다(레 13:40-41). 엘리야처럼 하늘로 올라가 보라는 조롱의 말, 아니면 그렇게 죽으라는 저주?

20. 2장 끝에 있는 두 가지 기사는 엘리사가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을 받았음을 증명하기 위한 기사이다.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가?

축복과 저주: 하나님께 도전을 하더라도 적절한 때에 해야 한다. 아이들에 대한 징벌은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자신의 선지자로 삼았음을 증명하려는 의도가 있는 심판이라고 본다.

21. 다음 구절과 본문의 어떤 점이 통하는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행 1:8)

성령과 엘리야의 겹옷: 엘리사가 엘리야의 겹옷을 주워들고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듯이 우리는 성령을 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주의 일에 나서야 한다.

22. 엘리야는 대체적으로 일반 백성들과 동떨어진 곳에서 은둔 생활을 하다가 특별한 경우에 홀연히 나타나 놀라운 사역을 감당하곤 했다. 반면에 엘리사는 백성들과 함께 어울리며 교제하며 백성들의 어려운 점을 도와주고 왕의 상담자 역할도 하게 된다. 서로가 밀접한 관계이면서 사는 모습은 이렇게 다른 예가 또 있는가?

세례 요한과 예수: 요한은 광야에서 거친 투사처럼 살았다. 반면에 예수님은 가난하고 불쌍한 이웃과 고통을 함께 하며 사셨다.

열왕기하 3 장

1. 아합의 죄는 다르지 않았으나 여로보암의 죄는 따랐다는 것이 무슨 말인가?

바알(아합의 죄)은 제하고, 벨엘에서 금송아지 섬기는 일(여로보암의 죄, 왕상 12:28-32)은 계속했다: 금송아지를 섬기는 일은 철저히 정치적인 이유였다. 후일에 예후가 바알의 목상과 바알의 선지자를 철저히 제거했다(10:19-28)는 것으로 보아서 여호람의 종교개혁이 철저한 것은 아니었던 모양이다(14절도 참고). 아마 아버지나 형의 죽음에서 무언가 느끼는 바가 있기는 있었겠지만 그렇다고 여호와 신앙으로 돌아온 것은 아니었다. 바알 숭배가 큰 죄라고 하니까 거부하고 하는데 그렇다고 여호와 신앙으로 돌아오지는 않고 엉뚱한 송아지 숭배라? 귀신이 나갔다고 다시 돌아와 보니 깨끗이 소제되었거늘...

2. 모압의 배반에 대해서는 1:1에서 언급했는데 3:5절에서 또 언급하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1:1절은 단순히 배반했다는 것이고(아하시야 때), 여기서는 배반했다는 사실보다는 이스라엘이 그 문제로 정벌에 나섰다는 것이다(여호람 때).

3. 여호사밧은 선한 왕이다. 이스라엘의 악한 왕과 친하게 지내는 것이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주변 정세(앗수르의 강성)에 따라 정략적으로 가깝게 지내게 되었지만 악한 자를 가까운 이웃으로 두는 것은 여러모로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오기 쉽다. 그래서 책망을 듣기도 했다. '하나님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가로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가하니이까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대하 19:2).

4. 북 왕국 이스라엘이 모압을 치려면 요단강을 건너지만 하면 된다. 반면에 에돔을 거쳐서 모압을 치는 것은 남쪽으로 내려가서 유대를 통과하고 사해를 남쪽으로 돌아서 가는, 아주 멀리 우회하는 길이다. 왜 이렇게 우회하는가?

유다와 연합군을 이루고 사해 남쪽에 있는 유다의 속국 에돔까지 합세시키기 위함이다. 에돔이 병참임무와 길 안내까지 하느라고 제일 고생이 많았을 것 같다.

5. 이스라엘과 유다가 연합하여 모압을 치는데 에돔은 왜 끼어드는가?

당시에 에돔은 유다의 속국이었기 때문이다. 에돔 왕은 섭정 왕이다(왕상 22:47). 원어상으로도 일반적으로 왕을 뜻하는 '엘렉크'가 아니라 대리자를 뜻하는 '나차브'이다.

6. 이스라엘 왕이, 섬기지지도 않던 여호와와는 왜 찾나? 금송아지를 찾지?

애당초 정치적인 목적으로 금송아지를 섬겼으니 자신들이 섬기던 금송아지가 이런 때에는 아무 소용이 없음을 알고 있기 때문 아닐까? 물이 없는 것은 하나님의 징벌로 생각한 것으로 보아 예상할 수 없었던 특이 사항이었던 모양이다(13). 꼭 이런 어려움이 생겨야 하나님을 찾나? 처음부터는 안 될까? 사고나야 감사하고, 사고나지 않으면 별로 감사 않고?

7. 위기의 때에 두 왕이 취한 행동이 어떻게 다른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과 하나님을 찾는 차이: 부모에게 매 맞는다고 도망간 아이와 매 맞으면서도 달라붙는 아이 같다. 그나마 여호사밧의 이런 행동 덕분에 수많은 병사들이 목숨을 구했다.

8. 이스라엘 왕의 신복이 말한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엘리사'가 무슨 뜻인가?

엘리야의 종이란 뜻으로 좀 낮추어 부른 표현이지만 현대식으로 말하면 '~의 수행비서' 정도 아닐까? 신임 받는 비서가 거의 모든 권한과 지위를 물려받는다. 종도 누구의 종이냐가 중요하다. 이 말을 들은 여호사밧이 반색한 것은 당연하다. 엘리사는 몰라도 엘리야는 알기 때문이다.

9. 엘리사는 북 이스라엘에서 사역하는 선지자였는데 출전하는 곳에 왜 따라갔을까? 더구나 이스라엘 왕은 전혀 알지도 못한 것 같은데?

여호사밧을 배려한 하나님의 뜻 아닐까? 본문에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간섭하신 일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다. 대군이 움직이는데 물을 어디서 공급받을지 생각하지 않았을 리가 없다. 그럼에도 갑자기 물이 없다는 것은 특이 사항이다. 하나님께서 간섭하고 계신다는 뜻이다. 다시 물이 흘러 들어오고, 모압이 착각해서 싸움을 걸어오고 하는 일들이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간섭하시는 일이라면 그 일을 위해서 미리 엘리야를 준비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여호사밧을 위함이라고 본다.

10. 여호사밧은 몇 안 되는 선한 왕이다. 그가 선한 왕이라고 불릴 만한 이유를 본문에서 찾는다면?

위기의 때에 여호와를 찾은 것: '여호와와 말씀이 저에게 있도다'는 말은 '믿을 만하다'는 말이다. 그가 어떻게 엘리사를 믿을 수 있었을까? 엘리야를 아는 여호사밧이 엘리사를 알아보았다. 비록 이웃나라의 선지자였을망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알아볼 능력이 있었다. 자신과 비슷한 사람은 금방 알아보는 법이다.

11. 엘리사의 핀잔에 대한 이스라엘 왕의 답변을 근거로, 이스라엘 왕이 보기에는 바알과 아세라는 하나님과 어떻게 다른가?

세 왕을 불러 모아 적국에 붙이는 일은 바알과 아세라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12. 여호사밧의 낫을 불이 아니면 이스라엘 왕을 향하지도 보지도 않았을 것이란다(14). 이스라엘 왕이 고참이라고 앞장서서 찾아왔는데 선지자가 이렇게 책망을 해버렸다. 얼마나 화가 났을까? 무안했을까? 그나저나 선지자가 누구 낫을 봐서 일을 해도 되나?

선지자는 누구의 낫을 보고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일하는 사람이다. 그런 그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여호사밧의 흉내라도 내보라는 단호한 책망이다.

13.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거문고는 왜 필요한가? 성령이 역사하는 데에 찬송이 필요한가?

예언과 음악이 관련된 예가 많다. 다윗이 수금을 탈 때 악신이 떠나간 일(삼상 16:23), 사울이 선지자의 무리를 만났을 때(삼상 10:5), 대상 25:1-3, 악기가 하나님의 말씀이나 영감을 받아들이는 데에 유용한 수단이었다. 말씀보다 악기가 주가 되지 않도록 유의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는 역할로 악기가 유용하다.

14. 물을 주시려면 그냥 주시지 골짜기는 왜 파라고 하시나? 많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분명한데도 그냥 주신 적은 없다. 골짜기를 파든지, 그릇을 준비하라든지, 하다 못해 일어서라고 하든지... 반면에 그로 인해 얻은 것은 비교할 수도 없는 소중한 것이다.

15. 전쟁을 치르면 성을 치고, 좋은 나무를 베고, 섬을 메워서 적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주는 법이다. 좋은 나무를 베다는 것은 과실나무를 베다는 뜻이다. 고대의 마을이 섬을 중심으로 세워졌음을 감안하면 섬을 메우는 것이 얼마나 큰 타격인지 알 수 있다. 같은 의미인데 '돌로 모든 좋은 밭을 헐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슨 뜻일까?

밭을 개간할 때 돌을 가려내서 옆에 쌓아둔단다. 담으로 쓰기도 하고... 그런 돌로 밭을 전부 메워버린다는 뜻이다.

16. 모압 사람들이 왜 착각을 했을까?

햇빛이 물에 비치어 붉게 보인 것을 피로 착각하였기 때문이지만(22) 그 곳이 원래 물이 있던 곳이라면 그런 착각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물이 없던 곳에 바람도 비도 없는데 물이 고인 것(17)이 원인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럴만한 기후 변동도 없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 차게 하신 것은 명백하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임을 알게 하려는 조치였는데 부수적인 결과까지 가져온 셈이다. (그 지역은 흙이 붙어서 더욱 이렇게 보일 가능성이 크다)

17. 어느 때에 물이 가득하게 되었는가?

아침 소제 드릴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매일 규칙적으로 제사를 드렸다. 하필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점을 참고하자.

18.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언제나 풍성한 응답을 얻는다. 왕들이 다급해서 하나님을 찾았지만 하나님께서 얼마나 풍성하게 소원을 이루어주셨는가?

왕들이 원한 것은 물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전쟁의 승리마저 허락하셨다(18) 그러나 완전한 승리를 쟁취하지는 못했다. 주는 복도 다 차지하지 못하다니! 그들이 완전한 승리를 누리기에는 부족함이 많았다.

19. 이 전쟁에서는 누가 승리한 셈인가?

모두가 패배자: 결과적으로 모압은 독립을 지킬 수 있게 됐지만 왕세자를 위시하여 수많은 사상자를 내었고, 토지는 황폐화 되었다 (모압측 기록에는 이 때 용감하게 독립을 이룬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모압의 독립을 저지하려던 이스라엘 왕의 노력도 수포로 돌아갔다. 구체적인 과정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마저 누리지 못했다.

모압의 오판에,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대승리를 눈앞에 두었지만 결국은 실패로 끝났다. 모압 왕 메시의 행위가 이스라엘로 하여금 비신앙적인 영향을 주었을지도 모른다.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는 몰라도 모압 왕 메시로 인해 이스라엘이 비신앙적인 행동을 했을 것이다.

20. 본문에는 왕이 네 명, 선지자가 한 사람이 나온다. 누구를 주인공으로 삼을까?

세상의 주도 세력은 여러 왕들, 특히 여호람이지만 방향을 설정하고 일이 되게 하는 것은 엘리사이다. 겉으로 드러난 주인공은 왕들이지만 실질적인 주인공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엘리사이다.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이런 엘리사를 닮아야 하는 것 아닐까? 주도 세력도 아니면서 가장 큰 영향력을 지닌 모한 모습이다. 여호사밧은 그리 영리해 보이지도 않지만 하나님께 잘 보인 탓에 어려움을 피해가고, 단호하고 용감하지만 주인을 잘못 선택한 메시는 자식을 죽이는 비극을 맛보고, 여호람은 원통한 마음으로 모압을 포기하고... 에돔 왕은? 여호사밧의 속국이기(좋은 주인을 만나서) 별 어려움이 없었던 것 같다.

열왕기하 4 장

1. 하나님을 경외하는 선지자의 생도가 왜 빛을 남기고 죽나? 그러려면 가족이라도 남기지 말든지. 이 선지자의 생도는 신앙은 좋았지만 돈 버는 일에 무능한 사람이었나보다. 현대에도 목회자가 되려는 신학생은 돈과 당연히 거리를 두어야 한다. 그러면 돈 없이 사는 법을 배워야 하나? 아니면 돈을 잘 버는 사람을 아내로 맞아야 하나?

돈 때문에 목회자가 되려는 것이 아님을 훈련시키기 위해서라도 신학생들에게 넉넉한 대우를 하지 않는 것 같아 보인다. 대체로 교회들이 재정적으로 어려운 탓도 있지만 신학생들을 넉넉하게 대우하려는 마음도 없어 보인다. 그래야 돈 때문에 목회하려는 사람을 막을 수 있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 보인다. 오히려 재정적인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게 된다. 그래서 신학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신부감이 간호사, 교사들이다. 상당한 기간 동안 재정적인 지원을 받기 위한 것이다. 신학생 스스로 돈과 담을 쌓고 지내려는 노력도 부족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럴 수도 없기 때문이다. 이런 풍토가 바람직하지 않아 보인다. 바람직하기는 교회가 신학생을 엄격하게 선별하고 넉넉하게 뒤를 돌보아주는 것이 좋아 보인다.

2. 선지자의 생도에게 돈을 빌려준 사람이라면 어떻게 돈 대신 아이들을 잡아 갈 수 있나? 아니 신학생이 어떻게 그런 사람에게 돈을 빌렸을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서 아무런 도움도 기대할 수 없는 사회이었던 모양이다.

3. 가난한 선지자의 아내를 돕기 위해서 엘리사가 베푼 이적에서 기름 한 병(a little, NTV)은 필수인가? 그것마저 없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 문제는 그녀에게 있는 것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점이다. 내가 가진 작은 것, 주변 환경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요 하나님은 이런 것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4. '이 여인이 그릇을 많이 빌렸더라면 기름을 많이 얻었을 것이고, 적게 빌렸더라면 기름을 적게 얻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성도는 크게 순종하고 큰 꿈을 가져야 한다, 아끼지 말고 팍팍 바쳐야 한다.' 이 본문을 근거로 이렇게 설명하면 어딘가 문제가 있다. 무슨 문제가 있는가?

본문의 이적은 엘리사의 사역을 말하려는 것이지 그 대상이었던 사람들의 신앙상태를 점검하려는 것이 아니다. 그 사람들의 그릇의 크기에 따라 엘리사의 사역이 늘었다 줄었다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여인에게 많은 그릇을 빌리라고 미리 말했다. 만약 이 여인의 믿음이 작아서 그릇을 많이 빌려오지 않을 것을 미리 아셨다면 다른 말씀을 더 하셔서 많은 그릇을 빌려오도록 조치하셨을 것이다. 아무런 이유도 없이 많이 빌리라고 해서 시험해 본다는 생각은 성경적이라기보다는 너무나 인간적인 냄새가 난다. 많이 빌리는지 적게 빌리는지 시험하는 일은 성경적이지 않다! 하나님도 그러하지 않았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무조건 큰 꿈을 가져야 하나? 능력과 상관없이 무조건 거대한 교회를 짓는 것이 큰 복을 받는 비결인가? 이에 대해서는 예산을 미리 짜지 않는다는 말씀도 있다(눅 14:28). 예수님께서 많이 사용하신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는 말씀도 '그렇게 믿었으니 그렇게 되라'는 말씀이지 믿음이 적으면 이루어지지 말라는 뜻이 아니다. 가난한 족속을 다 쫓아내지 않고 남겨두신 것도 이스라엘이 순종하나 안 하나 보기 위함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삿 2:20-23)도 이스라엘이 그들을 쫓아내지 않고 남겨두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하신 말씀이지 하나님께서 미리 그렇게 하시려고 한 것은 아니다. 그런 점을 감안하고 '네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시 81:10)는 말씀을 기억해야 한다.

5. 하나님은 인간의 동역 없이 일하시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기 전에 사람에게 꼭 무엇인가를 요구하신다. 선지자의 생도의 아내가 한 일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비교해 보자.

그릇과 기름은 포장지와 내용물에 비할 수 있겠다. 우리가 준비하는 것은 포장지, 내용물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그것은 포장지라는 것을 잊지 말자. 심고, 물을 주고, 김을 매는 것은 우리지만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다(고전 3:6).

6.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때는 항상 풍족하다. 기대하거나 요구한 것보다 그 이상의 것을 주신다. 이 여인에게 이루어진 일에도 그런 점이 있다면?

원한 것은 빛을 갠 것이었지만 주어진 것은 생활비(단순한 한두 달의 생계비 차원이 아닌 삶의 터전)이었다.

7. 수넴 여인에게 칭찬할 만한 점이 있다면(대여섯 가지)?

귀한 여자가 이렇게 대접하기를 좋아하는 것: 돈있는 사람이 더 무서운 세상인데.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알아본 점: 사람은 자기와 닮은 점이 있는 사람을 잘 알아본다.

생각한 바를 실천한 것, 남편을 섬뜰한 것: 적극적인 자세를 가진 사람이다.

접대하면서도 아주 주도면밀한 것: 대접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전혀 불편하지 않게 돌보아주었다. 대접하거나 남을 도우는 사람이 자신의 입장만 생각해서 오히려 상대방을 불쾌하게 만드는 일도 허다하다.

아이의 죽음 앞에서도 함부로 날뛰지 않는 침착성: 아들이 죽었는데도 남편에게도 알리지 않고 차분하게 선지자를 찾아갈 수 있었다? 복권에 당첨되고도 아무 말 없이 몇 달을 그냥 지낼 수 있는 사람보다 더 하다.

계산이나 사심 없이(하다못해 아들이라도 얻을 요량도 없이) 선지자를 돌본 것

8. 수넴 여인에게 한번 밥을 얻어먹었으면 됐지, 갈 때마다 그러면 되나? 밥만 얻어먹는 게 아니라 아예 방까지 하나 얻었네! 교역자가 이러면 되나?

본문의 선지자와 현대 교역자의 형편은 동일하지 않은 경우가 더 많다. 이런 장면을 근거로 교역자가 교인에게 기대는 것은 옳지 않다. 레위인이 따로 경작지를 얻지 않고 생활하던 때의 일이니 선지자도 같은 경우라고 보아야겠다. 넉넉한 생활비를 지급받았다면 교인들에게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은 결코 성경적이라고 할 수 없다. 경우에 따라서는 교역자가 되레 대접을 해야 하는 경우도 많아 보인다.

9. 엘리사가 수넬 여인에게 직접 얘기하지 않고 게하시를 가운데 놓은 모양이다(12-14). 16절에서는 직접 얘기를 했는데 무언가 은혜를 베풀려고 하면서 직접 대면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

수넬 여인이 곤란해 하지 않도록 입장을 고려한 것 같아 보인다.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 받는 사람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남을 도울 때 특히 도움을 받는 사람의 자존심을 다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10. 왕이나 군대장관에게 무슨 부탁할 일이 있느냐는 질문에 '나는 내 백성 중에 거하나이다'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 솔로몬이 비슷한 말을 한 적이 있는데(왕상 3:8)?

백성들과 다르게 특별대우를 받을 이유가 없다는 뜻이다. 솔로몬의 대답도 비슷하다. 하나님 앞에서 다른 백성들과 다를 바가 없으니 특별한 지혜를 주셔서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였다.

11. 수넬 여인이 자기 집 앞을 지나는 선지자를 지극 정성으로 대접한 것은 잘한 일이다. 그래도 혹 잘못이 있다면?

아무 것도 바라지 않고 선지자라는 이유만으로 주밀하게 대접한 것은 정말 잘한 일이다. 그러나 어떤 면에서는 아무 것도 바라지 않는 것은 잘못이다. 하나님께서 복주시기를 사모해야 한다. 왕이나 군대장관에게는 바랄 것이 없다 해도, 내년에 아들을 안으리라고 하는데도 '속이지 마옵소서'하는 것은 불신인가? 아니면 바랄 것이 없다는 의미일까? 하나님의 은혜는 바라지도 않았던, 상상도 하지 못했던 큰 것이었다. 왕이나 장관이 줄 수 있는 것보다 월등히 큰 것이었다. 과부에게 기름이 넘치는 것도 그렇고 보리떡 20개를 가지고 100명이 먹고도 남았다는 점도 그렇다.

12. 가령, 임금님이 주신 선물이라면 아무리 하찮은 것이라도 귀중하게 여겨야 하는데 임금님의 선물은 실제로도 귀중한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물로 준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지 않고 갑자기 죽는다는 것이 있을 수 있는 일인가? 만약 그렇다면 누구의 잘못인가?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병도 걸리지 않고, 피곤하지도 않는 특이 체질로 태어나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건강이나 자신의 상태를 돌아보지 않는 것도 위험한 짓이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신 아이라도 부모가 잘 돌봐야 한다.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한다고 해도 자신의 몸과 가정을 잘 돌봐야 한다.

13. 하나님의 사람에게 다녀오겠다는데 남편의 말이 '초하루도 아니고 안식일도 아닌데?'라는 것이 무슨 뜻이며 그에 대한 답변 '평안이니이다'는 것은 또 무슨 뜻인가?

남편의 말: 초하루나 안식일은 일을 쉬고 하나님을 섬기는 날이다. 그래서 선지자를 만날 수 있는 날이었던 모양이다.

부인의 말: 안부를 묻는 말에 대한 대답으로 '아무 일이 없다'는 뜻으로 쓰는 말이다. '별일 아닙니다'는 뜻이기도 하다.

14. 아들이 죽었음에도 이 여인은 당황하지 않고 차근차근 자신의 생각대로 일을 처리 하고 있다. 죽은 아이를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에 두고 문을 닫고 남편에게 알리지도 않는 것은 무슨 생각 때문일까?

선지자가 살려낼 것이라는 믿음: 아이를 낳을 가능성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낳을 수 있게 했는데 충분히 살려낼 수 있으리라고 믿었을 것이다. 엘리야에게도 이런 일이 있을 탓에 유대인들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것에 대해서 그리 놀라지 않았다. 오히려 소경이 눈을 뜨는 것이 죽은 자를 살리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로 여겨졌다(눅 7:22).

15. 엘리사는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다. 어떤 것만 아는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만 안다(27) 능력 있는 종은 모든 사람을 꿰뚫어보고 무슨 병이든지 기도만 하면 다 이루어진단다. 아무래도 성경적이지는 않아 보인다. '능력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말에서도 중요한 것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이다. 성경에는 슈퍼맨이 없다.

16. 인사를 하지도, 받지도 말고 급하게 지팡이를 보내어 아이 얼굴에 놓는 방법은 실패했다. 엘리사도 실패하네? 왜 실패했을까?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시킨 방법에 수넬 여인은 동의하지 않았다. 엘리사가 직접 나서주기를 간청한 셈이다(30). 그래서 안된 결과? 결국 엘리사가 직접 나서서 기도하고 아이 위에 엎드려서 아이를 살려내었다. 게하시가 엘리사의 명을 제대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은 결과를 알고하는 추측일 뿐이다.

17.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릴 때는 아이의 몸에 자신의 몸을 세 번 퍼서 엎드렸다(왕상 17:21). 엘리사는 몇 번? 엘리사의 어떤 말이 생각나는가?

두 번(34, 35) 스승에게 갑절의 은사를 달라고 했는데... 갑절의 은사를 받은 것 같다. 이적을 일으킨 내용도 훨씬 많은 것 같고... 반드시 그렇다는 말은 아니다. 참고로 바울이 유두고를 살릴 때는 한 번만 엎드린 것 같다(행 20:10).

18. 왕하 4장에는 몇 가지의 기적이 나타나 있는가?

5가지: 수넬 여인에게서 두 가지 기적이 있었다고 해야겠다.

19. 길갈에서 행한 이적에서 야들명굴의 돌위가 구체적으로 무엇이며 사망의 독(쓴 맛)을 제거하기 위해서 넣은 가루가 무엇인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마치 예수께서 소경을 고치시기 위해서 진흙을 침에 개어서

눈에 바르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요 9:6-7)고 한 것에서 침이 중요한가, 진흙이 중요한가를 따질 필요가 없다. 상징적인 행동이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이런 기적을 보이신 의도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배반하는 이스라엘에게 엘리사를 통해서 이런 저런 이적(엘리야 승천 이후 거의 10개)을 보이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엘리사를 엘리야의 후계자로 세운 이유가 말 안 듣는 이스라엘에게 징계를 내리기 위함이었다(왕상 19:16-18). 그러나 망하게 하려는 징계가 아니라 돌이키게 하려는 징계이다. 엘리사의 이런 기적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려는 의도이다. 자신의 한없는 자비와 사랑을 드러내시려는 것이다.

20. 엘리사가 행한 이적 중에서 예수님의 사역과 닮은 점을 찾아보자.

죽은 아이를 살린 것(나사로를 살린 것이나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린 것), 보리떡 20개로 100명을 먹인 것(오병이어의 구약판이다)

21. 선지자 생도의 아내의 기름병이 한국인들이 생각하는 도깨비 방망이와 다른 점이 있다면?

일정한 범위 내에만 유효: 빈 그릇이 있을 동안에만 유효하다. 엘리사가 엄청난 능력을 가졌으나 전지전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범위 내에서만 능력이 있었다(27). 사도들이 방언의 은사를 받았지만 항상 그 능력을 소유했던 것은 아니다. 계시를 받았다고 하면서, 혹은 어떤 은사를 받았다고 전지전능한 것처럼 말한다면 성경적이지 않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항상 귀를 기울이고 살아야 한다. 기도와 말씀을 묵상하는 삶이어야 한다.

열왕기하 5 장

1. 나아만이 군대장관이었다고 하는데 1절을 근거로 다른 이름을 하나 더 붙인다면?

개국공신: 무시할 수 없는 권력자였다는 말이다.

2. 하나님께서 나아만으로 하여금 아람을 구원케 하시다니? 바쁘신 하나님께서 이런 일까지 돌보셔야 하나?

불순종하는 이스라엘에게 심판, 징벌 등의 자극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방의 역사에 개입하신 적이 한 두 번이 아니다. 어쩌면 1:3절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러 가느냐?'에 대한 예시일 수도 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좁은 의미로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일일 수도 있지만,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니 세상의 어떤 일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지 않는 것은 없다. 그렇게 본다면 필연적인 귀결이다.

3. '용사(이)나 문둥병자'라는 말은 참으로 안타까운 말이다. 왜?

모든 것을 다 가졌으나 누리지는 못한다는 말이니까! 차라리 거지가 문둥병자라면 그렇게 불쌍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인물은 좋은데 머리가 나쁘면? 인물 좋은 것이 오히려 독이 되기도 한다. '문디이라도 좋다, 장군이 되었으면' 싶은가? 당시의 문둥병자는 사람들과 함께 살 수 없었다. 격리당해야 했는데 장군이 무슨 소용인가?

4. 아람 사람이 때를 지어나가서 작은 계집아이 하나를 사로잡다니? 왜 그런 짓을 하나?

이 아이를 잡아오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사람들의 못된 행위(전쟁, 노략) 중에 작은 계집 아이도 하나 잡혀왔었는데...라는 말이다: 그런데 이 아이가 오히려 자신을 종으로 삼은 그 집에서 귀한 일을 하고 있었다. '적에게 사로잡혀 가서 종살이를 하다니 기구한 인생이야!' 하지 않고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선지자를 잊지 않고 살므로 귀한 일을 하게 되었다. 어린 계집아이가 선지자를 알고 있었다는 사실도 놀랍다.

5. 일국의 2인자 나아만이 어떻게 작은 계집종의 말에 귀를 기울이나?

물에 빠진 사람이 잡는 지푸라기지!

6. 나아만이 가져간 예물이 어느 정도 값어치를 지녔을까? 참고로, 은 한 달란트는 3000세겔로, 34kg이고, 노동자의 6000일 임금(연봉 20년치)이란단.

은 10달란트, 금 6000개(두 달란트), 의복 열 벌: 금은 두 달란트인데 은의 15배 가치가 있었단다. 대략, 금 6000개는 은 10달란트의 2, 3배 금액이다.

7. 나아만의 말을 들은 아람 왕이 선지자에게 나아만을 보내지 않고 이스라엘 왕에게 병을 고쳐달라고 하는가?

아람 왕의 생각으로는 선지자도 왕의 권한 밑에 있는 신하일 뿐이니 그럴 수밖에 없다. 왕이 고치려면 고치겠지... 이방의 왕들에게는 선지자나 제사장도 왕을 위한 봉사자지만 이스라엘의 선지자나 제사장은 왕에게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봉사하는 직책이다. 왕에게 봉사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대한 봉사라 직결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그러나 왕이 하나님의 뜻과 다른 방향으로 나갈 때 선지자는 결코 왕에게 봉사하지 않는, 오히려 거추장스런 존재가 되기도 한다. 장관이나 국회의원은 누구에게 봉사하는가? 대통령과 당대표에게 충성하는 것이 곧 백성에 대한 봉사라 직결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부교역자는 누구에게 봉사해야 하는가?

8. 이웃 강대국의 왕이 느닷없이 문둥병을 고쳐달란다. 전혀 말도 되지 않는 이런 부탁을 들으면 무슨 생각이 들겠는가?

전쟁을 걸려는 시비라고 생각하는 것(?)이 당연하다. 누가 자기에게 고쳐달라고 했나? 진작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선지자가 어떤 분인지 알아야 이런 쓸데없는 고민을 양지! 성경을 열심히 배우고 말씀대로 사는 것은 바로 이런 엉뚱한 고민을 예방하는 것이다. 일이 터진 다음에 앓아대지 말고, 상당하느니, 100일 기도를 하느니, 부산떨지 말고 일이 터지기 전에 말씀대로 살자.

9.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나아만의 문둥병을 고쳐주려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계심을 알게 하겠다: 저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음을 알리이다(왕하 5:8)는 이 말은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려는 의도가 아니다. 병을 고치고난 후의 나아만의 말을 보아도 분명하다(15). 우리가 무슨 일을 어떻게 하든 최종적인 결과는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이어야 한다. 교회도 그리스도인도 세상의 소금 구실을 제대로 못하고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을 때 '여기 제대로 된 목사(교회, 성도)가 있음을 보여주겠노라'고 나설 수 있으면 얼마나 좋으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는 교만함(?)이 필요한 시대인 것 같다.

10. 나아만이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엘리사의 집 문에 선 것(9)은 일종의 허세다! 들어가지 않고 문에 선 것은 마중 나오라는 말이다. 이게 왜 어울리지 않는 허세인가?

지금은 품 잡고 있을 형편이 아니다. 사정해도 시원찮을 판인데 위세당당? 병을 못 고치면 모든 것이 헛일인데 무슨 말과 병거를 거느리고 품을 잡나? 고친 다음에는 분명하지는 않지만 좀 다르게 묘사되었는데(15), 게하시에게 대하는 것을 보아(21), 엘리사에게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11. 문둥병을 고치려는 나아만에게 어떤 장애가 있었을까?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장애는 무엇일까?

계집아이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로 가는 것: 쪽팔리게 어떻게 계집종의 말을 듣고 적국으로 간다는 말인가!

엘리사가 나와 보지도 않는 것: 감히 어디라고 내다보지도 않고?

당처 위에 손을 흔들지도 않고: 신의 이름을 부르고 주문을 외워야지(이건 나아만이 아는 치료법이다. 그렇게 잘 알면 지가 하지)!

요단강에 일곱 번 씻으라는 것: 아래 질문 참조.

가장 큰 장애: 선지자가 자기 생각(11)대로 해주지 않는 것: 엘리사가 나와 보지도 않는 것과 요단강에 일곱 번 씻으라는 것을 요약하면 이렇게 될 것이다. 차라리 근엄하고 위엄 있는 표정으로 나와서 성의가 부족하니 더 큰 보따리를 들고 오라고 돌려보내면 장애가 되지 않을지도 모른다.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것이 문제인가? 자기 생각이 없는 사람들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사람은 자기 생각이 있어야 한다. 문제는 아무 때나 자기 생각대로 하려는 것이 문제일 뿐이다. 자기생각을 분명히 가지고 있되 말씀에 어떻게 부합되는지를 살펴야 한다. 말씀이 자기 생각과 다를 때 자기 생각을 깨끗이 포기할 줄 알면서도 자기 생각을 가져야 한다. 병을 고치러 왔으면 하라는 대로 해야지! 그렇게 잘하면 지가 하지. 의사 앞에서 병에 대해서 아는 체 하지 말라. 하나님 앞에서 까불지 말라!

12. '아마나와 바르발강이 요단강보다 낫지 아니하냐?'는 나아만의 말이 무엇이 문제인가?

이것은 강의 문제가 아니라 순종의 여부에 달린 문제이다: 예수님도 병자를 고치시거나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실 때도 불필요한 듯한 요구를 하신 적이 종종 있다. 순종이 완전함을 이룬다. 선악과가 사과나 아니나를 따지는 것도 별 의미가 없는 일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이냐를 따져야 한다. 하나님께 무조건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 문제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무조건 순종을 강요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일에 열심이어야 하고, 민감해야 한다.

13. 나아만이 발끈하여 발길을 돌리는데 종들이 어떻게 이렇게 기특한 생각을 하였을까(13)?

인간은 대단히 감정적인 동물이라서 쉽게 감정에 흔들리고 그렇게 되면 냉정하게 행동하지 못한다. 그럴 때는 감정의 영향을 덜 받는 옆 사람이 더 잘 보게 된다. 장이나 바둑에서 훈수꾼이 잘 보는 것도 그런 이유이다. 이성적이어야 할 때와 감정적이어야 할 때를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엘리사는 7번 씻으라 했는데 7번 잡겼네? 씻는 것과 물에 푹 잠기는 것은 같은가? 한국 사람처럼 때를 미는 민족은 별로 없단다. 같은 의미로 보아도 좋을 듯!

14.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하시거나 은혜를 주실 때는 늘 풍성하게 주셨다. 나아만의 경우에 그런 예를 찾는다면?

피부가 어린 아이의 살같이 된 것: 하나님을 은혜를 베푸실 때 풍성하게 베푸시는 분이시다. 손이 몹시 큰 분이시다.

15. 이스라엘의 우상숭배는 전통 있는 것(?)이다. 이들에게 이웃나라의 군대장관이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15)'라는 고백을 했다는 것은 충격적인 것이 아닐까?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일까?

이스라엘이 대외과성하라는 것: 이방인의 입을 통해서 자기 백성들을 부끄럽게 하심이다. 이 구절을 예수께서 그런 의미로 인용하셨다. (눅 4:27)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문둥이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니라'

16. 엘리사의 거절은 예의상 거절이 아닌가? 왜 예물을 안 받았을까?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15) 라는 고백 때문에

돈 때문에 고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대답을 들은 목사님들은 명절에 교인들의 선물을 거절할지도 모르니 주의해서 대답을 해야 한다.

나아만이 초신자이기 때문이다. 오직 하나님만 알게 하고 싶은 순수함이 아닐까. 돈도 명예도 아무 것도 바라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알게 하려는 깨끗함 때문일 것이다. 목사가 이슬만 먹고 살아야 하지 않을까? 헛꿈인가? 이르지 못할 과도한 이상인가? 그렇게 살 능력은 없지만 그렇게 살고 싶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일생을 깨끗이 살다가 간 사람들, 호세아, 예레미야, 하박국, 바울, 사도들, 이들은 스스로 낮은 곳을 찾아서 살아간 사람들이다. 나아만의 의도는 순수함이 분명하다. 그럼에도 재물이나 보수에 연연하지 아니함이 아름답다. 자기 교회 내에서 여러 가지 행사에 따른 사례를 목사는 어떻게 해야 하나(헌신예배 강사 사례, 결혼이나 장례식의 사례, 교통비: 사례가 아니라 감사의 표시요, 성의라고 우기면)?

자신이 고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선지자와 재산은 별로 관계가 없어야 하기 때문? 그렇지만 받아서 좋은데 쓰면 되잖아? 나아만으로 하여금 좋은 데 쓰게 하는 것이 옳다.

아무래도 가장 좋은 답은 '나아만이 초신자이기 때문'으로 보인다.

17. 흙은 가져가서 뭐 하는데?

어떤 형태로든 하나님을 섬기려는 것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이 흙을 기초로 제단을 쌓든지, 이 흙을 뿌린 곳을 하나님이 계시는 곳으로 성역화 하든지):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십자가를 목에 걸고, 성경책을 끼고 티만 내고 다니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 제사를 원치 않으시는 하나님(호 6:6)에게 제사만 자꾸 지내면 안 된다.

18. 나아만이 하나님만을 섬기기 어려운 사정을 이야기했을 때(17-18) 엘리사가 '평안히 가라'고 했는데 그래도 되는 건가? 죽을 각오를 하고, 아니면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라고 권고해야 하는 것 아닌가?

신앙은 강제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스스로 그렇게 하겠다고 작심하고 달려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양보하신 적이 많다. 우리의 의사와는 아무런 상관없이 믿음이 주어졌을지라도 어떤 신앙인이 되느냐는 것은 우리의 태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현실에 타협하며 살면 능력 있는 삶을 살지 못한다. 그는 아람 나라의 제2인자에 해당하는 권력자였지만 이런 신앙으로는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했다. 우

리나라에도 권력의 핵심부나 요직에 신자가 굉장히 많은 편이지만 되는 게 없다. 사고나 치고 있지 않은가? 초신자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사도 바울은 이런 경우에 '어린 아이'라고 말했다(고전3:1-2) 말씀대로 살아야지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양다리를 걸치고 산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고 형식적인 신자로 살 수밖에 없다.

19. 여호와를 섬기게 된 나아만의 말은 이렇다. '내가 림몬의 당에서 절하는 것이 아니라(17절) 몸을 굽힐 뿐이다. 이권 절이 아니다.' 이런 뜻 아닐까? 비슷한 경우인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구스 내시의 경우(행 8장)와 비교하면 어떨까?

아람은 결국 사멸되고 말았다. 예루살렘에 왔다가 빌립에게 세례를 받고 돌아간 구스 내시의 에디오피아는 기독교 국가로 오랜 세월동안 외침을 받지 않고 평화를 누렸다. 최근에 이르러 불쌍하게 되어버렸지만... 공산주의 탓인가?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행하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초신자냐 아니냐를 구별짓는다. 나아만은 영원한 초신자일 수밖에 없다. 교회에 다닌 지 얼마 안 된다고 해서 초신자가 아니라 아무리 오래 다녀도 어떤 자세로 하나님을 섬기느냐에 따라서 초신자냐 아니냐가 결정되는 것이다. 하나님을 믿노라고 고백하기도 어렵고, 마음으로는 원하지만 겉으로 드러내지는 못하고, 이렇게 한번 해 봤으면 싶기는 하지만 육신이 약한데, 시간이 없는데, 꼭 그래야 되나 하면서 실천해 보지 못한 사람들이 바로 초신자이다.

20. 개하시가 예물 중에서 일부라도 받아야겠다고 하면서 한 말이 '여호와와 사심을 가리켜' 맹세했다는 것이다. 그런 일까지 여호와를 들먹이는가? 다시 말하면 이 말이 하나님을 가리킨다기보다는 관용적인 어법으로 쓰이고 있다는 증거이다. 우리말 한 글자로 고치면?

꼭: 관용적인 어법이라는 것은 실체와 상관없다는 뜻이기도 하고 습관적이고, 기계적이기도 하다는 뜻이다. 개하시가 말하는 여호와와 진짜 여호와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다.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말일 뿐이다. 진정한 마음의 교류가 없는 습관적이고 반사적인 행동은 우리를 슬프게 한다.

21. 뒤쫓아 오는 개하시를 보고 나아만이 '평안이나?'고 물었고 개하시가 '평안이니이다'라고 대답했다. 평안이 아니면 원데?

볼 일도 있을 수 있고, 뭔가 잘못되었을 수도 있겠지: '특별한 일이 있어서 온 것은 아니죠?'라는 물음에 '특별한 일은 아니라'는 단순한 인사의 교환이다. 우리말에 '안녕하세요?' 정도이다.

22. 개하시가 따라와서 물품을 요구한 것이 나아만에게는 오히려 고마운 일이었을 것이다. 그러니 한 달란트만 달라는데 굳이 두 달란트를 주었다. 당장에 개하시에게 생고 고민이 뭘까?

혼자 가지고 돌아가기에는 너무 많다: 나아만 장군이 고맙게도 사환을 둘이나 붙여주었지만 사환을 데리고 집까지 갈 수는 없다. 언덕(원문에는 그 언덕이므로 잘 아는 고개 정도였을까?)을 넘지 않고 두 사환을 돌려보냈을 것이다. 혼자서 집안으로 옮기고 감추느라고 고생이 얼마나 심했을까?

23. 개하시가 언제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다 받았나?

머릿속에서 그런 것들을 그리고 있었을 것: 이만한 재산이면 엘리사의 사환 노릇은 치우고 멋지게 살아보자는 꿈을 꾸었을 것이다. 복권에 당첨되기를 바라며 이런 헛꿈을 꾸는 사람도 많은 모양이다. 신판 개하시! 당첨되어도 여전히 개하시다 이 놀아! 권력과 부를 다 거머쥐고도 모든 것을 포기해야 했던 나아만의 불행이 그래도 개하시에게 옮겨졌다. 복권에 당첨돼서 누리지 못하는 불행은 당첨되지 않는 것보다 더 불행하다.

24. 개하시는 위대하신 선생님을 모시고 있었다. 얼마나 행복했을까? 그런데 왜 이렇게 불행하게 되고 말았는가?

스승님의 위대함에 동조하지 못하면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은 불행이다. 위대한 목사님을 모시고 있다고 자랑하면서 그 위대함이 자신의 것이 되지 않는다면 불행하다. 공부 잘한다고 소문난 학교에서 공부를 싫어하면 빨리 다른 학교로 옮겨야 내신이라도 손해 보지 않는다.

25. 개하시의 잘못이 무엇인가? 스승과 나아만을 속인 것? 물건에 욕심을 낸 것? 너무 피상적인 답이다. 본문의 어느 표현이 개하시가 이런 벌을 받아야 하는 이유를 지적하고 있는가?

지금이 어찌(26): 지금이 어떤 때이길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나아만이 이제 막 하나님을 알게 되는 위대한 순간에 자칫 그것을 무너뜨릴 위험한 짓을 한 것이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순간은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을 하시는 때이다. 이렇게 큰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면전에서 그것을 허무는 행위는 참으로 위험하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아간이 그렇게 허무하게 죽어야 했던 이유도 마찬가지다.

26. 본문에서 밝고 싶은 사람이 있는가?

엘리사: 그랬으면 싶지만 너무 높은 꿈인가?

계집아이: 전쟁 중에 적에게 사로잡혀가서 종살이를 하다니 기구한 인생이야!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선지자를 잊지 않고 살므로 귀한 일을 하게 되었다. 바로 이 뒷부분이다. 종으로 살지만 주인에게 하나님을 소개할 수 있는 인물이 되고 싶다.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이렇게 결박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노이다'라던 죄수 바울이 생각난다(행 26:29).

열왕기하 6 장

1. 생도의 말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한 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재물을 취하여 그곳에 우리의 거할 처소를 세우사이다'를 현대적인 표현으로 요점만 정리하면 '신학교를 이전, 증축합시다'라고 할 수 있다. 그러면 '청권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란 말은 '모범을 보이셔야죠!'라는 말일까?

아니다: 엘리사의 지도력과 능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요청이다.

2. 다음 중에서 1-7절의 핵심을 가장 잘 설명하는 것은 어느 것인가?

- 1) 선지학교는 날마다 이렇게 확장, 발전해야 한다.
- 2) 빌려온 물고는 관리를 잘 하고 꼭 돌려주어야 한다.
- 3) 물가에서 작업을 할 때는 특히 조심해야 한다.
- 4)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사에도 면밀하게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

이런 교훈을 주고자 하는 것은 핵심이 아니다. 선지자의 이적적인 사역의 한 예일 뿐이다. 패역한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이렇게 자신을 나타내셨다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

3. 도끼 하나 잃어버린 것을 가지고 뭘 그렇게 호들갑을 떠나?

우리 시대에는 도끼 하나일지 몰라도 쇠가 귀하던 고대에 이것은 큰 재산이다. 더구나 선지 생도는 예나 지금이나 가난해서 도끼 하나라도 변상하는 일이 만만치 않다.

4. 나뭇가지를 던지는데 쇠가 떠오른다? 도대체 말이 말 같아야지?

나뭇가지 때문에 떠오르는 것은 아니다. 가시적인 무언가를 보아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의 본성 때문에 쓸데 없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행동을 보이는 것이다. 이적을 믿지 않는 자들은 실제로는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도끼 자루에 끼워서 견져 올렸는데 이런 식으로 표현했다고 설명한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적도 그렇게 설명한다. 결국은 믿지 않는다는 얘기다.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가 아람 군대에 대해서 이렇게 능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도 스파이를 이용한 정보력 덕분이라고 한다. 그런 사람들은 왜 성경을 보는지 이해가 안 된다.

5. 도끼는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의 모형이고, 날이 빠진 도끼 자루를 들고 서 있는 사람은 능력과 진리는 잃어버리고 교리나 의식만 붙들고 있는 패역한 교역자들이고, 잃은 도끼를 찾는 모습은 잘못을 회개하고 첫 사랑을 회복하는 것을 상징한다. 그럴 듯하지 않은가?

이 기사의 본래 의도가 그런 것이 아니다. 성경이 말하려는 것보다는 자신의 의도에 꿰맞춘 해석이다. 그렇다면 도끼를 빌려온 것은 어떻게 해석하고 다 쓴 다음 주인에게 돌려주는 것은 뭐라고 설명해야 하나? 더 나아가, 물가에서 도끼질을 해서는 안 되고, 잃어버리면 속히 선지자에게 부르짖어야 한다고 가르쳐도 괜찮은가? 말이 맞는지는 몰라도 성경을 가르친 것은 아니다.

6. '아무'라는 단어는 '특정한 사람이나 사물을 이름 없이 지칭하거나,' 부정을 뜻하는 말과 연결해서 '모든'이란 뜻으로 쓰이기도 한다. 8-9절에 '아무'라는 단어가 세 번 나오는데 다 같은 뜻일까?

같은 곳이라야 말이 통한다: 9절은 '아무 데도 가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某某지역에는 가지 말라는 뜻이다.

7. 엘리야를 잡으려고 하는 아람 왕의 말은 논리적으로 모순이다. 어떻게 앞뒤가 맞지 않는지 설명해 보자. (어떤 우화와 비슷한가?)

신하의 말대로 스파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엘리사가 그런 능력을 지닌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잡을 생각을 하나? 포기해야지! '고양이에게 잡혀 죽지 않으려면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면 된다'고 하는 생각이나 마찬가지다.

8. 아람 왕이 도단에 있는 엘리야를 잡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 중에 특별히 신경 쓴 게 있다면?

밤에(14) 움직이는 것을 엘리야가 미리 알아버리니까 들키지 않으려고 밤에 신속하게 움직인 모양이다. 쓸데 없는 잔머리를 굴렸구만!

9. 수종드는 자가 보지 못한 불말과 불병거가 오늘 우리에게도 있다면 무엇일까?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우리가 속한 온 세상을 주관하고 계신다. 이것을 아는 자는 엘리사처럼 평온하겠지만 이것을 알지 못하는 자는 불안할 수밖에 없다.

10. 불말과 불병거가 실제로 도움이 되었는가?

아니다. 아람 군대와 싸우는 것은 불말과 불병거가 아니다. 그럴 필요도 없다. 하나님께서 싸우시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는가? 눈을 어둡게 해버리면 아무리 많은 군대가 무슨 힘이 있는가? 기도 한방이면 수많은 병거보다 더 위력이 있는데... 가시적인 그 무엇이 필요한 사환에게 보여주기 위함이다.

11. 이왕 돌려보내려면 그냥 도단에서 돌아가게 하지 무엇 때문에 사마리아로 가서 돌려보내나?

그냥 돌려보낸 것보다 이렇게 하는 것이 확실하게 하나님의 능력을 양쪽에 다 보여주는 셈이다. 아람 군사들은 죽을 뻔 했는데 이스라엘 측으로부터 대접을 받았으니 다시는 싸우려는 생각이 들지 않을 것이고, 이스라엘 왕이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어떻게 지키시고 계시는지 실감했을 것이다.

12. 도단은 사마리아 동북쪽으로 18km 떨어진 곳이다. 눈이 멀어버린 아람 군사들이 어떻게 그 거리를 행군해서 갔을까?

시력을 다 잃어버린 정도가 아니라 눈을 뜨고 보면서도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상태였을 것이다. 19절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그 성도 아니라는' 말이 그것을 보여준다. 선지자가 이렇게 거짓말을 해도 되나?

이런 것은 거짓말이 아닌가? 굳이 변명을 하자면 사마리아에도 엘리사의 집이 있었고 자신도 사마리아에 갔으니 거짓말은 아니다? 이렇게 설명하면 약간 억지다.

13. ‘치리이까? 치리이까?’ 이스라엘 왕이 신이 나서 하는 말이다. 이런 이적을 체험하면서도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는다는 것은 참으로 불가사의한 일이다. 이 왕(아마 여호람)은 엘리사를 제대로 선지자로 모시지 않았다(31). 그러면서 여기서는 ‘내 아버지여’라고 부르면서 호들갑을 떠는가?

적군을 꼼짝없이 잡아온 그 솜씨에 감탄한 일시적인 흥분이다.

14. 원수인 아람 군인들을 죽이지 말라는 근본적인 이유는 말하지 않는다. 본질적인 문제는 접어두고라도 이들을 죽이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칼과 창으로 사로잡은 자(위험을 감수하고 잡은 자)라도 함부로 죽여서는 안 되는데 아무런 수고도 않고 그저 들어온 자들을 죽여야 되겠는가?

15. 아람 군대는 정신이 없나? 엘리사에게 이렇게 당해놓고 또 쳐들어오다니?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잊어버린 후의 일일수도 있지만 이 기록은 엄밀한 연대기적인 기록이기보다는 별개의 기록을 하나의 주제(엘리사의 이적적인 능력을 설명)하에 모아둔 것이다.

16. 나귀 머리 하나에 은 팔십 세겔이면 비싼 걸까? 굶주려 죽을 상태이니만큼 엄청나게 비싸다는 뜻으로 쓰인 말일 것이다. 어느 정도 비싼 걸까? 돼지 머리카나 소머리는 맛있는 고기라던데... (참고 레 11:4)

평소 같으면 먹지도 않는 것을 1년 연봉을 다 주어야 할 만큼 비싸다: 나귀는 식용으로 쓰지 않던 것인데다 머리는 먹을 것이 그리 많은 부위가 아니다. 은 1 세겔은 노동자의 4일 품삷이므로 80세겔은 노동자의 1년 연봉인 셈이다. 우리가 면양털을 비싸게 취급하는 것과 달리 중국에서는 면양털이 아주 헐값이란다. 잘 떨어지기 때문이다. 반면에 나이론 양털은 질기기 때문에 아주 비싸단다. 양식이 없는 시절에 질보다는 양이 우선일 테고 그렇다면 머리는 아주 헐한 것이어야 하는데 실상은 엄청나게 비싸다. 합본태는 ‘비둘기 똥’이나 ‘여물지 않은 콩’처럼 영양가가 거의 없는 음식물 찌꺼기와 같은 것들을 가리키는 말이다.

17. 왕의 다음 말(27)은 어느 정도로 신앙적인가? 왕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타작마당으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포도주 틀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신앙적인 표현이 아니다: 자신의 능력없음을 고백하는 말이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표현이 아니다(31절 참고). 표현보다는 진의가 더 중요하다. 오히려 비꼬는 표현 같다.

18. 어떤 여인이 왕에게 요구한 것(26)과 왕의 대답(27)은 핀트가 약간 어긋나 있다.

여인의 요구는 재판에 관한 것이고(28-29) 왕의 대답은 먹을 것을 달라는 것으로(27) 지레짐작하고 어쩔 수 없다고 대답한 것이다. 이 여인이 왕에게 그럴 능력이 없음을 알고 있는 셈이다.

19. 아무리 굶주려도 자식을 삶아 먹는 일이 가능할까?

이런 처지를 도무지 상상할 수도 없는 사람들에게는 불가능해 보이지만 실제로 굶어 죽는 상황에서는 있을 수 있단다. 사실은 하나님을 버리면 이런 참혹한 일이 있을 것을 모세가 이미 경고했었다 (레 26장, 특히 23-29절, 신 28:15절 이하, 특히 53-57)

20. 굶은 벼룩은 거친 천으로 회개, 슬픔을 나타낼 때 입는 옷이다. 왕이 속살에 벼룩을 입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세 아닌가?

31절을 보면, 또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된 원인을 볼 때 하나님의 의식하는 행위는 전혀 아니다. 단지 외식적이고 형식적일 뿐이다. 아니면 이런 행위를 통해서 책임을 엘리사에게 전가하려는 의도가 있을 수도 있다. 전혀 하나님을 위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목사님들도 회개하고 우는 일을 잘 하더라! 속살에 벼룩을 입은들 뭐하나?

21. 왕이 극심한 굶주림에 대한 책임을 엘리사에게 돌리는 이유가 무엇일까?

지난 번 아람 군사들을 그대로 살려 보내라고 한 것

한때는 적군의 움직임을 잘 가르쳐주더니 이렇게 어려운데 아무런 능력을 보이지 않는다.

22. 엘리사가 장로들과 함께 있는 집에 누가 왔는가?

왕(한글 개역은 작은 글자로, 원문에는 없다는 뜻)이 사자를 보내놓고 즉시 뒤따라 온 모양이다: 그 주인의 발소리가 뒤에서 나지 아니하느냐(32d), 왕이 가로되(33b), (7:2).

23. 8-23은 이스라엘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에 관한 내용인데 24-33은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다른 모습을 보이시는가?

하나님은 축복만 하시는 마음씨 좋은 이웃집 아저씨 같은 분이 아니다: 축복과 심판이 한데 어울려 있는 것이 여기가 처음이 아니다. 엘리사가 능력을 받은 직후에 벌어졌던 두 가지 사건(2:19-25)이나 신명기 28장의 축복과 저주가 함께 예언된 것들이 그렇다. 하나님께서는 이 두 가지 측면이 분명하게 공존하고 있음을 보여주시는 것이다.

열왕기하 7 장

1. 문맥상으로 '고운 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 '보리 두 스아에 한 세겔'은 어떤 의미인가?

평창히 싼 값(현 상태와 비교해서) 한 스아는 7.33ℓ이고 노동자의 4일 임금이 한 세겔이다. 고운 가루(고급 밀가루인 썸) 한 스아에 한 세겔이면 그렇게 싼 것은 아니지만 현 상태와 비교하면 엄청나게 싸다. 보리 두 스아면 거의 한 말에 가깝다. 영양가도 없는 합분태 사분 일 갑(갑은 스아의 1/6)에 은 다섯 세겔이던 것과 비교하면 엄청나게 싼 값이다. 질 차이를 빼고도 1/120로 떨어진 셈이다.

2. 눈으로 보기는 하겠지만 먹지는 못하게 된 이 사람의 직책을 요즈음 말로 하면 뭘까?

경호실장(2) → 수경사령관(17) 높은 자리다. 높은 자리에 있을 때는 까볼지 말아야 한다.

3.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늘에서 창이 열려 곡식이 쏟아진다고 한들 이런 일이 어떻게 있겠느냐고 했지만 결과를 보면 하늘에 창이 열리는 거창한 일도 없이 이루어지고 말았다. 이 장관의 어디에 문제가 있는가?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기에는 자신의 머리가 너무 부족함을 몰랐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자신의 수준으로만 이해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이런 무리를 초래한다. 합리적이란 것은 아주 좋은 말이다. 다만 그 대상을 인간의 일로 제한해야 한다. 인간 사이에 합리적인 것을 하나님에게까지 확대하는 데서 문제가 발생한다.

4. 이 장관의 말이 좀 무리가 있다 해도 그만한 일로 죽어야 하나?

같은 말이라도 어떤 지위에 있는 사람이 하느냐에 따라 영향력이 다르다. 전시하에서 막강한 힘을 가진 장관이 아무런 힘도 없는 선지자를 이런 식으로 조롱하는 것은 죄가 크다.

5. 성문 어귀에 있던 문둥이 네 사람이 하는 말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 항복하자. 저희가 우리를 살려두면 살려나와 우리를 죽이면 죽을 따름이라'는 말은 에스더의 '죽으면 죽으리라'와 같은가?

좀 다르다. 에스더는 자기 혼자 살려면 살 수 있는 일이었지만 문둥이들에게는 다른 방법이 전혀 없었다.

(6~17) 문둥이들이 사마리아성에 기쁜 소식을 전하게 되는 경위와 과거 우리 신앙의 선조들과 오늘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진 과정을 비교해 보면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 아래 질문을 따라가며 생각해 보자.

6. 어떤 동기에 의해서 문둥이들이 이 놀라운 소식의 전달자가 되었는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찾아 갔다가 너무나 엄청난 것을 발견했다(4-8) 이들의 행동이 위대한 결단은 아니다.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어서 마지못해 취한 행동이다. 그런데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발생한 것이다.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어서 교회에 발을 디딘 사람이 나중에 이런 횡재를 하게 된다. 별로 기대한 것 없이 교회에 나왔던 사람도 마찬가지다. 우리 모두가 그러하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것도 알고 나면 기절할 만큼이나 놀라운 일이다. 하나님을 향한 작은 결단은 엄청난 결과를 초래한다. 결단한다고 무조건 위대한 일이 생기는 것이 아니다. 대상을 잘못 선택해서 결단을 하면 낭패를 면치 못한다. 문둥이들의 횡재는 성도들이 누리고 있으며 앞으로 누릴 횡재를 가리킨다.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행복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다.

7. 이 복된 소식을 전하기 전에 어떤 일이 먼저 있었는가?

자신들이 먼저 풍성하게 누렸다(8) 발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전 재산을 팔아 발을 사뭇이(마 13:45, 46) 문둥이들은 소중한 것을 감추었다. 복음이 얼마나 소중한 것임을 알지 못한다면 제대로 복음을 들은 사람이 아니다. 자신의 문제를 해결했으면 다른 사람도 생각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전에 복음이 소중한 것을 알고 누리는 것도 꼭 필요하다.

8. 문둥이들은 평소에 받은 냉대를 생각하면 어떻게 해야 옳은가?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지 않는 것은 선하지 않다(9) 전하지 않으면 별이 있을 것이다. 문둥이들이 평소에 받은 냉대를 생각하면 애를 좀 더 먹어? 애를 먹일 때가 따로 있지 지금은 장난질 때가 아니다. 아무리 미워도 미워할 게 따로 있지 이 소식은 전해야 한다. 아무리 괴롭고 힘이 들어도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미치리라는 바울이 이런 사람이다(고전 9:16).

9. 복된 소식을 전하자 일단 반응은 어떠한가?

전하는 말을 믿어주지 않았다(12-15)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항상 답답하다. 듣는 사람들은 돌으려고도 않는다. '내 잘 되라고 하는 짓이 아니다'고 아무리 외쳐도 잘 듣지 않는다. 저거 잘 되라고 하는 말인데... 복음을 듣고도 자기 나름대로 머리만 굴리고 있다 '교회가 나를 끌어둘려 무슨 재미를 보려고? 내 재산만 축낼 건데...'

10. 놀라운 광경을 보는 사람은 다 누리는가?

믿지 않는 자는 놀라운 광경을 보고 하겠지만 누리지 못한다(17) 보는 것이 오히려 고통이다 '산아 무너져 우리를 가려다오'(계 6:15-16) 그리스도인들이 행복한 것을 보고도 쉽사리 자신을 던지지 못한다. 그렇게 망설이다가 결국은 영원한 불행에 빠지고 만다. 믿는 자에게는 엄청난 복이다.

11. 이렇게 놀라운 이적이 누구 탓에 일어났는가?

예언한 엘리야의 탓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에서 시작되었다: 엘리야는 그것을 미리 알고 예언했을 뿐이다. 구체적인 방법까지는 몰랐던 것 같다.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모습이 바로 이 엘리야의 모습이다.

12. 이렇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도록 이스라엘 사람들이 공헌한 게 있다면?

아무런 공로도, 노력도 없다: 소식을 듣고 뛰어간 것뿐이다. 뛰어가서 집어온 것을 두고 '내가 열심히 뛰었기

때문이다'라고 자랑해서는 곤란하다. 우리의 구원도 우리가 행한 것은 없다. 다만 그 소식을 듣고 기뻐할 뿐이다. 그냥 뛰어가서 주웠을 뿐이다.

13. 이 장에 기록된 이적을 우리에게 전해진 복음과 비교해 볼 때 순식간에 사라져버린 아람 군대는 무엇에 대한 상징으로 볼까?

우리에게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큰 소리 치던 마귀의 장래 모습이다.

14. 문둥이들은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미사여구를 쓰거나 과장하지 않았다. 단지 ...했을 뿐이다.

자신들이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전했다(행 4:20): 복음을 전하는 것은 복잡한 이론을 전개하는 것보다 단순하게 자신의 복됨을 전하는 것이 더 효력이 있을 때가 많다. 너무 꾸미려고 하지 말고, 논리적이거나 훈계조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15. 사마리아 성에 복음이 누구를 통해서 전해졌는가?

문둥이 네 사람: 버림받은 문둥이들에 의해서 기쁜 소식이 전해졌다. 기독교의 복음은 사회적으로 존경받을 만한 능력과 재력과 권력을 통해서 전해진 것이 아니다. 혹시 그런 식으로 전해진 예가 없지는 않으나 적지 않은 후유증을 남겼다. 복음은 가진 것 없이도 자신을 헌신한 자들에 의해서 제대로 전해졌다.

16. 기쁜 소식이 전해진 사마리아 성의 현실은 어떠했는가?

빨리 소식이 전해지지 않으면 곧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음의 문턱을 넘고 있었다: 복음은 그대로 두면 영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에게 전해졌다. 우리를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뜻에 따른 것이다.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먼저 전해졌다. 낮은 곳을 찾으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다.

17. 10절의 문지기와 11절의 문지기는 어떻게 다른가?

10절의 문지기는 당직자, 11절의 문지기는 그의 동료 부대원들로 보는 것이 좋겠다. 원어상으로 단수, 복수로 구분되어 있는데 대부분의 번역본들은 구별하지 않고 '문지기들'로 번역해버렸다.

18. '말들이 이스라엘 온 무리와 같다?'(13)는 것은 무슨 의도에 하는 말인가?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을 것이니 차라리 나가보고 죽는 게 낫다.

19. 믿을 수 없는 것이 인간의 감각인가? 아람 군대는 두 번이나 자신들의 감각에 속았다. 한 번은 눈이었고 (3:22-23), 이번에는?

귀: 감각은 그럴 수 있다. 감각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감각으로 알 수 있는 사물)과 지혜를 활용해야 하는 부분(학문, 기술, 예술)이 다르듯이, 믿음을 활용해야 하는 부분(영적인 부분)이 따로 있다.

열왕기하 8 장

1. 이 여인에게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다는 증거는 무엇인가?

선지자가 미리 기근을 알려주고 피하라고 한 것(1)

왕에게 호소하러 갔을 때 하필 왕이 엘리사의 이적을 듣고 있었던 점(5) 왕이 놀라워한 그 이적의 장본인이 나탄으로 전토를 쉽게 되찾게 되었다. 만약 이 여인의 행위를 왕이 패썹하게 여겼더라면 어려웠을 것이다.

2. 누구는 기근을 피해서 외국으로 갔다가 망하기도 하고(나오미), 죽을 고생을 하다가 간신히 돌아오기도 하는데(아브람, 이삭, 다윗), 이 경우에는 선지자가 미리 알려주고 피하라고 한다. 왜 이렇게 일관성이 없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애굽으로 보내신 예는 요셉, 야곱, 아기 예수를 들 수 있다. 외국으로 피했던 이들을 서로 비교해서 생각해 보자.

나오미, 아브람, 이삭, 다윗은 살기 위해서 스스로 이방으로 갔고, 이 여인과 요셉, 야곱, 아기 예수는 가려고 하지 않았음에도 위험을 피하도록 하나님께서 보내셨다. 위험의 요소가 사라지면 즉시 돌아왔다. 모양은 같을지라도 동기적인 측면에서 대조적이다.

3. 이 여인(4장의 수벰 여인)이 '기근을 피하여 다른 지역에 가서 거하라'는 말씀에 순종하려면 어떤 어려움이 있었을까?

수벰 여인은 재산이 많은 사람이었다. 버려두고 객지로 가라고? 옛날에는 재산이 거의 전부 토지다. 쉽게 처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7년 동안 그대로 버려두었다. 일이 잘못되면 땅을 되찾을 수 없을지도 모른다.

흉년이 들어도 고생하는 것은 가난한 사람이지만 부유한 사람은 견디기 쉽다. 더구나 남편은 죽은 것 같다. 권속을 이끌고 외국으로 가서 거하는 것이 여기서 기근을 견디는 것보다 더 어려울지 모르는데.

4. 수벰 여인의 집안은 소위 '되는 집안'이고 여호람의 집안은 '안 되는 집안'이다. 되는 집안은 왜 되고, 안 되는 집안은 왜 안 되는가?

되는 집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사람을 알아보고 그를 섬긴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었다. 그래서 범사에 일이 잘 풀린다. 신유은사보다 더 귀한 것이다. 신유은사는 병을 고치는 은사인 반면에 이 여인의 복은 아예 병에 걸리지 않게 하는 은사인 셈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병을 예방하는 은사를 지닌 사람이다.

안 되는 집안: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벤하닷은 본래 그렇다고 치고, 요람이나 여호람, 아하시야도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는 탓이다. 특히 여호람이 그렇다. 그래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겨야 할 사람인데... 그런 상태에서는 애쓰고 노력할수록 일이 더 꼬이기 마련이다.

5. 열왕기하 이스라엘의 역사라면 벤하닷의 죽음에 대한 기록이 들어있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아니라면 무엇이라고 할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관한 기록: 성경을 기록하신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느냐는 시각에서 보면 이 본문의 모든 기록이 의미를 지닌다. 벤하닷의 죽음뿐 아니라 이 여인에 대한 기록도 역사라는 측면에서 보면 별 의미가 없는 것이다.

6. 엘리사의 눈에 보이는 끔찍하고 슬픈 일을 하사엘은 '큰 일'이란(13). 엘리사의 말이 하사엘에게는 슬프게 들리는 것이 아니라 뭉로 들리는 셈인가?

위대한 정복자의 이야기: 이 말을 듣는 엘리사는 참으로 난감하다. 자기 민족에게 엄청난 재앙을 초래할 바로 그 당사자에게 그 재앙을 예언하는데 당사자는 그렇게 위대한 일을 자신이 어떻게 감당하느냐고 말하다니!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할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에게 이런 처참한 모습이 될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7. 벤하닷에게 하사엘은 어떤 사람인가?

가장 신임했으나 배반한 사람: 배신은 가장 가까웠던 사람에게서 일어난다. 배신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가까운 사람을 모조리 의심해? 왕이 되지를 말야? 하나님만 바라보고 정도를 걷는 것 외에 달리 별 수 없다.

8. 아람의 입장에서 보면 엘리사는 무슨 죄를 지은 셈인가?

벤하닷의 입장에서는 암살, 쿠데타 교사죄가 되겠지만 하사엘의 입장에서는 1등 공신이다. 이스라엘이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이스라엘이 보기에는 당장에 별 일이 아닐 수 있으나 나중에 하사엘이 저지르는 끔찍한 상황이 벌어지면 모든 책임을 엘리사에게 돌릴지도 모른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뿐이다.

9. 벤하닷과 관련된 본문을 보면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할까?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 자기 백성을 다스리고 징계하기 위해서 다른 나라까지 동원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토론용 질문) 하사엘이 쿠데타를 일으킬 마음이 전혀 없었는데 선지자의 충동을 받아서 그랬을까? 아니면 하사엘에게 그런 계획이 있음을 알고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일까?

10. '유다 왕 여호사밧이 오히려 위에 있을 때에 그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니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

왕이 죽지 않았음에도 왕위를 물려주었다. 구체적인 이유는 잘 모르겠다. 병에 걸렸거나...

11. 유다왕 여호람이 하나님께 이렇게 버림을 받은 원인은 무엇일까?

장가를 제대로 가지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는 점에서는 여호사밧에게 책임이 있다. 아

합과 가까이 지내면서 아합의 딸을 며느리로 맞아들인 것이 엄청난 화근이 된다. 선한 왕으로 평가받는 여호사밧이 결과적으로 이런 화를 불러들인 것을 보면 좋은 신앙에도 분별력이 따라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좋은 게 좋은 것이 아니라 꿀을 것은 분명하게 꿀을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그가 선한 왕이었기에 19절 말 씀은 살아있다.

12. 유다 왕 여호람도 악을 행하였으나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억하셔서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시지 않는단다. 그러니까 악한 짓을 마구 하는 거 아냐?

멸망당하지만 않으면 다냐? 이방 나라의 침입을 받아서 망할 뻔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고, 적국에 포로로 잡혀간 것도 한 두 번이 아닌데, 멸망당하지만 않으면 된다고? 반대로 예쁜 짓만 하면 얼마나 복을 받을 텐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든 죄를 다 용서받았으니 무슨 짓을 해도 천국간다'고 하는 신앙 좋은(?) 분들이 더러 있는 모양이다. 복 받을 길을 제쳐두고 가시밭길을 헤치면서 고생하는 짓이다.

13. '나는 기도를 잘 않지만 우리 할머니 덕분에 나는 잘 살 거야' 열심히 기도하는 할머니가 있는 녀석이 하는 소리다. 언제까지 할머니 덕에 살 거냐고 핀잔을 주었다. 여호람과 닮은 점은 무엇인가?

조상 덕에 그럭저럭 명맥을 이어가는 점: 결코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다. 신앙은 하나님 앞에 홀로 서야 한다. 누구 덕분이나 누구 탓을 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

14. 여호람이 병력을 총동원하여 에돔을 치러갔다가 어떻게 되었다는 말인가?

참패(21): 포위되었다가 발중에 기습해서 갇힌 채 빠져나왔다. 에돔의 반역이 여호람이 하나님을 떠날 때 이미 예정된 것이라면 그것을 막기 위한 출정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21절은 번역서에 따라 내용이 약간 다르다. 개역성경이 원어에 가장 충실한 셈인데 많은 역본들이 '왕과 병거의 장관들이 자기들을 에워싼 에돔 사람을 치니 이에 백성들이...'로 해석하고 있다. 문맥을 따른다면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15. 다음 구절은 유다 왕 아하시야의 외가와 처가에 대한 언급이다. 어떤 느낌을 주는가?

'유다 왕 아하시야의 모친의 이름은 아달랴라 이스라엘 왕 오므리의 손녀더라(=아합의 딸)! 저는 아합 집의 사위가 되었음이라.'

곧 망하겠구나!: 아무리 왕족도 좋지만 문제는 하나님을 버린 악한 아합의 집안과 혼인을 맺고 그들의 하는 짓을 따라 하는 것(27)은 망하려고 악을 쓰는 것이다.

16.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았다. '할례 받지 못한 인간'이란 끔찍한 욕이기도 하다. 그런 점에서 여호람은 여기서(8장) 어떤 대접을 받고 있는 셈인가?

하나님을 알지 못한 이방의 왕(벤하닷)과 동일한 취급을 받고 있다: 버린 자식이라는 말이다.

17. 왕들에 대한 기록과 한 여인의 이야기를 비교하면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고 싶은가?

시대가 아무리 악하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 해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스라엘을 향하여 순종의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고 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왕들이 설치한 판에 아름다운 순종의 신앙을 가진 여인이 잘 되는 것은 그들에게는 심판에 대한 예고이다. 왕들의 이야기보다 여인의 기록이 더 소중하다. 이것은 단순한 이스라엘의 역사 이야기가 아니다.

열왕기하 9 장

1. 선지자가 생도를 길르앗 라못으로 보냈는데 길르앗 라못이 이 때는 어떤 곳인가?

전쟁터: 요람이 하사엘과 싸우고 있는 곳이다(8:28). 아하시야 왕이 전장에서 잠시 자리를 비우고 했지만 전쟁 중이다(14-15). 사마리아에서 약 65km로 꽤 먼 거리이다.

2. 지금 길르앗 라못에서 예후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인가?

왕이 자리를 비운 전선의 총사령관: 이런 경우라면 전권을 위임받은 상태이다. 이 사람이 마음을 먹으면 쿠데타는 일도 아니다. 위화도 회군의 이성계나 갈리아 지방의 원정군 시이저처럼. 예후의 아버지는 여호사밧이다. 유다 왕 여호사밧과 동명이인이다.

3. 왜 골방에서 기름을 붓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은 선지자의 몫이고 그 말을 듣고 결단하고 행동에 옮기는 것은 예후의 몫이다. 결정적인 일은 비밀리에 적극적으로 처리하지 않으면 실패할 가능성이 많은 탓이다. 만약 공개적인 장소에서 기름을 붓고 하나님의 뜻을 전한다면 그 일을 감당해야 할 예후의 의지와 상관없이 일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에는 이런 개인적인 결단이 중요하다(갈 1:16). 하나님의 명령은 그렇게 비밀스럽게 전달된 적이 많다. 사무엘이 다윗에게(삼하 7:8) 하사엘에게, 아히야 선지자가 여로보암에게(왕상 11:23-43).

4.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당당하지 못한가? 적을 쓰아 죽이고도 당당했던 안중근도 있는데... 왜 지체하지 말고 도망치라고 하는가? 대답의 근거가 될 만한 것이 있다면?

11절의 '미친 자': 적대감을 가진 자가 적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그런 이유보다는 하나님의 말씀만 정확하게 전하고 사라지라는 의미 아닐까? 왕하 4:29에서 '엘리사가 개하시에게 이르되 네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사람을 만나거든 인사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인사할지라도 대답하지 말고 내 지팡이를 그 아이 얼굴에 놓으라'는 것도 다른 어떤 인간적인 논리도 없이 말씀만 전하고 바로 사라지라는 의미라고 본다면 이 경우도 마찬가지 아닐까? 교회를 위해서 크게 헌신했다고 해서 발언권이 강해지거나 지분을 요구할 수 없다. 헌신하고 깨끗하게 사라져야 한다.

5. 예후는 북 이스라엘의 네 번째 왕조를 이루게 된다. 이전 세 왕조의 이름은 무엇인가?

여로보암의 집, 바아사의 집(왕상 15:29), 아합의 집(오므리 왕조): 현 왕조는 아합 왕이 속한 오므리 왕조이지만 이 집이 곧 그 이전의 두 집과 같이 되고 말 것이라. 두 집은 어떻게 되었는데? 여로보암의 집은 바아사에 의해서 멸망당했고 바아사의 집은 시므리에 의해서 멸족 당했지만 시므리도 7일 만에 오므리에게 당하고 말았다.

6. 아합의 집을 치는 자는 누구인가?

내가(7:9): 그 일을 '내가' 하라는 것이다. 시행은 예후가 하지만(7) 실제로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예후를 왕으로 세우시는 이는 하나님이다. 그 일을 맡은 사람은 엘리사이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 항상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하나님께서 하시겠지? 옳다! 그렇지만 내가 나서야 한다! 나서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7. 어린 선지자의 말을 예후가 쉽게 끝이들은 이유는 무엇일까?

나름대로 자기 생각과 통하는 점도 있겠지만 아합의 시절에 선지자가 말했던 것을 기억하는 탓이라고 본다(25-26, 36).

8. 선지자가 왜 왔느냐고 물었을 때 예후가 대답한 '그대들이 알리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 그 대답을 들은 사람들이 '당치 않은 말이라'고 하는 것으로 짐작해 보자.

그 정도야 말 안 해도 짐작으로 알 수 있는 것 아니냐? 선지자가 여기까지 왜 왔겠느냐?: 선지자의 말을 기정사실로 삼으려는 의도인 셈이다.

9. 좀 전에 선지자의 생도를 보고 미친 자라고 하던 사람은 어디 가고 갑자기 모두가 예후에게 이렇게 예를 표하는가?

대세가 기울어졌다고 생각하면 순식간에 충성 경쟁이 시작되는 법이다. 부하 장수들에게 그런 마음이 어느 정도는 있었을 것이기에 쉽게 결정이 났다.

10. 예후가 반역을 일으킨 때는 아하시야 왕이 전선을 오래토록 비운 때이다. 왕이 전선을 오랜동안 비우면 이런 현상이 생기기 마련이다. 왕이 후송된 셈인데 병이 나아도 전선으로 돌아가고 지체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 있는가?

병거를 탈 수 있을 만큼 회복되어 있었다(21).

11. 예후의 통치 방식은 강압적인 명령형이 아니라 은근하게 협조를 구하면서 설득하는 방식이다. 그 예를 찾아보자.

15, 22, 25, 32, 36: 너희 뜻에 합당하거든(15, 10:6). 하나님의 말씀을 적절하게 인용함(22, 25, 36).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드리는 모양새를 갖추(32). 말을 모는 모양새나 급히 이스라엘로 달려가는 모습은 과격해 보임에도 상대방의 의사를 존중하면서 사람을 자기편으로 끌어드리는 능력이 있었다.

12. '유다 왕 아하시야는 요람을 보러 내려왔더라'는 이 표현이 여기서 어떤 느낌을 주는지 생각해 보고 충고를 한 마디 해준다면?

쏟아없이 왜 거기서 일췡거리나?: 인간적으로 보면 외삼촌이지만 상황은 하나님의 징계가 쏟아지는 중이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에 인간적인 정리 때문에 근처에서 얼쩡거리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

13. '평안이 네게 상관이 있느냐?' 이 말을 좀 쉽게 설명해 보자.

평안이냐고 물은 것은 '좋은 소식을 가지고 오느냐?'는 말이다. 예후의 대답은 '좋은 소식이면 어쩔 것이며 나쁜 소식인들 어쩔 것이냐? 단 소리 하지 말고 따라 오너라'는 말이다.

14. 예후의 병거 모는 승씨를 요즈음 말로 표현하면?

폭주족, 총알택시 기사, 스피드광: 예후가 하는 말은 거칠지 않아 보이는데 행동은 몹시 거칠고 과격해 보인다.

15. 기마병을 돌이나 보내서 '평안이냐'고 물었지만 함홍차사다. 그럼에도 자신이 직접 병거를 타고 나가서 '평안이냐'고 물은 것은 반역을 전혀 눈치 채지 못했다는 증거이다. 자신의 판단력 미비도 있겠지만 다른 이유가 있다면?

비밀이 새지 않도록 길르앗 라못을 단속하고 총알같이 달려 왔기 때문이다. 반면에 요람은 전쟁에 별로 유능한 인물이 아니었던 모양이다.

예후가 반역을 일으키리라고는 전혀 상상도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만큼 믿었던 사람이었다.

하나님 말씀의 성취: 겔으로 드러나지 않는 배후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요람이 왜 하필이면 나봇의 토지에서 예후를 만나서 죽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로 작정하면 일이 이렇게 된다.

16. 이세벨이 누구와 음행을 저질렀기에 예후가 이렇게 말하는가?

이세벨의 음행은 그가 저지른 우상숭배를 뜻한다. 성경에서 음행은 곧 우상숭배이다. 우상을 섬기는 방법이 음란이고, 필연적으로 음행이 따르는 것이었다.

17. 아하시야의 죽음과 요람의 죽음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

요람은 아비와 어미, 자신의 죄로 죽은 것이고 아하시야는 쓸데없이 얼쩡거리다가 죽은 셈이다. 아하시야는 그래도 아비 덕에 장사는 제대로 치를 수 있었다(대하 22:9 참고).

18. 이세벨은 곧 죽을 판인데 무슨 화장을 하나? 급게 죽으려고?

단순한 화장이 아니라 황태후로서 위엄을 보이려는 치장이다. 마지막 발악인 셈이다. 앙리 앙트와네티란 프랑스 왕비도 당당하게 길로틴에 올랐다면가?

19. 예후를 보고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왕상 16:8-15)?

너도 곧 행한 대로 보응을 받을 것이다는 저주: 바아사 왕가를 무너뜨리고 일주일 동안 왕위에 올랐던 자에 빚댄 것이다. 자신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다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오직 예후의 악행만 보고 있는 것이다.

20. 이세벨의 시체를 보고 '장사하라 저는 왕의 딸이니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

이세벨의 시돈의 왕녀이기 때문이다. 굳이 시돈과 대결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21. 이세벨의 시체가 이스라엘 토지에 있어도 사람들은 그것이 이세벨의 시체인 것을 모를 것이다. 왜?

개들이 뜯어먹고 남은 조각이 거름처럼 흩어졌기 때문이다: 성경에서는 개를 한 번도 좋은 의미로 사용한 적이 없다. 시체를 개가 먹는다는 것은 극히 끔찍한 일이다. 끔찍한 죽음에 대한 예고(왕상 21:23)가 있었다는 것은 회개의 기회가 주어진 셈이다. 결국 돌이키지 않으므로 그대로 실현되었다.

22. 9-10장은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것(왕상 19:16)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관심을 두어야 한다. 다음 세 사람이 이 장에서 어떤 역할을 감당하였는가?

엘리사: 예후가 반역을 도모하도록 지시함

하사엘: 이스라엘을 괴롭힘으로 그로 인해 예후가 등장하게 됨, 추후 예후의 심판에 동원됨(10:32-33)

예후: 직접 일을 주도함

예후의 반역은 하사엘과 관계가 깊다. 요람 왕이 하사엘과 싸우다가 제대로 싸우지 못하는 판에 왕의 자리를 예후에게 넘겨주었으니 말이다. 하나님 편에서 보면 예후나 하사엘이나 엘리사는 동일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이다.

23. 예후에게 기름을 부으라는 명령(왕상 19:16)이 처음 주어진 때와 비교하면 얼마나 지났을까?

요람의 통치기간만 해도 14(13)년이다. 왕상 22:1에 3년, 최소한 17년

24. 이스라엘의 연대기를 연구하는 학자들에게 요람과 아하시야의 죽음은 대단히 반갑고 기쁜 일이다. 무엇 때문일까?

같은 해에 죽었기 때문이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에 같은 해에 등극한 왕이 있고 같은 해에 죽은 왕이 있다면 이 왕들 사이에 있는 통치기간을 다 합치면 같아야 한다.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이 같은 해에 왕이 되었고 요람과 아하시야가 같은 해에 죽었다. 연대기 연구에서는 그야말로 보석 같은 사건이다. 각 나라별로 이 왕들 사이의 통치기간을 합치면 다르게 나온다. 이런 차이를 1) 섭정기간, 2) 연대기 기록 방식의 차이와 변경, 3) 즉위 원년 포함 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밝혀냈다(히브리 왕들의 연대기/틸레 저/한정권 역/기독교문서선교회/1990).

열왕기하 10 장

1. 반역을 일으켜 정권이 바뀌는데도 나라가 평온한 것은 예후가 주도면밀하게 일을 추진한 탓이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자.

사마리아 방백들의 자발적인 협조를 얻고(1-5) 백성들의 마음을 얻어가며(9)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확신을 주며(10),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의 손을 잡았다

2. 아합은 이세벨에게 휘둘러서 악한 왕이 된 것으로 아는데 반드시 그런 것만도 아닌 모양이다. 무슨 근거로?

아들이 70이라? 부인이 여럿 있었다는 말이다: 아합이 죽고 요람이 통치한지 14년이므로 손자가 많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히브리어에서는 손자를 가리키는 말이나 아들을 가리키는 말이 동일하게 '벤'이다.

3. 왕을 세우라는 예후의 편지가 본심이 아닌 것은 삼척동자라도 알 수 있는 일이다. '항복하라'고 하는 것과 어떻게 다를까?

항복하라는 것보다 더 무서운 일이다. 한편 볼어도 좋다는 자신감의 발로이다: 선지자의 예언(10, 17)과 최전선의 총책임을 맡고 있었으니 전투력도 확실하게 우위에 있었을 것이다.

4. 이런 상황에서 죽지 않으려면 정보가 빨라야 한다. 요람이 14년을 통치했으니 아합의 아들들이 다 어린 것은 아는데 이렇게 물살을 당하나?

반역의 소식을 먼저 안 자들이 왕자들을 이미 정중하고도 안전하게 모셔두었음에 틀림없다. 말이 그렇지 이미 감금해 두었다는 말이다. 6절 하반부 '함께 있는 중애가 그 말이다'.

5. 예후가 백성들을 향하여 의롭다고 말하는 근거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것을 다 이루는 일에 협조하였으므로(10절)

6. 바알의 제사장을 숙임수를 써서 전멸시키려면 그런 심사를 눈치 채이면 안 된다. 더구나 종교적인 숙청작업은 18절부터 시작이고 그 이전의 일은 전부 정치적인 일이다. 따라서 11절의 제사장은 문맥상으로도 바알의 제사장이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그럼 어떻게 된 걸까?

번역상의 문제다. 제사장이라고 번역된 단어의 원어 '코하님(단수는 코헨)'은 고위관리라는 뜻이기도 하다. 삼하 8:18, 왕상 4:5에서는 같은 단어를 '대신'으로 번역하였다. 여기서도 '대신들'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옳겠다.

7. 대하 21:17, 22:1에 따르면 아하시야의 형제들은 이미 다 죽었는데 왜 형제들일까? 문자대로 형제들이라기 보다는 가까운 왕족들과 수행하는 무리들이라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이들이 이렇게 떼를 지어 형제 나라에 문안을 간다는 것도 이상하고 예후가 이들을 사로잡았다가 죽인 것도 이상하다. 말은 문안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다른 목적이 있었음을 예후가 알아차린 것 아닐까? 각설하고 아하시야의 형제들에게 이런 끔찍한 일이 왜 생겼는가?

악인과 교제한 결과다.

8. 아합의 아들 70명, 아하시야의 형제들 42명에 대한 처형은 잔인한 살육 아닌가?

미루어지고 있던 하나님의 심판이 시행되던 끔찍할 것임을 예고하는 것이다. 엘리야에 의해 예고되었던 일이다(왕상 21:20-24). 그러면 빨리 돌아서야지! 아들이 많은 것이 반드시 복은 아니네! 복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면 바로 독이 될 수도 있다.

9. 예후가 하필이면 '목자가 양털 꺾는 집'에서 아하시야의 형제들을 만났는가?

어떤 성경에는 '목자가 양털 꺾는 집'이란 말이 없고 벨에케드(하로임에서 만났다고 번역하였다. 문제는 이 말을 고유명사로 볼 것이냐 아니냐라는 것이다. 고유명사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10. 후일에 레갑 족속은 엄격한 금욕주의자며 여호와 신앙에 매우 열심이어서 칭찬을 들었다(렘 35장). 예후가 굳이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의 손을 잡는 이유는?

정치인이 교회의 지원을 받으려는 것과 동일함: 순수하게 정치적인 이유로 받으려는 수도 있지만 실재가 그러하기 때문에 도움을 받는 수도 있다. 예후는 후자 같다.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16)는 말이 현재로는 진심인 것 같다.

11. 바알을 더 열심히 섬기겠노라고 하여 일거에 숙청해버린 것은 비열한 방법 아닌가(19절의 궤계)? 1)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2) 성경의 어디에 비슷한 예가 또 있는가? 3) 있다면 우리도 그런 방법을 써야 하나?

1) 정직한 일을 하였고 잘하였다고 말함(30)

2) 출애굽 직전의 산파, 여리고에서 정탐꾼을 살려준 라합

3) 못 생기고 미운 부인에게 '세상에 당신같이 예쁜 사람이 어디 있냐?'고 하는 것, 천하의 말썽꾸러기라서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아들딸에게 '그래도 나는 널 믿는다'고 말하는 것, 암 환자에게 '별 일 아니라고 말해야 할 때 그렇게 말하는 것: 진정으로 하나님을 위하고 이웃을 위하는 길이라면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 바르고 정확한 말이 결정적인 비수가 되어 사람을 망치게 된다면 그것은 결코 바르고 정확한 말이 아니다.

12. 바알의 당에서 여호와와 종을 다 나가게 하면 눈치 채이지 않을까?

말만 잘 하면 된다: 다른 신을 섬기는 자들이 있으면 부정을 타게 된다면서 내보내라든가. 마치 무당이 굿을 하거나 점쟁이가 점을 치면서 예수 믿는 사람은 좀 나가달라는 것과 마찬가지다.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

에게 이런 부정한(?) 임무를 맡긴 것처럼 구박하면서 말이다.

13. 바알의 당을 번소로 만들어버리면 어떻게 되나?

바알에게 똥오줌을 퍼붓는 격이다. 근동 지역에서는 최대의 모욕적인 행위이었던다.

14. 열심으로 바알을 멸한 예후가 왜 금송아지는 그냥 두었을까?

정치적인 욕심 때문: 여로보암이 정치적인 이유로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것과 동일하다. 이성계가 권력을 잡기까지는 기존의 전통과 종교를 부정하지만 결국은 정도전(성리학자)과 손잡고 권력을 키우듯이 금송아지가 필요했다(역사 드라마를 즐기는 홍기곤 집사의 설명). 처음 열심이 사라지는 것은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려는 욕심에서 비롯되는 것 아닐까? 왕의 권한이 확고해지기 전, 후의 차이, 부자가 되기 전과 후의 차이, 확장시킬 때와 올 때의 차이다.

15. 잘못이 좀 있다 해도 바알 신앙을 뿌리채 뽑아버린 예후의 왕위가 겨우 4대밖에 가지 않는 것은 하나님도 좀 미안하지 않을까?

미안하기는? 그래도 예후 왕조가 북 이스라엘의 왕조 중에서는 가장 길었다!

16. 예후의 열심이 부분적인 복을 초래하기도 하였지만 금송아지를 제거하지 않은 탓에 어떤 비극을 당하였는가?

요단 동편 땅을 빼앗김(32-33) 두 지파 반이 차지하고 있던 비옥한 땅이었다. 헤스본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에게 빼앗은 기름진 목초지였다. 찢어졌다는 것은 신체의 일부가 떨어져나간 형국이다.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을 잃어버렸다는 의미이다. 이스라엘의 2지파 반을 잃은 것이다.

17. 엘리사, 예후, 하사엘은 모두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였다. 1) 이런 사람들이 꼭 필요했는가? 2) 이렇게 여러 사람이 꼭 필요한가?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그것이 사람을 만드신 이유와 통하는 것이다.

엘리사는 종교적인 영역, 예후는 정치적인 영역, 하사엘은 이방인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역할을 맡았다.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고 있다는 상징이다. 하나님의 도구로 쓰였다는 것이 곧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열왕기하 11 장

1. 아하시야의 모친 아달라는 누구의 딸인가?

이세벨(아합)

2. 왕의 씨는 아달라와 어떤 관계인가?

자기 손자

3. 요람(여호람)의 딸 여호세바는 아달라와 어떤 관계이며 요아스와는 어떤 관계?

요람과 아달라는 부부지간이므로 요람의 딸 여호세바는 아달라의 딸이다(친딸은 아니라고 하나 확인 불가).
요아스에게는 고모이다.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이기도 하다(대하 22:11).

4. 아달라가 아들의 죽음을 누워서 보았을까?

그럴 리가 없다. 2절의 '일어나'라는 말은 누웠다가 일어난다는 뜻이 아니다. 어떤 행동을 개시한다는 뜻이다
(창 13:17, 27:43, 35:1, 민 10:35, 신 2:13, 그 외에도 부지기수). 눅 1:39의 이 표현을 근거로 마리아가 천사와 성
관계를 맺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서 하는 소리다.

5. 2절의 한 단어를 유다왕국의 입장에 맞게 바꾼다면?

도적 → 구출: 아달라의 입장에서 보면 도적이지만 유다의 정통성 차원에서 보면 구출이다.

6.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난 원인은 무엇인가?

여호사밧의 잘못된 혼인 정책 탓이다. 선한 왕이라는 평가와 달리 후세에 끔찍한 결과를 초래하였다. 사람이
착하다는 말과 신앙이 좋다는 말이 일을 잘 한다는 뜻은 아니다.

7.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와중에서도 요아스가 살아남은 원인은 무엇일까?

겉으로는 여호세바의 수훈이다. 내면을 보면 다윗의 위를 보존하리라는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다. 메시아의
길을 끊으려는 끊임없는 도전 중의 하나다(노아, 사라, 이삭, 헤롯, 용).

8. 가리 사람은 그렛 사람과 동일한 민족이다(대상 18:17, 삼하 20:23). 왕권회복운동을 시도하면서 굳이 외국인
인 이들을 언급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들은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길 때도 변함없이 호위하고 다녔고 아도니야의 반역 때에도 솔로몬을 보호했던
(왕상 1:37-38) 충직한 사람들이었다. 비록 이방인이었을망정 충성심이 강하여 왕의 친위대로 활약하고 있었던
모양인데 이들이 정의감으로 여호야다에 협력한 모양이다.

9. 왕의 호위를 맡은 백부장들은 왕의 심복이 틀림없는데 어떻게 쉽게 반역에 동조하였을까? 그들이 하나님
을 잘 섬겼을 거라고 생각하기는 어려운데(대하 23장 참조)?

아마도 제사장 여호야다가 분명한 명분(아달라는 왕이 될 수 없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아니다, 정통성
을 지닌 왕자가 살아 있다)을 가지고 이들을 잘 설득하였을 것이다. 명분이란 것은 참으로 힘이 있다. 자의든
타의든 반역에 동참한 자들은 명분만 주어지면 언제든 풀아설 가능성은 있는 법이다. 또 이들이 백성의 대
표가 될 만한 사람들을 설득하였다(대하 23:2). 아달라가 저지른 악행도 이들이 행동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주
었을 것이다.

10. 작전의 주인공 여호야다는 제사장인데 어떻게 안식일에 거사를 일으켰나? 안식일을 거룩히 여기라는 계
명 위반 아닌가? 김일성이를 닮았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백성들이 자연스럽게 성전으로 모일 수 있는 날이었으니 아마도 의심을 받지 않고
거사를 일으키기에 가장 좋은 날이었을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이런 시도는 문자적으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보다 더 의로운 행위로 평가받은 셈이다.

11. 다윗 왕의 창과 방패가 얼마나 많았기에 백부장들에게 다 나누어주었을까? 또 그것이 왜 여기에 보관되
어 있는가? (참고 삼하 8:7)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한 전리품으로 하나님께 바친 것이다. 금방패로, 실전용보다는 선수 사기용이다. 다윗
왕조의 정통성을 회복하기 위한 거사로 다윗의 승리를 되새기는 것은 사기전작에 큰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12. 요아스를 왕으로 세울 때 율법 책을 주었다(12)고 하는데 개역성경에는 '책'이란 글자가 작은 글씨로 써져
있다. 원문에는 없는 글자란 뜻이다. 원문의 의미는 '증거'(출 25:16에는 증거판으로 번역됨)라는 뜻이다. 아마
도 십계명 돌판이었을 것이란 추정이다. 제사장이 특별히 십계명 돌판을 가져와서 왕에게 준 역사적 배경은
무엇일까?

여호사밧 이후 여호람, 아달라를 거치는 동안 바알이 득세한 것에 대한 반작용이다. 우상을 멀리하고 하나님
의 원리를 따라 여호와 신앙을 회복해야 한다는 뜻이었을 것이다.

13. 백부장들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동조하고 장관들과 나팔수들과 온 국민들이 열렬히 환영하는 것은 민심이
그러했다는 것이다. 이런 민심을 억누른 채 아달라가 왕의 행세를 하고 있었다. 이런 민심을 표출시키고 정
국에 반영한 여호야다의 역할에 대해서 평가한다면?

아무리 민심이 그러할지라도 누군가 앞장서서 이끌어 가야 할 사람이 필요하다. 결단력과 지도력을 갖춘 한
사람이 전체 민심을 이끌어간다. 이런 한 사람이 대단히 중요하다.

14. 일반적이라면 '아달라를 체포하라'고 해야 할 텐데 왜 '반열 밖으로 몰아내라'고만 하는가?

더러운 피를 성전에서 흘리고 싶지 않은 탓 아닐까? 굳이 체포해서 심문을 할 필요도 느끼지 않는 것 아닐

파? 어차피 백성들에 손에 죽을 텐데... 참 이상한 일이다.

15. 아달라의 일생을 간략하게 요약해 보자.

권력을 잡기 위해서 손자마저 죽이기를 마지 않았지만 허물어질 때는 스스로 무너져 버린다. 하필이면 말 다니는 길에서 죽임을 당하였을까? 왕이나 사람들이 통행하는 길은 호위병들이 지키고 있으니 마구간으로 가는 길로 도망간 모양이다.

16. 6년간 절대 권력을 휘두르고 죽을 때 이렇게 죽는 것을 계산하면 손해일까, 이익일까?

죽을 때 죽더라도 이렇게 살아보고 싶다? 내세가 없는 사람들은 한번쯤 그렇게 살아보고 싶은 충동을 느끼기도 할 것이다. 영원한 형벌이 있음을 안다면 꿈도 꾸지 말 일이다.

17. 앞 장에서 예후가 바알의 선지자를 다 죽이고 바알의 당을 다 부숴버렸는데 웬 바알의 당과 선지자가 또 있나?

10장은 북쪽 이스라엘의 이야기고, 11장은 남쪽 유다의 이야기다. 이렇게 해서 이세벨이 주도해서 남, 북 양쪽 왕조에 걸쳐서 일어났던 바알 숭배는 막을 내린다.

18. 예후를 통한 이스라엘의 개혁과 여호야다를 통한 유다의 개혁을 비교하면 어떤 차이점과 공통점이 있을까?

차이점: 과격한 혁명과 온건한 혁명, 주도적으로 선도한 사람이 선지자인 것과 제사장인 것, 왕조가 변한 것과 변하지 않은 것

공통점: 하나님의 섭리가 개재된 점, 아합의 집안을 멸절시키는 것.

열왕기하 12 장

1. 예후의 7년에 요아스가 (왕)위에 올랐다면 예후는 몇 년간 통치했다는 말인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질문이다. 북 이스라엘의 예후 7년에 남 유다의 요아스가 즉위했다는 말이다. 예후는 28년을 사마리아에서 다스렸다(왕하 10:36).

2. 요아스의 치적을 설명하는 말이 어딘가 불안하다. 산당을 제하지 않았다는 말 외에 불안한 느낌을 주는 말은 무엇인가?

제사장 여호야다의 교훈을 받을 동안에(2) 여호야다가 사라진 후에는 팔라졌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 같다. 남의 신앙에 기대어 신앙생활 하던 사람이 혼자 남게 되자 신앙을 버리는 경우와 같다. 신앙에서도 독립, 자립할 수 있어야 한다. 어떤 경우여라도 흔들리지 않는, 변함없는 신앙이어야 한다. 가르치는 사람은 자신이 사라졌을 때를 예상하고 가르쳐야 한다.

3.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면서 산당을 제하지 않다니?

원래 산당은 가나안인들이 우상을 섬기던 곳이다. 사무엘과 솔로몬의 시대에는 산당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 산당에서 바알을 밀어내고 여호와를 섬긴 셈인데 예후가 금송아지를 만들고부터 다시 산당이 우상 숭배의 장소가 되었다. 그러다 보니 산당이 이교적인 제사를 지내는 곳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섬기기도 했던 모양이다. 말하자면 혼합종교의 양상을 띠게 된 모양이다. 그러니까 솔로몬이나 사무엘 시대의 산당과 열왕의 시대 산당은 의미가 다르다. 요시아 시대는 산당을 제거해서 백성들이 엉뚱한 짓을 않도록 하는 것이 옳았다. 제사장은 왜 산당을 그냥 두었나?

제사, 분향?

4. 제사장 여호야다는 다윗의 후손이 끊어질 위기에서 이를 막아낸 신앙의 영웅이다. 그런데 이렇게 위대한 신앙의 인물에게 무슨 부족함이 있는가?

장군도 아닌 제사장이 혁명을 일으켰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일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자신이 사라진 후에도 자신의 가르침대로 왕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도록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다는 점과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바르게 섬기도록 하지 못했다는 점은 아쉽다. 과감하고 용감한 제사장이었지만 이런 약점이 있었다. 우리 인간은 다 그렇다. 아무리 위대한 능력을 지녔다 해도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아야 하는 존재다.

5. 본문이 언급하는 당시의 헌금은 몇 종류인가?

3종류(4) + 2종류(16): '여호와와 전에 거룩하게 하여 드리는 은'은 바로 다음 헌금 세 종류를 통칭하는 표현이다. 구체적인 구분은 '사람의 통용하는 은'(각 사람이 넘어갈 때 드는 돈, 즉 20세 이상으로 계수 받은 자로부터 걷는 일반 헌금), '각 사람의 몸값으로 드리는 은'(제사장의 평가에 의하여 부과된 헌금), '자원하여 여호와와 전에 드리는 모든 은'(자진해서 드리는 헌금)으로 나눌 수 있다. 16절의 '속근제 은'과 '속죄제의 은'도 당연히 헌금이다. 용도를 제사장의 생활비로 사용했을 뿐.

6. 제사장들이 아는 사람들에게서 세를 받아(5)?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을 이렇게 받았을 리가 없다! 당시에 사람들이 어떻게 헌금을 했을지 상상해 보자.

어떤 한글 번역은 이것을 '회계 담당자'라고 했는데 8절과 상충되는 것 같다. 제사장들이 자신들이 거주하는 곳에서 직접 헌금을 받아왔다는 표현이다. 헌금제가 최초로 등장한다. 대제사장이 실제로 등장하는 것도 여기서 처음이다. 그 이전에는 법에 따른 직제만 있었다.

7. 제사장들이 알아서 성전을 수리하도록 시켰지만 잘 시행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8~16을 근거로)?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은을 받아서 다른 용도로 사용했던 것 같다: 제사장들이 맡았던 일, 곧 세를 받는 일과 수리하는 일도 다른 사람들에게 맡기기로 했다. 성전 제사가 무시되고 바알이 독세하던 시절에 제사장들의 형편이 무척 어려웠을 것이다. 그러니 세를 받아서 엉뚱한 곳(생활비, 성전 기물 제작)에 사용해 버린 것 아닐까?

8. 성전 수리 작업이 지지부진하자, 요아스가 내놓은 새 방안은 무엇인가?

이 일에 제사장들을 빼고, 헌금제도를 개선함: 여호와와 전에 맡은 자를 임명하고(11), 제사장에게 드리던 은(세)을 헌금제에 직접 넣도록 함(9).

9. 성전세를 내는 방식과 사용 방법만 바꾸어도 일이 잘 진척되었다는 것은 무슨 문제가 있었다는 말인가?

제사장들이 성전 보수에 사명감이나 책임감이 없었다.

10. 누가 회계를 담당하는가?

왕의 서기와 대제사장(10)이 계수하고 담당자들에게 넘겼다. 왕의 서기는 대제사장을 못 믿어서? 그럴 리는 없겠지만 현대에도 교회에서 헌금 사고가 종종 난단다. 못 믿어서라기보다는 사람에게 이런 약점이 있음을 안다면 제도 자체를 이런 실수를 예방하는 방법으로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11. 헌금을 처리하는 과정은 '제가 차면, 왕의 서기와 대제사장이 그 은을 계수하여, 봉하고, 일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었다'(10-11). 그런데 원어상으로는 '봉하고 계수하여'이다. 헌금 계산 방식이 현재와 달랐다는 점을 감안해서 왜 이렇게 표현했는지 생각해 보자.

주조된 은이 아니라서 무게를 달아 거래를 했다고 한다. 무게를 달기 위해서 자루에 넣은 것을 '봉하고'로 번역하였다. 작은 실수로 보인다. (NKJV, the high priest came up and put it in bags, and counted the money.)

12. 13-14절은 그 전에 성전 수리 작업이 제대로 되지 않은 원인을 간접으로 알려주는 셈이다. 요즈음 말로

하면 이게 무슨 죄인가?

공금 전용: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쓴 셈이다. 성전 수리비용으로 각종 기구들을 만들었다.

13. 15절의 '회개하지 아니하였더라'는 것도 쉬운 표현으로 하면?

정산을 하지 않았다는 말이다. 회개하지 않은 이유가 일을 성실히 하였기 때문이라고 하니까. 제사장들이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세운 감독은 일을 제대로 했다. 목사보다 평신도들이 더 교회를 염려하고 충성스러운 때가 더러 있었다던데...

14. 16절도 그 전에 성전 수리 작업이 제대로 되지 않은 원인을 간접으로 알려주는 셈이다. 무슨 잘못이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는가?

속근제나 속죄제의 은은 제사장의 생활비로 사용되었던 것이다. 이제는 성전수리를 위한 헌금과 이것을 분명하게 구별했다는 말이다. 이전에는 이것이 혼용되어 사용되었다는 뜻이다.

15. 12장을 두 가지 내용으로 분류한다면 성전 수리에 관한 것과 또 하나는 무엇일까(참고 대하 24장)?

요아스가 받은 징벌: 요아스의 등극은 다윗의 후손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렇다고 요아스의 삶이 온전했던 것은 아니다. 열왕기에는 생략했지만 대하 24:15-22에 요아스의 잘못이 있다. 그에 대한 심판으로 하사엘이 침공하고 신하들이 반역한 것이다. 끝의 간단한 두 이야기는 심판이란 점에서 같은 이야기이다.

열왕기하 13 장

- 1-7절은 '범죄 - 징계 - 회개 - 구원 - 다시 범죄'로 이어지는 모습인데 어느 성경의 내용이 이런가?
사사기는 꼭 이런 짓을 8(7)번 반복한다. 과거 역사에서 교훈을 얻지 못하면 미래도 없다.
2. '~ 했으나 ~ 하지 아니하였더라'는 표현과 형태가 비슷한 것까지 포함하면 몇 번이나 나오는가?
3번(1-2, 5-6, 10-11): 인간이 어째 이 모양인가? 이 굴레를 벗어나거나 뺄 수 없을까? 신앙 관중들도 대체로 이런 형태인 것이 마땅치 않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귀한 자녀가 되었고 더욱 하나님을 잘 섬겼더라' 이런 관중이 진짜 관중이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잘 나갈 때 하나님을 더욱 잘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바람이다(신명 6:11-12). 다윗은 죄를 지었음에도 깨끗이 회개하고 이런 굴레에서 벗어났다.
3.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야기 끝에 '잘 먹고 잘 살았다'라는 표현을 즐겨 쓴다. 이 표현을 유대식으로 하면 어떻게 될까?
자기 장막에 거하였더라(5): 구원 받아서 평화롭게 살았다는 표현이다.
4. 여호아하스가 무슨 악한 짓을 했는가?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여로보암 집의 죄와(6, 12) 아세라 목상을 섬긴 것: 여로보암의 죄란 금송아지를 섬기는 것이다. 다른 것이 악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것이 가장 큰 악이다. 금송아지를 섬기는 것은 정치적인 의도가 강하다. 정권을 지키기 위한 노력인데 결과적으로는 나라가 허약해지는 원인이 되고 말았다. 아세라 목상은 종교적이라기보다는 음란문화를 대표하는 것이다. 권력과 음란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은 것은 분명한데...
5. 예후가 바알신당은 철저히 파괴한 것 같은데 아세라는 왜 남겨두었을까?
모르겠다.
6. 마병 오십과 병거 십승과 보병 일만 외에는 여호아하스에게 남겨두지 아니하였더라(7). 이걸 왜 남겨둘까?
최소한 내부 통치는 가능해야? 패전 이후 일본은 헌법에 의해서 군대를 보유하지 못했다. 자위대를 두었을 뿐이다.
7. 마병 오십과 병거 십승과 보병 일만 외에는 여호아하스에게 남겨두지 아니하였더라(7)는 것은 처절하리만큼 국력이 쇠퇴하였음을 뜻한다. 여호아하스가 이렇게 허약해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
어려운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또 우상을 숭배한 죄: 차라리 하나님의 은혜를 전혀 받지 않았더라면 이보다는 나았을 지도 모른다. 여호아하스의 변신이 더욱 처절한 징벌의 원인이었을 것이다. 차라리 하나님께 구하지 말고 일관되게 악하지!
8. 타작마당의 티끌은 무엇을 상징하는 걸까? 수가 적음? 바람에 날리는 먼지?
처절하게 짓밟힘: 옛날의 타작은 도리깨로 두들겨 패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 도리깨에 끊임없이 두들겨 맞는 마당 흙을 가리키는 말이다. 아람에게 이렇게 고통을 겪었다는 말이다.
9. 열왕기에 흔하게 등장하는 말이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는 것이다(8, 12). 성경에 기록된 것은 무엇이고 역대지략에 기록된 것은 무엇인가?
성경에 기록된 것은 '하나님의 관계,' 역대지략에는 '남은 사적, 모든 행한 것, 권력(전쟁에서 용맹을 펼침):' 일반적으로는 후자가 더 중요한 내용일 수 있지만 성경에 기록할 가치는 없다는 말이다. 왕이 남긴 많은 사적이 있겠지만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다. 우리의 어떤 경력은 중요하지 않고 어떤 경력은 중요할까? 어린 아이 하나가 예수의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은 크다. 예수 때문에 참은 것, 예수 때문에 용기를 낸 것, 좌우간 '예수 때문에'가 우리 인생을 위대하게 만든다. 하나님의 치부책에는 그런 것만 남는다. 우리도 사라진 역대지략에 올릴 위대한(?) 일만 하고 있지는 않는가?
10. 이웃하고 있는 두 나라 왕의 이름이 같다면 여간 불편하게 아니다. 공부하는 우리도 헛갈린다. 북이스라엘의 요아스는 여호아하스의 아들이다. 그보다 조금 이른 시기에 유다의 왕이 된 요아스는 누구의 아들인가?
아하시야의 아들 요아스: 할머니인 아달랴(이세벨의 딸)가 손자 70명을 한꺼번에 죽일 때 간신히 빠져나온 갓난아이다. 6살에 즉위하여 40년을 통치했는데 그의 통치 37년에 북이스라엘에 이름이 같은 왕이 등장하였다.
11. 여로보암이 왕이 되었다고? 북이스라엘을 죄악으로 이끈 대명사가 여로보암인데 하필이면 또 여로보암이 왕이 되었는가? 여로보암이란 이름이 우리에게는 불신앙의 조상이지만 이스라엘에서는?
권국의 아버지: 신앙적인 눈으로 보면 죽일 놈이지만 국가라는 기준에서 보면 나라를 세운 사람이다.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던 시절에는 여로보암이라는 이름이 위대한 이름일 수밖에 없다. 이 여로보암을 우리는 여로보암 2세라고 부른다.
12. 예후에게 기름을 부은 이후 엘리사의 행적은 전혀 나타나 있지 않다. 그런데 요아스가 엘리사의 병을 보고 눈물을 흘리며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는 것은 그럴만한 일을 보았기 때문일 것이다. 요아스가 엘리사의 능력을 본 것을 본문에서 짐작해 본다면?
요아스가 왕이 되기 전, 그러니까 아버지 여호아하스가 하나님께 매달렸을 때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5)가 바로 엘리사였을 것이다. 그 외에 달리 눈물을 흘리며 이런 말을 할 이유를 찾기 어렵다. 짧고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면 엘리사일 것으로 짐작하고, 길게 본다면 북이스라엘을 어려움에서 구한 것은 여로보암 2세이다(14:27).
13. 하나님은 징계와 은혜 중에 어느 쪽에 더 빠르게 반응할까? 본문을 근거로 설명한다면?

은혜(4절): 본문에 나타난 징계는 아합의 시대에 예고된 것이다. 징계는 오랜 시간을 보낸 후에 시행되고 있는 반면에 여호아하스의 간구에는 즉각 귀기울이시고 은혜를 베푸셨다.

안찰(어루만질 按, 문지를 擦) 올려놓는다는 뜻이다.

14. 꼭 활을 쏘고 메시지를 전해야 하나?

‘왕이 아람을 칠 것이다’라는 말보다 아람을 향해서 활을 쏘면 느낌이 확실히 다르다. 추상적인 개념을 구체적인 행위나 사물에 연결시킬 수 있다면 가르치거나 기억시키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다. 요아스에게는 실감나는 메시지였을 것이다.

15. 선지자가 병들어 찾아간 것을 이렇게 후하게 대접하나?

하나님은 건수만 있으면 베풀려는 분이시다.

16. 땅을 치라 하면 얼마를 쳐야 하나?

횃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치라면 열심히 쳐야 한다. 여기서 사용된 ‘치라’는 단어는 아주 강하게 치는 것을 의미한다. 세 번 치고 그친 것은 선지자의 말에 적극적으로 순종하지는 않았다는 뜻 같다.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에게 일을 시켰을 때와 억지로 따라하는 사람에게 일을 시킨 결과의 차이처럼! 활을 쏘는 행위가 아람을 치는 것을 말한다면 땅을 치는 것도 아람을 치는 일일 것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지 않았을까?

17. 엘리사가 요아스에게 하는 유언은 ‘무장을 갖추고 아람과 싸우라’는 것이다. 요아스가 이 말을 쉽게 따라하기 어려운 것은?

군사력이 형편없다. 아버지 때부터 아람의 압제를 받아왔다. 이런 요아스에게 용기를 주기위한 사건이 바로 다음 사건 아닐까?

18. 모압의 적당(賊黨, 도적 떼)이 이스라엘을 침범한 이유가 뭘까?

아람으로 인해 이스라엘의 국력이 쇠약함

해가 바뀌었다는 것은 추수가 끝난 계절(3월 말)이란 뜻이다. 빼앗을 게 있어야 도적이 들지!

19. 죽은 엘리사의 뼈도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있다? 이런 이적을 베푸신 이유가 무엇일까?

엘리사가 한 말(아람 사람을 칠 것이다-이스라엘이 소생할 것)을 확신하라는 당부 아닐까? 죽은 자의 뼈가 이 정도 능력을 지녔다면 그가 살았을 때 남긴 말은?

20. 이렇게 악한 왕들이 많이 있던 시절에 엘리사가 혼자 힘으로 여호와와 뜻을 전하였다는데 차라리 엘리사와 같은 사람을 왕으로 세우지?

타락할 대로 타락한 이스라엘은 우리의 현실이고 엘리사는 그런 시대에 나타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간섭을 상징하는 인물이다.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그로 인해 험클어진 이 세상을 최소한의 관여만 하시면서(엘리사) 일단은 인간에게 맡겨두신다(왕들)는 의지이다.

21. 여호아하스 시대에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시는 것은 두 가지라고 보아야 한다. 대조적인 내용을 지닌 두 가지는 무엇인가?

여호아하스 시대에 하사엘을 통해서 진멸에 가깝도록 당하는 것과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23): 하사엘에게 진멸에 가깝도록 당하는 것은 아합 시대에 미리 말씀하셨던 일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조상들을 기억하셔서 멸하려고 하지 않았다. 아합의 일과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다 기억하시는 하나님은 머리가 아프시다.

열왕기하 14 장

1. 열왕기하 왕을 소개하는 방식을 정돈해 보자.

같은 시기의 상대국 왕을 먼저 말하고, 즉위 시의 나이, 통치연한, 모친을 소개함

2.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산당을 제하지 않았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 백성들이 거기서 제사와 분향을 드렸다는 이어지는 내용으로 보아(5-7) 그렇게 악한 내용인 것 같지는 않은데?

다윗과 같지는 않았다는 말은 아주 선한 왕은 아니었다는 말이다. 악한 왕이었다는 말은 아니다. 결과를 보면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다는 것이 우상을 숭배를 뜻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 다만 하나님께서 지정한 곳에서 제사를 드리라는 명령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 같다.

3. 왕을 모반한 자들을 왜 이제야 죽이는가?

일종의 성공한 쿠데타였던 모양이다. 모반한 자들이 실권을 잡고 있었는데 요아스가 왕권을 확립하고 난 후에 죽인 모양이다. 말하자면 왕권이 제대로 확립되기까지 혼란의 시기가 있었던 모양이다. '나라가 그의 손에 굳게 서매'라는 표현이 그것을 암시하는 듯하다.

4. 성경에는 연좌제가 없다(6) 그러면 아비의 죄가 3, 4대까지 이른다(신 5:9-10)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부모들의 죄가 지닌 영향력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부모의 악물 복용이나 알콜 중독, 잘못된 성생활로 인한 기형아의 탄생이나 그 외의 나쁜 영향력은 보통 3, 4대까지 영향을 준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죄는 3, 4대까지 갔고 은혜는 1,000대까지 베푼다는 말씀은 어쩔 수 없이 벌을 준다 해도 벌하기보다는 은혜를 더 베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다. 이 말씀에 근거해서 조상의 죄까지 회개해야 한다고 한 모양이다. 가계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야 한다? 한국인이 가진 미신 같은 냄새가 난다. 아버지가 죄를 많이 지어서 아들은 믿어도 헛일인가? 그런 법은 없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은혜는 풍성하게, 벌은 아주 조금 흥내만 내려는 것이다.'

5. 예후의 손자 여호아하스의 아들 이스라엘 왕 요아스라면 예후와 요아스는 어떤 관계인가?

할아버지와 손자 관계이다. '예후의 손자', '여호아하스의 아들', '이스라엘 왕 요아스'는 전부 동격관계다.

6. 역적의 자손들을 죽이지 않는 것은 유례를 찾기 어렵다. 아마샤가 그만큼 말씀에 충실했다는 뜻인가?

분명히 그런 점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들은 모반을 하고 상당한 기간 동안 요직에 있었다. 세월이 상당히 흐른 후이기 때문에 회유책 없이 강공책만 구사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7. 신명기는 요시아 시대(아마샤보다 200년 정도 후 시대)나 포로 시대 이후에 편집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신 학자들이 있다. 기존의 전통을 모조리 뒤엎고, 이스라엘의 종교도 진화론처럼 발달되었다는 전제에 따라 고 등종교의 내용을 담은 것은 후대의 작품으로 돌린 것이다. 그래서 신명기를 가장 후대에 편집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만약 그렇다면 14:6절이 그런 학자들에게 가장 골치 아픈 구절이 된다. 왜 그럴까?

본문에서 아마샤가 지킨 모세의 율법책이란 신명기를 가리킨다. 자녀로 인하여 아비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인하여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사람마다 자기의 죄로 인하여 죽을 것이니라(6절)는 신 24:16의 인용이다. 신명기가 후대의 책일 수가 없어진다.

8. 예돔이 유다의 속국으로 있다가 벗어난 것이 여호사밧 때의 일이다. 우상을 섬기는 아합 왕가와 친하게 지낸 결과로 유다는 국력이 급격히 쇠퇴하였다가 그나마 아마샤가 다시 예돔을 정벌한 것은 다시금 국력을 회복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얻은 셈이다. 예돔에게 대승한 것은 그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한 왕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면 이스라엘에게 패배한 것은 예돔에 대한 승리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예돔에게 승리한 후 교만했기 때문이다(10): 여호사밧 이래로 참으로 오래만의 승리이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왜 승리를 주셨는지 생각했어야 했다. 표면적인 이유는 대하 25:13절의 기록처럼 샷을 내어 데려왔다가 돌려 보낸 이스라엘 군인들의 행패이겠지만 내면적으로는 교만이라고 보아야 한다. 한번 승리했다고 그렇게 사람이 변하는가? 그렇게 변하기 쉬운 것이 사람이란단다.

9. 대면하자는 말을 요아스는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가? (참고 대하 25:5-16)

막 먹자(전쟁포고에 가까운 의미지만 조금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 대화를 더 시도하다가 전투를 벌였으니까. 11절의 대면은 전쟁을 의미함): 가시나무가 어떻게 백향목과 같이 놀겠느냐? 급수가 다르다는 말인데 이것을 아마샤가 무시하니 먼저 공격을 해버렸다.

10. 요아스가 말하는 비유의 핵심은?

가시나무가 어떻게 백향목과 같이 놀겠느냐? 급수가 다르니 파볼지 마라. 집에 가서 애나 봐라!

11. 요아스의 답변 내용 중에서 아마샤로 하여금 기분 나쁘게 하는 내용을 두 가지 지적한다면?

자기는 백향목, 아마샤는 가시나무

짐승에게 짓밟힐 것: 굳이 자기가 손댈 필요도 없다. 상대가 되지 않는다고 무시해도 유만부득이지... 아마샤는 그렇게 느꼈겠지만 애석하게도 결과적으로는 요아스의 말이 맞았다.

12. 요아스의 답변을 아마샤가 왜 듣지 않았을까?

어차피 처음부터 들을 마음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요아스의 답변도 들을 수 있도록 여지를 주는 것이 아니다. 어차피 한판 불자고 보낸 답변이다. 처음에 주의해야지 한번 발을 잘못 들여놓으면 빼기 어렵다. 쓸데없는 고집도 화근이지만 그런 고집을 부릴 수밖에 없는 상황 자체를 만들지 말아야 한다. 가출하면서 너무 큰 소리 치지 마라, 돌아오기가 더 힘든 법이다.

13. 유다의 군사들은 왜 장막으로 도망하였는가?

군인이 군인이기를 포기했다는 말이다. 전쟁의 패배를 뜻하는 전형적인 표현이다.

14. 예루살렘 성은 그렇게 쉽게 점령되지 않는다. 강력한 로마의 군대에도 몇 년간 버티기도 했는데 여기서는 왜 이렇게 허무하게 당했을까?

왕이 사로잡혔기 때문이다. 아마도 아마샤가 용감하게 뛰어나고 탓일 게다. 요아스도 합부로 예루살렘을 침공한 것이 아니라 벤세메스를 공격했는데 아마샤가 경솔하게 뛰어나갔다가 사로잡힌 모양이다. 파볼지 말아야 하는데...

15. 모처럼 왕을 사로잡았으니 통일왕국을 이루지 왜 그냥 두었을까?

모르겠음: 정복하는 것도 어렵지만 한 나라로 동화시키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일 것이다. 더구나 정통성이 약한 북이스라엘이 유다를 지배하기는 더 어려웠을지도 모른다. 그럴 바에는 약한 왕을 세워 꼭두각시 정권을 만드는 것이 더 쉬울지도 모른다. 아마샤를 인질로 잡아가고 그 아들을 왕으로 세웠을 가능성이 크다.

16. 13장은 북왕국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이야기이고, 14:1-22는 유다의 아마샤 왕에 대한 것이다. 14:23-29는 북왕국 여로보암 2세의 이야기이고, 유다 왕 아마샤의 아들 아사랴(웃시야)의 이야기는 15장에서 시작된다. 그러면 14장에 요아스의 이야기(9-16)와 아사랴의 업적(22)이 왜 기록되었는가?

아마샤와 관련이 있기 때문이지 요아스나 아사랴의 이야기가 아니다.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요아스에게 인질로 잡혀 있었지만 요아스 사후에 유다에서 통치를 계속했다는 말이고(아래 질문 참조) 아들과 공동 통치를 하면서 남긴 업적 중에 하나가 엘랏을 건축한 것이라는 얘기다. 그러니까 22절은 아사랴의 업적이라기보다는 아마샤의 업적인 셈이다. 선왕의 기록을 종결할 때 계승자의 이름을 기록하는 것이 열왕기의 관습이지 계승자의 업적을 기록하는 것은 정상적인 기록이 아니다.

17. 14:15-16은 13:12-13과 중복이다.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는 것일까?

17절을 말하려고 중복된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즉 8-22절은 아마샤의 이야기지 요아스의 이야기가 아니다. 아마샤가 요아스에게 포로로 잡혀갔다가 풀려나고, 더 오래 살았다가 모반을 당해 죽은 이야기다.

18. 21절도 이상한 기록이다. 왕이 죽으면 왕자가 당연히 왕이 되는 것이지 '백성이 그 부친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을 삼았다'는 것은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에 왕으로 삼았다는 느낌이 든다. 왕의 순서를 따라 기록하느라고 여기 기록되었겠지만 내용상으로는 어느 구절과 연결될까?

14:13-15 이후와 연결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성경이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하지 않기 때문에 역사적 정황을 파악하기는 불가능하다. 다음과 같은 주장도 있음을 참고로 하자. 아마샤가 이 때 포로로 잡혀갔고 아사랴가 왕으로 세움을 입었다고 한다. 아사랴가 왕이 된 시점은 아마샤 5년이라고 한다(에드윈 R. 킬레). 요아스 사후에 돌아와서 통치를 계속했지만 왕으로서 권위는 세우기 어려웠을 것이다. 모반의 원인이 여기에 있었을 것이다.

19. 예루살렘에서 무리들이 왜 모반을 일으켰을까?

포로에서 돌아온 아마샤가 섭정왕이 되었겠지만 그런 상태에서 통치를 제대로 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 패전과 포로생활이 통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고 추정할 뿐이다.

20. 이스라엘의 쿠데타와 유다의 쿠데타는 결과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가?

유다에서는 쿠데타가 일어나도 왕조가 변하지 않았다(아하시야, 요아스, 아마샤, 아사랴).

21. 여로보암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며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 하였음에도 어떻게 영토를 회복하고 41년 동안이나 위에 있을 수 있었는가?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이다(26-27): 유다를 돌아보시는 이유는 다윗과 맺은 언약 때문이라고 하셨다. 북이스라엘을 돌보시는 이유를 '이스라엘의 이름을 도말하여 천하에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27)' 라는 것은 가나안 족속들과 달리 취급하는 이유를 말하는 듯하다. 13:23절에 따르면 족장들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왕조는 바뀌어도 나라는 명맥을 이어갔다.

열왕기하 15 장

1. 여로보암은 아마샤 15년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14:23). 아마샤가 29년을 통치했으므로(14:2) 아마샤의 뒤를 이은 아사라는 여로보암 15년에 왕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어떻게 여로보암 27년에 왕이 되었다(15:1)고 하는가? 아마샤가 죽고 왕이 없이 12년을 그냥 지냈다는 말인가?

여로보암이 두 가지 연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아버지와 함께 통치한 기간과 단독으로 통치한 기간이 그것이다. 여로보암 단독통치 15년은 공동통치 27년이라는 말이다. 이렇게 기준이 다른 기간이 뒤섞여 있는 예는 30절과 33절에서도 볼 수 있다. 요담은 16년간 통치하였는데(33) 요담 20년(30절)이란 표현이 어떻게 가능한가? 아버지와 공동통치를 10년이나 했고(16년에 포함된 것) 아들과 4년 정도 섭정을 했기 때문이다.

2. 유다나 이스라엘 왕들의 통치기간을 합하면 이스라엘의 전체 역사보다 훨씬 길다. 그래서 비평학자들이 득세할 때 '성경의 연대기는 믿을 것이 못 된다'는 식으로 취급하기도 했다. 그러나 성경이 상세하게 연대를 말하고 있음에도 그렇게 경솔하게 취급해서는 안 된다. 문제가 어렵다면 '못 풀겠다'고 해야지, '문제가 틀렸다'고 말하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실력없음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인격적으로도 문제가 있음을 고백하는 셈이 된다. 두 왕국의 왕이 동시에 바뀐 경우가 두 번 있다면 연대를 비교해 볼 수 있는 좋은 경우가 된다. 첫째가 아달랴가 예후와 동시에 왕이 된 것이다(왕하 11장). 본문에서 같은 해에 두 왕이 교체된 경우를 찾아 보라.

27절과 2절: 유다 왕 아사랴 52년에 베가가 이스라엘 왕이 되었으니 아사랴의 후임은 베가와 같은 해에 왕이 되었다는 말이다.

3. 위의 질문의 답을 찾았다면 그 중간에 있는 왕들의 통치 기간을 더해서 비교해 보자.

이스라엘에 예후가 등장하던 해에 유다에는 아달랴가 등장하였고(왕하 11장) 유다의 아사랴(웃시야)가 죽던 해에 이스라엘에는 베가가 등장한다(왕하 15:27). 그러므로 두 왕국의 왕들의 통치 기간은 일치해야 한다.

유다: 아달랴 7년 + 요아스 40년 + 아마샤 29년 + 아사랴 52년 = 128년

이스라엘: 예후 28년 + 여호아하스 17년 + 여호아스 16년 + 여로보암 2세 41년 + 스가랴 6개월 + 살룸 1개월 + 므나헴 10년 + 브가히야 2년 = 114년 7개월

약 13년의 차이가 난다. 이 기록은 앗수르 연대기와 비교해 보면 유다가 25년, 이스라엘은 12년 정도가 더 길다고 한다. 왜 이런 현상이 생겼을까? 이스라엘에서는 여로보암 2세와 여호아하스 사이에 12년간 섭정이 있었고, 유다에는 아사랴가 그의 부친 아마샤와 24년간 섭정으로 기간이 중복되었기 때문이다. 왕들의 통치연수를 합하면 예후를 기준으로 이전의 역사는 이스라엘 98년, 유다는 95년이고, 예후 이후 이스라엘이 멸망하기까지 이스라엘은 143년 7개월, 유다는 166년이다.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한 두 해의 차이는 흔히 발생한다. 어떤 직장에서는 하루만 근무해도 한 달치 월급을 주는 곳이 있다. 이런 곳은 사람이 바뀔 때마다 급여기간이 한 달씩 늘어난다. 휴직한 사람도 월급을 받고 임시로 들어온 사람도 월급을 받는 경우처럼 왕들의 통치기간이 겹치는 경우가 있게 마련이다. 은행에서 오늘 돈을 빌려서 내일 갚는다면 이자를 하루치 물까, 이틀치 물까? 정답은 이틀치이다. 저축하는 경우는 다르다(양쪽 넣기, 한쪽 넣기, 양쪽 빼기 등의 방식이 있다). 왕들의 연대기에도 이런 경우가 많다.

4. 산당을 제하지 않은 것이 죽을죄는 아닌 것 같다(4, 35). 산당이 원래는 산이나 언덕의 높은 곳에서 우상을 섬기던 장소였다. 그럼에도 죽을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관련이 있다는 말이다. 결국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고 분향한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아마도 혼합주의적인 제사를 의미하는 것 같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긴 것은 아니고 다만 하나님께서 정하신 곳에서 제사를 드리라고 한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

5. 정직히 행하였으나(3) 하나님께서 치셨다(5)는 것은 이상하다. 너무 간략하게 기록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다. 좀 더 상세하게 기록한다면 어떻게 설명하는 것이 좋을까? (아래 질문도 참조해서)

정직히 행하여서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이 그만 화가 된 것이다. 잘 될 때 더욱 조심하라는 말 속에 걸린 셈이다(신 8:11-14).

6. 아사랴(웃시야)가 문둥병이 걸린 것이 산당 문제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다른 원인이 있었다. 대하 26장을 참고해 보자.

교만 때문이다: 아마샤가 고통스런 삶을 살았던 것도 산당의 문제가 아니라 교만 때문이었다.

7. 아무리 지위가 높고 잘 나고 위대해도 죄 가운데 있다면 불쌍한 인생이다. 우리는 이런 인생을 가리켜 무엇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 아사랴의 모습에서 답을 찾아보자.

별궁에 거한 왕, 문둥이 왕: 아무리 왕이면 뭐 하나?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잘난 인물이 참으로 많다. 부러워 할 일이 아니다.

8. 스가랴가 불쌍하다! 자신의 잘못보다는 조상의 잘못 때문에 이렇게 단명한 것 아닌가?

자신이 조상들의 범죄행위를 그대로 행한 것(9)에 대한 대가이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여로보암이 자신의 명령을 준수하지 않은 탓이지만 스가랴의 입장에서는 분명히 자신의 죄 때문이다.

9. 하나님께서 예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네 자손이 이스라엘 위를 이어 사대까지 이르리라'(10:30)고 하신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예후 28년), 여호아하스 17년, 여호아스 16년, 여로보암 41년, 스가랴 6달: 스가랴는 불쌍하다. 아무리 그렇지

만 6개월이 뭐냐? 예후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잘 했더라면...

10. 그나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예후 왕가는 80년은 지탱했다. 예후 왕조를 무너뜨린 살룸은 얼마나 지탱하는가? 그가 예후 왕조를 무너뜨린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한 달: 그의 악함을 하나님께서 쓰셨을 뿐이지, 그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자고 한 짓이 아니다. 부질없는 권력 욕이었을 뿐이다. 한 달짜리 왕이었지만 그의 기록이 왕의 역대지략에 기록된 것으로 보아 정통성은 지니고 있었던 모양이다. 다시 말하면 스가랴의 죽음이 백성들이 보기에 당연했던 모양이다.

11. 므나헴의 악행을 정리해 보자.

답사를 칠 때 아이 벤 부녀를 갈랐다: 당시에는 승리자가 행하는 일상사였다고 해도 동족을 이렇게 대하는 것은 너무하다.

공물을 바치기 위해서 토색함: 정통성이 약한 왕이 정권을 지키기 위해서 물리력을 동원해서 강제로 빼앗은 것이다.

다른 왕들에게 동일하게 나타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는 말에 '평생'이 추가되었다.

12. 여로보암 왕조는 스가랴에서 끝이 났음에도 그의 죄는 여전히 계속된다(18, 24, 28).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하는 셈인가?

(아담이 범죄한 이후) 우리 인생은 아무래도 성악설이 맞는 모양이다: 선한 행위가 지속되기는 어려워도 악행은 쉽게 지속되니까. 더구나 이 악행은 왕권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이었던기 때문에 더욱 그러했다. 권력에 대한 욕심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든다.

13. 은 1세겔은 노동자의 4일 품삷이란다. 1000달란트는 약 3,000,000세겔이다. 지금으로 보면 어느 정도의 금액이며, 50세겔씩 모아서 1000달란트를 만들려면 몇 명에게 빼앗아야 하나?

일당을 4만원으로 잡으면 4만 × 4일 × 3백만 = 4800억원이다.

6만명에게 권어야 한다.

정통성이 없는 왕이 정권을 유지하려면 죽어나는 것은 백성이다. 부대장을 잘못 만나면 병사들이 죽어나는 법이다.

앗수르 왕 '불'은 29절의 '디글랏 빌레셀'과 동일인인데 바벨론식 이름이다. 바벨론까지 통치했기 때문에 바벨론식 이름을 가지고 있었다(바벨론 열왕의 목록에서). 그가 이스라엘을 친 것(29)은 16:5-9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14. 살룸, 므나헴, 베가, 호세아의 공통점은?

왕위 찬탈자: 반역이 잦아지는 꼴을 보니 거의 끝이 다 된 모양이다. 이래서야 어느 세월에 나라가 튼튼해지겠는가?

15. 요담은 16년간 통치하였는데(33) 요담 20년(30절)이란 표현이 어떻게 가능한가?

두 가지 연대를 가지고 있다는 말이다: 아버지와 공동통치를 10년이나 했고(16년에 포함됨) 아들과 4년 정도 섭정을 했기 때문이다(추정)

16. 베가는 20년을 통치했다(27). 베가 2년에 요담이 왕이 되었다(32). 요담 20년에 베가가 죽임을 당했다(30). 말이 맞는가?

베가 2년이 요담 1년이란 말이다. 이 간격은 짧으면 며칠 사이가 될 수도 있고, 길어도 2년 미만이다. 따라서 같은 해가 될 수도 있다.

17. '여호와께서 비로소 아람 왕 르신과 르말랴의 아들 베가를 보내어 유다를 치게 하셨더라'고 하는데(37) 이 기록은 사 7:1-4의 기록과 대조적이다. 이사야가 보는 관점과 열왕기 저자의 관점의 차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두 가지일 수도 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기에 이럴까?

어쩔 수 없이 징계를 가하는 마음이다: 매를 들기는 하지만 본심은 들고 싶지 않은 경우와 같다. 자세히 보면 시기도 서로 맞지 않는다. 본문은 요담의 때이지만 이사야는 아하스 때라고 말한다(사 7:2). 공동으로 통치하던 시기가 있었음을 뜻한다. 이 전쟁은 두 번 있었던 모양이다(왕상 15:37과 16:5, 사 7:1과 7:2).

18. 유다왕 아사랴(=웃시야) 시대에 북이스라엘의 왕은 몇 명이었는가? 이렇게 정치적으로 차이가 나는 이유를 본문에서 찾는다면?

5명, 여로보암(1), 스가랴(8), 살룸(10), 므나헴(17), 브가히야(33), 베가(27): 유다는 비교적 안정적이었지만 북이스라엘은 정치적으로 몹시 혼란되고 있었다.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주원인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불충성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 시대에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한 선지자가 이사야이다)

- 3, 34(유다) ↔ 9, 18, 24, 28(이스라엘)

< 15장의 연대기는 학자들 간에 논란이 많다. 가장 잘 설명한 분이 '딜레' 교수일 것이다. '히브리 왕들의 연대기, 딜레 저, 한성고 역' 을 참조하면 좋을 것입니다 >

열왕기하 16 장

1. 조상들이 대체로 선하면(요아스, 아마샤, 웃시아, 요담) 자식도 선하게 되는 것 아닐까?

옆으로 셀 가능성은 항상 존재하므로 경성해야 한다. 인간의 본질이 그렇다.

2. 다윗과 같지 아니하다는 것은 곧 이스라엘 열왕의 길(3)로 행하는 것이다. 유다 왕이 왜 이스라엘 왕의 길로 행하는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그리스도인이 왜 불신자들이 하는 짓을 따라 하느냐는 말이다. 아하스가 이스라엘 열왕의 길로 행하였다는 것은 곧 무슨 짓을 했다는 말인가?

우상숭배: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몰록 신을 섬긴 것, 미 6:7) 또 산당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3. 아람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에 올라왔지만 이기지 못했다. 그러니까 피해가 전혀 없는 걸까? (참고 대하 28:1-15, 사 7:1-2)

몽고가 우리나라를 침략해서 전국을 장악하고 있음에도 왕은 강화도에서 버티고 있으면서 전쟁에 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꼴이다. 덕분에 백성들이야 죽어났지만... 아하스를 이기지 못했다는 것은 예루살렘 정복만 못했다는 뜻이다. 왕자와 궁내대신이 죽었고 엄청난 군사가 죽었고 엘랏도 빼앗겼다. 예루살렘만 함락되지 않았을 뿐이다(대하 28:1-15). 엄청난 피해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그나마 회복되었다. 엘랏은 홍해에 인접한 항구도시이다. 해상 무역에 절대적인 곳이었는데 이곳을 빼앗겼다는 것은 큰 충격이었다.

4.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데 앗수르 왕을 의지하면 결국 어떻게 될까? 하나님의 것을 이방왕에게 뇌물로 준 결과는? 1) 본문에서도 답을 찾고 2) 이사야 7장에서도 답을 찾아보자.

1) 좋은 본을 본다: 앗수르의 우상을 본받게 되었다.

2) 덕분에 앗수르가 다메섹도 치고 이스라엘도 치지만 결국은 자신도 앗수르에 당하고 만다(사 7:17-25)

5. 여호와의 전에 있던 것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바친 것이고, 왕궁 공간에 있는 것은 백성들이 낸 세금이다. 이것을 앗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냈다. 아하스가 보기에는 예물이고 우리가 보기에는?

뇌물: 이라고도 아무 일이 없다면?

6. 아하스가 보낸 예물이 효력이 있었을까?

일시적으로 효력이 있는 것처럼 보였을 뿐이다: 역사적으로 보면 디글랏 빌레셋이 침공은 이미 작정된 것이었다. 아하스 때문에 다메섹을 친 것이 아니다. 조금 뒤에는 유다까지 침공하게 된다.

7. 아하스가 앗수르 왕의 단을 보고 같은 것을 만든 이유가 뭘까? 확실한 이유는 알 수 없으니 짐작만 해보자.

앗수르 왕에게 아무?

앗수르 왕이 섬기는 신이 진짜 능력 있는 신으로 보였기 때문? 바보! 작은 이적이거나 신비해 보이는 능력에 이끌려 만유의 주를 버리는 어리석음은 지금도 마찬가지다. 성경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 그래야 이런 바보짓을 않는다.

8. 이 제사장도 웃기는 제사장이다. 어떤 점에서?

이런 그릇된 명령에 열심을 냈더라 말이지? 그렇게 순종을 잘 했더라 말이지?

9. 아하스는 위험천만한 인물이다. 달리 위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반역하기 때문에 위험한 것이다. 어느 때에 무슨 사고를 칠지 모른다는 이런 불안감이 배어있는 단어를 하나만 찾는다면?

10절의 '드디어'

10. 아하스의 죄는 우상숭배인데 그렇다고 하나님을 완전히 떠난 것 같지는 않다. 어떤 점에서?

제사의 종류나 방식이 여호와께 드리던 것과 거의 동일해 보이고 장소도 여호와께의 전이다. 그러니까 아하스는 종교적 혼합주의였던 셈이다. 본인은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신도 섬긴 셈이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하나님을 버린 것이다.

11. 단을 바꿔치기한 이유도 분명치는 않다. 단지 아하스의 말에서 한 가지 힌트를 얻는다면?

크기 때문(15): 겉으로 그럴 듯해야 뭔가 있어 보이는 듯한 느낌을 가지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다. 어차피 속은 안 보이니까... 근사한 단을 만들고 난 후에 예전의 단은 옆으로 치워버렸다(14).

12. '돛단은 나의 물을 일에 쓰겠다'는 말이 구체적으로 무슨 뜻인지 알기 어렵다. 한 마디로 하면 ()이다.

용도 변경: 성전 기물을 제 멋대로 바꾸고(단을 바꾼 것과 물두멍 받침의 옆판을 떼어낸 것) 엉뚱한 용도로 사용했다.

13. 돛바다는 무엇이며 돛소는 무엇인가? 둘 판은?

물두멍은 바퀴달린 받침대 위에 놓여있는 대형 대야이다. 돛으로 만든 이 대야를 '바다'라고 불렀다. 받침대는 소가 사방으로 서있는 모양인데 역시 돛으로 만들었다. 아하스의 행위는 물두멍을 해체하였다는 말이다.

14.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않는 아하스가 낭실을 옮겨 세운 이유가 무엇인가?

앗수르 왕을 인함이었다: 아마도 알아서 긴 것 아닐까? 속국의 왕으로서 너무 화려하거나 거창한 것을 치워야 했을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훨씬 나은 텐데... 결과적으로 아하스는 북이스라엘 베가, 아람(대하 28:5), 에돔(대하 28:17)에게 패하고, 블레셋에게 영토를 빼앗기고(대하 28:18), 성전을 폐쇄하기(대하 28:24)에 이른다.

열왕기하 17 장

1. 왕하 17장은 참으로 슬픈 기록이다. 왜? 나라가 망해서?

이스라엘이야 망할 짓을 하다가 망했으니 싸다 싸! 이런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삼고 온갖 고생을 다하고 허망하게 끝나는 것이 하나님을 슬프게 하기 때문이다. (물론 이것으로 끝낼 분이 아니시지만 일단은 그렇다는 말이다)

2. 슬픈 기록이란 점 외에 또 다른 느낌이 있다면?

형설수설: 중간에 느닷없이 유다를 언급하는 것도 그렇고, 이스라엘 멸망의 얘기가 너무 장황하고 두서가 없다. 끝난 듯한데 또 되풀이 하기도 하고(35절부터). 실제로 형설수설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 느낌이 들 수도 있겠다 싶을 뿐이다.

멸망에 대한 기록을 짧고 원인을 길게 설명함. 멸망보다 그렇게 된 이유에 더 관심이 있기 때문이다.

3. 앗수르 왕 살만에셀의 침공으로 호세아가 신복하여 조공을 바치기로 한 것은 과거의 일이다(15:29-300. 아마도 호세아는 살만에셀의 도움으로 왕이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수도 사마리아가 함락되지도 않았는데 호세아가 어떻게 금고당했을까? 논란이 있는 부분이지만 5-6절과, 18:9-12을 근거로 생각해 보자.

확실한 것은 알기 어렵다. 이렇게 추정해볼 수는 있을 것이다. 살만에셀이 침공한 것이 호세아 7년, 사마리아가 3년간 포위당했고, 호세아 9년에 사마리아가 함락되었으니 아무래도 사마리아가 함락되고 호세아가 금고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옳아 보인다.

4. 다음 구절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호세아 구년에 앗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취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앗수르로 끌어다가 할라와 고산하볼 하숫가와 메데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6절)

호세아 구년에 이스라엘이 망하였다: 사르곤의 비문에는 사마리아에서 남자만 27,290명을 잡아갔다고 한다.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4,600명을 잡아간 것(렘 52:30)과 비교해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잡혀갔는지 짐작할 수 있다.

5. 호세아가 악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조상들보다는 나았다. 그러나 이미 때는 늦었다. 하나님의 뜻을 돌이킬 만큼 선하지는 않았다. 호세아의 실책은 외교 실책인가?

호세아에게서 원인을 찾는다면 외교 정책의 실책이라고 할 수 있다. 하나님 편에서 이유를 찾는다면 열왕들의 범죄 탓이다. 범죄하고 망해가는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버려두신다(롬).

6.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은 조강지처를 버리는 것보다 더 악한 일이다. 왜?

조강지처는 어려울 때 함께 고생한 부인을 말한다. 그래서 칠거지악에 해당하더라도 버릴 수 없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노예생활 하던 그들을 구해내신 분이시다(7). 조강지처와 버릴 수 있는 분이 아니다. 그런 하나님을 버린다는 것은 배은망덕을 넘어서 어리석기 그지없는 짓이다.

7. 17장은 이스라엘 마지막 왕에 대한 기록인 동시에 이스라엘의 멸망 얘기다. 보통은 멸망의 과정을 자세하게 기록하는 법인데 이 경우는 어떻게 다른가?

멸망에 대한 기록은 짧고(3-6) 원인을 길게 설명함(7-23, 34-41): 7-8은 요약이고 9-17은 구체적인 범죄행위의 나열이고, 18절은 결론이다.

8.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이스라엘을 누군가가 다른 신을 섬기게 한다면 반발을 살 것이 명백하다. 따라서 백성을 속이는 수밖에 없다.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것이라면서 다른 신을 섬기도록 속인 셈이다. 그런 점을 지적한 말은?

9절의 가만히: ‘은밀하게 뉘다’는 뜻이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하나님이라고 한 것이 백성을 속이는 행위이다.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도 가만히 불의를 행하는 것에 속은 것이다.

9. 9절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만히 불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배역하여... 모든 성읍에 산당을 세우고...’로 읽으면 쉽다. 그러면 중간에 삽입된 ‘망대로부터 권고한 성에 이르도록’에서 망대는 무슨 뜻인가?

성이 없는 작은 마을

10. 말 안 듣고 목이 뻗뻗한 게(14) 저희 조상하고 꼭 닮았다. 어느 조상 말인가?

조상들이 거의 다 그랬지만 특히 여기서는 출애굽 과정의 광야에서 불순종하던 조상들이다.

11. 우상으로 사용할 송아지는 보통 한 마리인데 웬 두 송아지인가?

아론의 금송아지가 아니라 여로보암의 금송아지를 염두에 둔 표현이다. 남쪽 유다의 수도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막기 위해서 여로보암이 송아지를 두 마리 만들어서 이스라엘의 남단과 북단에 세웠다. 이런 것들은 하나님을 위협이 아니라 자신을 위협이다.

12. 이스라엘의 멸망을 얘기하면서 유다는 왜 언급하는가(19-20)?

유다조차 과거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교훈을 받지 못하고 이런 비슷한 짓을 했고 비슷한 고난을 당했다는 말이다. 문맥상으로 보아 20절의 ‘이스라엘 온 족속’은 남유다까지 포함하는 이스라엘 전체를 가리킨다(13절 참고).

13. 이스라엘의 이런 비극은 예견되었던 것이다. 이것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떤 노력을 하셨다고 열왕기 기자는 말하는가?

여호와께서 친히 명하심(12절, 신명기를 뜻함, 15절) 선지자, 선견자들을 통한 끊임없는 경고(13)

14. 15-17절은 신명기 28장을 염두에 둔 표현이다. 신명기 28장은 흔히 축복장으로 기억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다. 축복에 대한 것은 19절에 불과하지만 저주와 관련된 것은 자그마치 48절이다(신 28:20-68). 신명기 28장이 '이렇게 하면 망한다는 경고'라면 왕하 17장은?

그렇게 했더니 결국 망했더라는 말씀이다. 신명기는 경고, 열왕기는 실제상황이다.

15. 기자는 출애굽에서 시작하여 유다가 망하기까지 이스라엘의 전체 역사를 머릿속에 그리며 열왕기를 기록하고 있다. 그러다가 다시 북 이스라엘의 멸망이라는 현재의 주제로 돌아온다(21). 북 이스라엘의 악한 역사는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가?

여로보암의 반역: 여로보암에게 나라를 찢어주겠다고 예언한 선지자는 아히야이다. 솔로몬이 범죄했고 아히야가 예언하고 르호보암이 백성들에게 안하무인격으로 행동하다가 나라가 찢어졌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잘 섬길 사람을 선택해서 나라를 찢어주어야 하는 것 아닌가? 이스라엘의 분열의 책임은 솔로몬과 르호보암에게 있다. 하나님은 용사라는 여로보암을 나라를 찢는 도구로 사용하셨다. 여로보암의 반역할만한 야망과 욕심만을 하나님께서 쓰셨을 뿐이다. 그 나라를 잘 다스려 하나님의 복을 받느냐 마느냐는 것은 여로보암의 선택에 달렸다. 결국 실패했지만... 사람들의 실패가 곧 하나님의 실패는 아니다. 하나님의 뜻은 결국 이루어진다(설교란에 '누가 나라를 찢겠는가?' 참조).

16. 북 이스라엘의 멸망은 곧 사마리아인들이 나타나는 배경이 된다. 어떻게 해서 사마리아들이 등장하는가? 앗수르 왕이 보낸 이민족(삼자파)과 이스라엘의 남은 자(여자)와 혼혈:

17. 어차피 이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사람들인데 새삼스럽게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고 사자가 출몰하니? 내 백성들이 사라진 땅에 들어온 남의 자식에 대해서 진노하심인가?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갔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가나안 땅은 여전히 하나님의 관심이 조금이지만 머물러 있는 땅이다. 후일에 예수께서 등장해서 사역하실 땅이기도 하다.

18.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방법대로라야 한다. 그 땅에 들어온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법을 알 리가 없다. 이방인들의 사고방식이 묻어나는 말을 찾아보자.

그 땅 신의 법: 대신 숭배 사상에 젖어 있던 당시 사람들의 자연스런 생각이다.

19. 돌아온 제사장들이 제대로 했을까? 모세가 가르쳐도 안 되었는데 앗수르 왕이 보낸 제사장들이 제대로 여호와 경외하기를 가르쳤을까(28)?

여호와도 경외하고 자기의 신들도 섬겼다(33절): 제대로 되었을 리가 없다. 앗수르 왕이 진실되게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을 선발했다고 보기 어렵고, 돌아온 제사장이 금송아지가 있던 뻔엘에서 백성들을 가르쳤다는 것도 의심스런 대목이다.

20. 여호와도 경외하고 자기의 신들도 섬겼다더니(32), 34절에는 여호와를 경외치 아니하였다는 것은 말이 틀리는데?

여호와도 경외하고 자기의 신들도 섬기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치 아니하는 것과 같다. 요즈음 말로 다원주의인 셈이다. 더구나 자기를 중에서 제사장을 뽑아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자기를 방식으로 섬긴 것으로 도저히 하나님을 섬겼다고 말할 수 없다.

21. 다음 구절을 시기상으로 구분해 보자.

24-33: 이스라엘 멸망 이후,

34: 지금, 기자가 열왕기를 기록하던 당시

35-39: 출애굽 이후,

40: 내용은 이스라엘 전체에 해당하겠지만 문맥은 이스라엘 멸망 이후를 다루고 있는 것을 보는 것이 좋겠다(24-33과 동일한 기간, 이전 풍속대로).

41: 34절과 동일한 현재

열왕기하 18 장

1. 히스기야가 왕이 되던 때의 이스라엘 왕은 호세아였다. 이 왕의 특기 사항이 무엇인가?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다(10-12). 북쪽 이스라엘이 망하기 일보직전이었으니 국제적으로도 대단히 어려운 때에 왕이 되었다는 말이다.

딜레 교수의 연대기에 의하면 히스기야가 즉위하기 전에 이스라엘은 이미 망해버렸다. 18:1, 9의 기록이 열왕기 기자의 착각으로 사실과 좀 다르다는 것이다(실제보다 12년 늦음). 자세한 것은 딜레 교수의 책 '히브리 왕들의 연대기'를 참조 바람(호세아 직전의 왕 베가의 연대가 착각을 일으키게 한 원인이었다고 설명함. 베가는 틀림없이 므나헴과 같은 해에 분할 통치를 시작했다고 봄. 북 이스라엘이 멸망한 해가 주전 723인데 그전에 호세아가 9년 베가가 20년 통치한 것을 역산하면 그럴 수밖에 없다).

2. 히스기야왕의 모친 이름이 '아비'라? 아버지는 '나의 아버지'라는 말인데? 이 이름은 뒤에 한 글자가 빠진 축약형이란단. 무슨 뜻을 지닌 무슨 글자가 빠졌을까?

‘여호와’를 뜻하는 ‘야’가 생략된 형태임: 여호와와 축약형인 ‘야’를 보충하면 모친의 이름은 ‘아비야’로 ‘여호와’는 나의 아버지란 뜻이다. 외조부인 ‘스가리야(스가랴)’는 사 8:2에 ‘진실한 증인’으로 나오는 스가랴와 동일인으로 추정된다. 진실한 증인이라고 불린 스가랴의 신앙인 외손자인 히스기야에게 영향을 준 모양이다.

3. 유다의 선한 왕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는 아주 악한 왕이었다. 그러니 자식에게 신앙을 제대로 전했을까? 없다. 그런데 어떻게 그 아들이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왕이 되었나?

아버지가 악하다고 아들이 반드시 악한 것만 닮으라는 법도 없다. 반대로 닮는(?) 경우도 있다. 선하든 악하든 남을 탓할 일이 아니다. 자신의 선택에 따른 것이다. 부모를 탓하지 말라. 환경을 탓하지도 말라. 이사가 가장 많이 접촉한 왕이 아하스였던 점을 감안하면 히스기야가 이사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사 7장, 왕하 19:2, 참조). 비싼 돈 들여서 과외 공부시켰더니 정작 배우라는 형은 제대로 안 배웠는데 옆에 있던 동생이 제대로 배우는 경우가 더러 있다. 선지자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사람은 안 듣고 옆에 있던 사람이 더 잘 듣고 배운 셈이다. 그 외에도 북이스라엘의 멸망에서 교훈을 받았을 것이다.

4. 출애굽 당시, 광야에서 불땀에 물려 많은 사람이 죽어갈 때 뿔뿔을 만들어서 장대 끝에 매달아 놓고 쳐다보면 나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민 21:4-9). 미신 아냐? 나무에 달린 예수의 상징이다. ‘그런다고 낫겠느냐?’면서 말을 듣지 않았던 사람들은 죽었다. 쳐다보고 살았던 사람은 그 후에 이 뿔뿔을 어떻게 했을까?

뿔뿔 자체를 신성시하게 된다: 그러면 미신이 되고 우상숭배가 된다. 성인, 성물 숭배가 빛을 볼 수 있는 위험이 이런 것이다. 그래서 어떤 훌륭한 목사님들은 자신의 무덤에 비석조차 세우지 말라고 당부했다. 자신의 행적에 대한 이야기조차 하지 않으려고 애를 썼다. 그런 것들은 그저 ‘느후스단’(영험있는 신이 아닌 뿔뿔)일 뿐이다. 중요한 것은 그 뿔뿔이 의미하는 나무에 달린 예수이다. 예수를 상징하며 죽은 자를 살려내었던 뿔뿔이 척결되어야 할 우상이 되었다.

5. 히스기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성공했다. 간단하게 요약하면 무엇에 성공하였는가?

종교개혁과 블레셋 정복

6. 히스기야는 어떤 왕이었는가? 간단하게 정리하면?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그의 계명을 지킨 왕(6): 나머지는 그 결과일 뿐이다. 위대한 왕으로 위대한 사역을 남겼지만 부수적인 일이다.

7. 앗수르를 배척하면서 왜 반대쪽에 있는 블레셋을 쳤을까?

블레셋과 앗수르가 한 패니까: 당시에 블레셋은 앗수르의 속국이었다고 한다. 따라서 블레셋을 친 것이 바로 앗수르를 배척하는 것과 동일한 현상이다. 더구나 가사는 블레셋의 가장 남쪽 성읍이다. 블레셋 전체를 점령했다는 말인데 전례가 없던 일이다. 다윗 솔로몬 시대에도 블레셋은 건재했었는데... ‘당대에서부터 권고한 성까지’란 작은 마을에서 큰 마을까지, 즉 전국을 정복했다는 뜻이다.

8. 이스라엘 왕 호세아와 유다 왕 웃시야는 공히 앗수르 왕을 배척했는데 결과는 왜 다른가?

정책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이다.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때 나라가 튼튼히 섰다(대하 32:27-30). 하나님 없이 외교정책에 치중한 것이 호세아의 실책이지만 호세아만의 문제는 아니다(12).

9. 히스기야 이야기 중에 이미 다 알고 있는 호세아 이야기(17장)는 왜 꺼내나?

히스기야의 위대함을 드러내기 위한 대조적인 배경이다. 호세아는 속이 많이 아프겠다.

10. 잘 나가던 히스기야가 왜 이렇게 무력한가(13-16)?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니? 이전의 일은 요행수인가? 역설적으로 답사계의 말에서 그 원인을 찾는다면?

아마도 애굽을 의뢰할 일 것(19-21): 도대체 무엇을 믿고 파부느냐면서 하나님을 먼저 내세우지 않은 것을 보면 아무래도 하나님보다는 애굽을 의지하려 했던 것 같다(참조, 사 8:12-15, 30:1-7, 31:1-3). 하나님을 믿고 용기를 낸 사람이 도중에 마음을 바꾸면 아무 것도 남는 것이 없다. 히스기야가 잠시 정신이 홀렸던 모양이다. 당시의 시대적 흐름이 애굽을 의뢰하는 것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사가 외친 말씀은 하나님을 의뢰하라는 것이었다. 하나님을 의뢰하고 시작한 사람은 끝까지 하나님만 의뢰해야 한다.

11. 아무리 다급해도 그렇지 성전 문의 금마저 벗겨서 주어야 했을까?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이라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인데 아무래도 히스기야가 잠시 정신이 나갔던 모양이다. 하나님께서 많은 복을 주셨음에도 세상 재미에 취했다가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들처럼!

12. 받을 것을 다 받고도 철수하지 않고 다시 예루살렘을 치는 것은 약속위반 아닌가?

논란이 있기는 하지만 17절은 다른 전쟁이라는 것이 설득력이 있다.

<참고: 산헤립의 침공이 두 번(13-16과 17이하)이라고 생각하는 이유>

1) 산헤립의 실록에 의하면 그가 지중해 연안의 대부분의 도시를 함락하였고, 유다 지역에 46개의 요새와 도시들을 정복하고 약 200,150 명을 포로로 잡아 왔다고 한다. 예루살렘을 에워싸서 히스기야를 새장의 새같이 가두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군사 185,000을 잃어버리고 돌아와서 이런 기록을 남기지는 않았을 것이다. 아마도 BC 701에 큰 전과를 올리고 돌아갔다가 다시 2차 원정에 나섰다가 실패하고 돌아와서 암살당했을 가능성이 크다.

2) 항복하고 공물을 바친 히스기야에게 또 항복하라고 한다는 것은 이상하다. 비굴하게 항복했던 히스기야가 17절 이하에서는 담대하게 산헤립과 싸운다. 후자는 아무래도 다른 이야기다.

3) 산헤립은 BC 681년에 죽는다. 히스기야와 싸운 것은 BC 701년이다. 전쟁의 결과로 죽었다고 하는 성경의 기록과 20년 차이가 있다. 더구나 산헤립의 기록은 통치 초기 15년간은 매년 한 군씩 업적을 남기고 있는 반면에 마지막 8년 간(BC 689-681)은 아무런 기록이 없다. 전쟁을 그토록 좋아했던 산헤립이 8년 동안 아무 일도 없었다는 것은 예루살렘에서 치명타를 입은 탓 아닐까?

4) 산헤립은 예루살렘을 3년간 에워싸고 있었다(사 37:31). 그러나 앗수르의 기록에는 BC 701년에 승리하고 돌아가서 BC 700년에 바벨론의 잔당(므로다 발라단)을 소탕하는 작전을 벌였다. 3년간 에워싸고 있던 것은 다른 전쟁이란 뜻이다.

5) 산헤립이 실패하고 돌아가서 죽는다면 히스기야의 병을 낫게 하고 앗수르에서 견제내겠다는 약속은 이상한 일이다.

6) 산헤립이 주전부대를 라기스에 두고 랍사게만 예루살렘으로 보낸 것은 뒤에서 올라올 애굽의 군대에 염려 때문이었다.

7) 디르하가는 산헤립의 침공이 있던 BC 701년에는 겨우 9세였다. BC 689년에 애굽의 왕위에 올라 형과 공동 통치를 시작했다. 이 해는 산헤립의 기록이 입을 다문 해이기도 하다.

8) 만약 산헤립이 한번만 침공하였다면 히스기야의 병은 산헤립의 침입 직전이든지 예루살렘이 포위당해 있을 때 생겼다. 그래야 그 성을 앗수르로부터 보호하겠다는 6절의 약속이 말이 된다. 그런 상태에 하나님께서 죽을병을 주셨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13. 랍사게가 유다의 대신들에게 한 말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보자. 그 중에 어느 말이 듣기에 가장 아플까?

1) 19-20: 뭘 믿고 까부느냐? 입만 살아가지고!

2) 21: 애굽을 의뢰하지 말라. 상한 갈대 지팡이는 오히려 사람을 상하게 하는 법이다.

3) 22: 하나님의 산당과 제단을 히스기야가 축소시키지 않았느냐? 이방인의 시각에서는 예루살렘에서만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이 신을 모독하는 것으로 보였던 모양이다.

4) 23-24: 말을 준대도 탈 사람이 있겠느냐? 강남의 아파트를 거저 준대도 유지비라도 있겠느냐?

5) 25: 이것도 하나님의 뜻 아니겠느냐? 여호와께서 내게 그랬다고? 겁이 없구만! 그래도 이 말이 가장 듣기에 거북했을 것이다. 교회가, 성도가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 이런 말을 듣게 된다. 이 말이 거북하다면 그래도 희망이 있다.

14. 옛날 전쟁은 그래도 운치있는 전쟁이다. 어떤 점이 그런가?

백성들이 못 알아듣게 아람 방언으로 말해다오! 왕의 체면은 세워다오! 이런 부탁을 들어주지 않는 랍사게는 고약한 놈이다.....?!

15. 두 번째 랍사게의 말 중에 27절과 31-32절은 내용이 많이 달라 보인다. 왜 그럴까?

27절은 대신들에게 공갈치는 말이고, 31-32절은 백성들에게 유화책을 쓰는 것이다.

16. 두 번째 랍사게의 말도 간단하게 정리해 보자.

1)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2) 항복하면 잘 먹고 잘 살게 된다: 원문에는 '항복하라'는 말 대신에 '평화를 누리자'는 표현을 썼다.

3) 앗수르 왕보다 더 강한 신은 없다.

17. 랍사게가 하는 다음 말은 아주 그럴 듯하다. '내게로 나아오라 그리하고 너희는 각각 그 포도와 무화과를 먹고 또한 각각 자기의 우물의 물을 마시라 내가 장차 와서 너희를 한 지방으로 옮기리니 그곳은 너희 본토와 같은 지방 곧 곡식과 포도주가 있는 지방이요 떡과 포도원이 있는 지방이요 기름나는 감람과 꿀이 있는 지방이라 너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316-32) 이 말을 듣는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는 것이 정상인가?

항복하면 잘 먹고 잘 살겠구나: 이곤 바보다.

죽지는 않겠구나: 정상이다.

다른 지방으로 끌려가겠구나: 말귀를 알아듣는, 눈치 빠른 사람이다.

랍사게가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입장을 미화하여 항복하라고 백성들을 유혹하는 말이다.

18. 잘 모르는 지명(하맛, 아르밧, 스발와임, 헤나, 아와, 사마리아)이 많이 나온다. 모르는 지명이지만 공통점이 있다면?

앗수르에게 점령당한 곳: 이 지역의 신들이 다 앗수르 신 앞에 굴복했으니 여호와인을 별 수 있겠느냐는 말이다. 이런 앗수르인들을 가리켜 이사야는 '간 큰 도끼'라고 말했다(사 10:15).

19. 랍사게가 하는 큰 소리(33-35)가 자기로서는 일리가 있다. 그러나 우리가 보기에는 '그들(신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는 말은 옳지 않다. 어떤 반론이 있을 수 있는가?

사마리아의 멸망은 앗수르의 위대함 때문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범죄함 때문이다(17:7-8). 다른 나라는 몰라도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해서 자기가 위대하기 때문이라는 말은 취소해야 한다. 그것 때문에 앗수르는 반드시 징계를 받게 된다(사 10:5-19).

20. 역사적으로 보면 한동안 히스기야가 번영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앗수르의 내부사정 탓이다. 내정이 안정되자 침략을 감행했고 주변의 여러나라와 마찬가지로 유다는 엄청난 재난을 당했다. 그런데 이것을 성경은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의지하였기에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으며(1-8), 애굽을 의지하는 바람에 앗수르에게 당하였다고 한다. 어느 말이 맞는 걸까?

둘 다 맞다: 역사적인 모습이 표면적인 것이라면 성경적인 설명은 내면적인 것이다. 우리 눈에 보이는 역사적인 현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간섭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이다.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느냐에 따라 역사마저 변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19장의 사건이 이것을 증명하는 셈이다. 당시 산헤립의 대원정으로 팔레스타인 전역이 점령당했다. 예루살렘만 제외하고.

먼려(勉勵): 스스로 힘써, 남을 힘쓰게 함

열왕기하 19 장

1. 옷을 왜 찢는가? 굵은 베옷은 어떤 옷인가?

옷을 찢는 것은 자신의 몸을 찢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다. 그만큼 애통하고...

거치른 옷이다. 산양(염소)의 털로 짠 것이며 검은 색이다. 가는 세마포는 반대로 부드럽고, 고급이다. 옷감을 가리키는 말로 80수, 혹은 100수라고 한다. 실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가는 털이 몇 가닥 들어갔느냐를 가리키는 말로 80수라면 80가닥을 모아서 실 한 올을 만들었다는 말이다. 수가 클수록 고급이고 부드럽다.

2. 외적의 침입을 대비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왕하 3장의 솔로몬, 15:17-26의 므나헴, 16장의 아하스, 18:13-16의 히스기야, 23장의 여호야김, 24장의 시드기야를 보면서 생각해 보자.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서 지혜롭게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외적의 침입을 예방하는 것으로 최상이다. 일단 침략을 당했을 때 뇌물을 쓰든지 다른 외세를 끌어들이는 것은 또 다른 위험이 있는 것이다. 지혜롭지 못하여 어려운 경우를 당했다라도 하나님께 앞드리는 것이 최상이다. 어려움이 있을 때에 선지자를 찾는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찾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이것은 서광이 비칠 징조이다. 가정도 마찬가지이다. 정말 하나님께 매어 달려라. 부부 싸움을 하고 난 후에도 하나님을 찾으라.

3. 다음 중에서 누가 제일 높은가? 누가 제일 중요한 사람인가?

< 히스기야왕, 제사장 중 장로, 선지자 이사야 >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높고 낮음을 따질 일이 아니다. 서로 협력해서 나라를 잘 다스려 나가야 할 사람들이다. 어느 한 쪽이 높아져서도 안 된다. 권력이란 측면에서 보면 히스기야 왕,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비상시국이라서). 평소에는 백성들을 가르치고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 더 중요할 것이다. 위중한 병에 걸렸을 때는 말씀을 잘 가르치는 목사보다 치유의 은사가 있는 권사님이 더 낫다. 병이 나아도 그래서는 곤란하다!

4. 아이가 임신(해산이 임박)하였으나 해산할 힘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

수술이 필요하다! 때가 되면 저절로 태어나는 것 아닌가? 이런 소리 하다가는 잘 하면 마누라한테 맞아죽을 수도 있다. 자칫 잘못하면 둘 다 죽는다.

5. 히스기야가 이런 상황을 곤란, 책벌, 능욕이라고 표현하는 이유를 생각해 보자.

곤란: 적의 침입,

책벌: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

능욕: 자신들은 물론이고 하나님께서 모욕을 당함(4절)

6. 성경에는 '사신'이란 표현이 무척 많이 나온다. 몇 가지 뜻이 있을까? (참고, 왕하 19:4, 호 1:10, 삼상 15:23, 출 15:16, 행 20:28, 벧후 2:1, 수 9:4, 사 14:32, 시 106:37, 고전 15:16)

다섯 가지: 1) 살아계신 하나님(왕하 19:4, 호 1:10), 2) 악한 신(삼상 15:23=악한 신, 시 106:37), 3) 사신 백성(출 15:16, 행 20:28, 벧후 2:1), 4) 사신(수 9:4, 사 14:32), 5) 살아나신 (고전 15:16)

7.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처해서 히스기야가 기대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휘방하는 랍사게의 소리를 하나님께서 혹시라도 들으셨을 것(4) 히스기야의 기대는 신앙적인 면에서 보면 조금 실망스러워 보인다.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의 소리에 귀 기울이시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자들의 소리에 귀 기울이시지 않는다.

8.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전한 말에서 신앙인답지 못한 표현들을 지적한다면?

당신의 하나님, '혹시', '..못하니'(4) 신앙이 좋았던 히스기야도 이런 식으로 말하는가? 고대에는 왕과 선지자의 역할이 분리되어 있었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오늘 우리와 비교하면 많이 부족했으니 그렇다고 이해해 줄 여지가 있기는 하다. 오늘날에도 이런 사람은 전혀 신앙인이 아니다.

9. 이사야를 통한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이며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응답: 풍문을 듣고 돌아가게 하되 칼에 죽게 하리라(9절)

실제: 구스왕 디르하가가 온다는 소문에 라기스에서 일단 물러나서 돌아갔으면 좋았을 텐데 다시 버티다가 군사를 다 잃어버렸다. 적당한 선에서 돌아갔으면 좋았을 텐데, 끝까지 버티다가...

10. 구스 왕 디르하가는 애굽의 25대 왕조의 세 번째 왕으로 애굽의 왕들 중에서 가장 뛰어난 왕으로 꼽힌다. 당시의 애굽은 여러 소국으로 나뉘어져 있다가 구스에 의해서 대부분이 정복되었다. 그래서 이름은 출신지를 따서 구스 왕이지만 실제로는 이집트 왕이다. 앗수르 왕이 구스 왕 디르하가가 싸우러 온다는 말을 듣고 왜 히스기야에게 편지를 보냈을까?

'구스 왕에게 기대어 네가 끝까지 나와 붙어보겠다는 거지?' 구스 왕이 오는 것이 히스기야가 요청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라기스는 예루살렘 남서쪽 45km, 립나는 예루살렘 남서쪽 40km 떨어진 곳으로 라기스의 북쪽이다. 디르하가와 싸우려면 뒤쪽의 예루살렘의 항복을 먼저 받아야 했을 것이다. 산헤립이 립나에서 누구와 왜 싸운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11. 산헤립의 말(11-13)은 지금까지 자신이 정복해온 나라들을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서 하는 말이다. 틀린 말이 있는가(10-13)?

말이 틀리지는 않지만 그가 모르는 것이 있다. 열국을 정복하는 것은 제가 잘 나서 한 짓이라 해도 유다를 침공하는 것은 유다를 징계하시려는 하나님의 도구이지 제가 잘난 탓이 아니다. 자신이 도끼로 사용되고 있

음을 모른 채 도끼든 사람을 무시하는 우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사 10:15). 열국과 유다가 다르다는 것, 열국의 우상과 하나님이 다르다는 것을 산헤립이 알지 못했다! 지난번에는 돌아가서 자랑을 늘어놓았다. 산헤립의 비문에 '나의 골레에 복종하지 않은 유다 왕 히스기야.....를 새장의 새 같이 그의 수도 예루살렘에 가두었다' 물론 조공으로 받은 내용도 기록하였다. 금 30달란트, 은 800달란트, 보석, 상아, 궁녀... 이번 일로 돌아간 후에는 입을 굳게 다물었다.

12. 지난번에는 이사야에게 사람을 보내서 기도하라고 하더니 이번에는 왜 직접 편지를 들고 여호와와 전에 올라가서 직접 기도를 드렸을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그렇게 응답하실 줄 몰랐던 것 아닐까? 하나님께 매어달리는 것이 가장 확실함을 깨달았기 때문 아닐까? 히스기야가 처음부터 하나님께 매어달렸던 것은 아니다. 많은 공물을 주고 피하러 하다가 잘 되지 않았고 애굽을 의지하는 것도 현재로서는 별 소득이 없었으니...

13. 앗수르 왕의 편지 내용을 지난번 랍사게의 발언(18:19-25, 27-35)과 비교하면 어떤 차이가 있는가?

길이: 짧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만 비난함.

대상: 지난번에는 백성들을 대상으로 하더니 이번에는 히스기야만.

앗수르 왕이 철수할 모양이다. 다만, 그냥 가기는 열없어서 해보는 소리 아닐까? '저 자식이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으면 당연히 항복해야 할 건데...' 하면서.

14. 일본이 고대에 한반도에 식민지를 경영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참으로 가소로운 일이다. 경제적으로 대국이라고 하지만 그것은 극히 최근의 일이다. 역사를 훑어보면 일본은 오랫동안 한반도의 문화적 속국이었다. 그런 일본이 저렇게 큰소리를 치다니 나쁜 참! 본문에서 비슷한 현상을 찾는다면?

산헤립이 앗수르의 열왕들이 열방에 행한 일을 들어서 히스기야에게 항복을 요구하고 있다. 역사를 안다면 우스운 일이기도 하다. 이스라엘은 BC 1050에 나라를 세웠는데 히스기야 시대는 대략 BC700년 경이다. 앗수르가 강대국으로 등장한 것이 겨우 50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 최근에 디글랏빌레셀(아하스 시대), 살만에셀과 사르곤(사마리아 함락)이 등장했을 뿐이다. 큰 소리 더럽게 치고 있네!

15. 하나님을 모독하는 편지를 성전에 들고 들어오면 되나?

하나님을 작극(?)하려는 의도인데 어쨌거나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합니다'라는 뜻이니 하나님께서도 가상히 여기지 않으실까? 규정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다.

16. 히스기야의 기도가 어떤 점에서 훌륭한 기도인가?

하나님 중심 기도: 자신의 필요가 있어서 하는 기도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셔야 할 이유가 더 정당하게 표현된 기도이다. 그 기도가 이루어지면 자신들이 살아나는 것이면서도 그것은 접어두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남을 강조하고 있다. 약은 건가? 지혜로운 건가?

17. 히스기야의 말에 의하면 하나님과 앗수르 왕이 말하는 신은 어떤 차이인가?

유일하신 하나님과 신이 아닌 나무와 돌.

18. 누가 이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 했단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 응답하신 말씀(20-28)을 이런 식으로 요약해 보자.

들었노라, 보았노라(아노라, 27절), 혼내겠노라.

19. '쳐녀 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너를 비웃었으며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니라'(21) 언제 그랬지?

앞으로 확실히 그릴 것이라는 예언이다: 히브리 어법에 확실한 미래는 과거형으로 쓴다.

20. 왜 이스라엘을 쳐녀 딸이라고 할까?

앗수르의 왕 산헤립의 범죄가 흉악함을 간접으로 지적하는 셈이다: 순결한 처녀를 짓밟은 것이 얼마나 끔찍한 범죄냐는 말이다.

21. 작은 따옴표(')를 사용해야 할 곳을 지적한다면?

23절의 '내가'에서 24절의 '말렸노라'까지: 앗수르 왕의 말을 인용한 것으로.

22. 25절의 '이 일'은 무엇을 가리키는가?

잠게는 앗수르 왕이 말하는 각 나라에 대한 정복이지만 넓게 보면 각 나라의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손에 달린 것을 뜻한다: 앗수르가 번성하여 많은 나라를 정복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징계의 수단으로 앗수르를 사용한 것뿐임을 알라는 것이다.

23. 들의 풀, 나물, 지붕의 풀, 자라기 전에 마른 곡초는 무엇을 가리키는가?

앗수르가 멸망시킨 나라들: 교고한 성이 풀무더기가 된 나라들의 허약함, 수명이 짧음을 표현함이다.

24. 아무리 적국의 왕이지만 하나님께서 사람을 '갈고리로 코에 꿰고 자갈을 입에 먹여 끌고' 갈까(28)?

앗수르 왕들이 하던 짓이다. 사로잡은 왕들을 이런 식으로 끌고 간 그림이 앗수르 왕들의 비석에 남아 있다. 못된 짓을 하는 놈들에게는 이렇게 말하지 않으면 제대로 말을 알아듣지 못한다.

25. 징조치고는 어떤 점이 이상한가?

지나고 나야 징조인 것을 아는 점: 대부분의 하나님의 뜻은 지나고 봐야 안다(출 3:12).

26. 앗수르 군대가 물러가고도 정상적인 농경생활이 몇 년 만에 이루어지는가?

3년 만에: 앓수르 군대와 싸우느라고 토지가 황폐해지고 백성들도 잡혀가거나 죽었기 때문 아닐까(30절의 피하고 남은 자)?

27. 이사야서에서 남은 자 사상은 대단히 중요하다. 남은 자를 통해서 다시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을 것이라고 한다. 그만큼 이스라엘의 뿌리가 깊고 질기다는 말인가?

여호와와 열심이 이를 이룰 것(31): 원인이 이스라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다. 홍수 심판으로 끝내지 않고 구속사를 이어가는 것이나, 이스라엘이 그렇게 범죄하여 깨끗이 버려져야 했을 것 같은데도 계속 이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일을 이루시려는 의지 때문이다.

28.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것은 이스라엘에게 그만큼 투자가치가 있기 때문일까?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34): 이스라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그리하신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다(시 23:3). 다윗을 위한다는 것은 다윗에게 하신 언약을 이루려고 하신다는 뜻으로 결국은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라는 말과 같은 뜻이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원인이 있다면 이 일은 벌써 취소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에게 근거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부족함에도 구속의 역사는 계속된다.

29. 산헤립이 돌아가서 바로 죽은 것은 아닌데도 다시는 이스라엘을 칠 생각을 하지 않은 것은 너무 혼이 났기 때문일 것이다. 바로 죽은 것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는 어느 단어인가? 훗날 그의 뒤를 이은 에살하돈이 다시 유다를 점령하고 므낫세를 사로잡아 끌고 간다.

(니느웨에) 거하더니(36): 거하더의 원어는 '야좌브'인데 장기간 사는 것을 말한다.

30. 어떻게 하루 밤에 185,000의 군사가 다 죽을 수 있나?

구체적인 이유는 알 수 없다. 애굽의 장자를 선별해서 다 죽일 수 있는 분이라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있다.

31. 사 37:38절을 보면 산헤립을 죽인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은 그의 아들이다. 다음 왕인 에살하돈도 아들이다. 도대체 무슨 애기가?

아들들이 극심한 후계자 쟁탈전을 벌였다는 말이다. 참혹한 일이다. 7, 21-22절의 성취다.

32. 에살하돈은 산헤립의 막내아들이다. 앓수르의 기록에는 산헤립의 아들 명단에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없다. 본국에도 없는 기록이 성경에 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흔히 국외숙거기록에서 삭제하듯이 앓수르에서는 이 두 아들의 이름을 삭제했을 것이 틀림없다. 이스라엘에서는 삭제할 이유가 없다. 열왕기의 기록이 명백한 사실의 기록이라는 좋은 증거이다.

열왕기하 20 장

1. 하나님께서 죽을 사람에게 죽는다고 미리 통보해주는 법도 있는가?

없다: 히스기야에게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은 그만큼 특별한 경우이었다는 말이다. 히스기야가 그런 은혜를 받은 만한 일이 있었을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럴 필요를 느끼셨다는 말인가? 미리 귀뜸을 하고는 히스기야의 기도와 눈물을 보시고 즉각적으로 응답하시는 것은 그렇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것 같다. 하나님께서 기도하시게 하면 즉시 엎드리자.

2. 죽는다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하고 감사하지 올기는 왜 우나? 18:2, 18:13, 20:6, 21:1을 참고해서 생각해 보자.

나라가 어려운 때이므로 나라가 염려스러워? 후사가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도 가능한 답이 되겠지만 문제가 있다. 산헤립이 침공한 때가 히스기야 14년(18:13)이었고 29년을 통치했으니 히스기야가 병이 난 것은 산헤립이 침공하던 해이다. 므낫세가 즉위할 때 12세였으니 므낫세는 히스기야의 병이 낫고 난 후에 태어났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문제는 므낫세의 즉위가 히스기야가 죽은 다음이 아니라는 점이다. 히스기야는 BC 715년에 위에 오르고 므낫세는 BC 696년에 즉위했다(히스기야 19년). 그리고 히스기야는 BC 686년까지 10년간 섭정을 했다. 그러면 므낫세는 히스기야 7년에 태어난 셈이다.

3. 우리는 기도할 때 눈을 감는데 히스기야는 왜 벽을 향하는가?

눈을 감는 것은 눈에 보이는 어떤 것에서 벗어나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기 위함이다. 낮을 벽으로 향했다는 것은 다른 모든 것을 물리친다는 뜻이다. 결국 하나님에게만 매어달리겠다는 점에서 동일한 현상으로 볼 수 있다.

4. 죽는다고 했던 하나님의 말씀이(2) 이런 식으로 달라진다면 하나님의 예정도 상황에 따라 바뀌는 것인가?

'하나님의 예정이 변한 것이냐?' 아니면 '그렇게 되도록 예정되어 있었느냐?'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문제다. 우리 소관이 아니란 말이다.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죽을 목숨이 연장될 수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속한 일이다(신 29:29 참조). 히스기야의 태도가 이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은 오늘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하나님의 예정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우리의 결단에 더 관심을 가지자. 하나님께서는 멸망시키려다가도 뜻을 돌이키신 적이 여러 번 있음을 기억하자.

5. 히스기야가 스스로 진실과 전심으로 행했다고 말하는 것은 큰 소리 아닌가?

우리가 보기에 히스기야는 부족한 점이 적지 않았지만 자기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한 모양이다. 우리도 하나님을 위해서 노력하고 살면서 그렇게 노력했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날마다 죄만 짓다가 주일이 되면 예배에 참석해서 올가만 하고...' 이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어서는 곤란하다.

6. 6절을 보면 히스기야가 병이 든 것은 앗수르 군대의 위협이 있을 때 있었던 일이다. 왜 그렇게 통곡을 했는지 이유를 알겠다. 히스기야에게 이런 위급한 때에 이런 특별한 은혜를 베푸는 것은 누구를 위협인가?

나(하나님), 다윗, 너(히스기야):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역사하시는 것이(시 23:3,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에게 가장 확실한 은혜가 된다. 역사의 주인공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동참함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우리의 역사가 되는 행복을 누리는 것이다.

7. '내가 네 날을 십 오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앗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하므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고 하시는 것을 보면 어떤 느낌이 드는가?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신 것이 히스기야만의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 편에도 그럴 이유가 있었던 것 같다.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히스기야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고 그것을 근거로 과분한 은혜(15년이나 생명을 연장)를 베푸신다.

8. 무화와 반죽이면 될 것을 가지고? 병에 대해서 무식한 탓 아닌가?

무화와 반죽의 위력이 아니다. 예수께서 소경을 고치실 때 진흙을 이겨 바르시고 고치신 것과 유사하다. 아마 비슷한 병이 다시 들면 무화와 반죽이 효험이 없을 걸... 그런 상징적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체험케 함이다. 대하 32:24에 이 행위를 이적이라고 말한다. 고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안수를 하거나 능력을 행하는 것같은 행동을 하는 것은 사람이다. 이런 사람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를 좋아하신다.

9.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겠다면 군소리 하지 말고 '아멘'해야지, 무슨 이유가 그리 많고 3일만 지나면 알 텐데 무슨 징조가 또 필요한가?

글쎄 말이다. 그럼에도 그의 요구에 일일이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감사할 뿐이다. 희미한 신앙보다는 확실하게 달려드는 자세를 하나님께서 멸시하지 않으셨다(기드온과 아합스가 대비된 것처럼).

10. 해 그림자가 뒤로 물러간다? 실제 일이라면 엄청난 일인데? 자전하는 지구가 역회전한다는 말인가? 그렇다면 세상이 뒤집어질 일인데?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일이다. 다만, 이 때 일로 인하여 지구 자전궤도에서 40분 정도(태양은 1시간에 15도 나아간다. 24시간에 360도 회전하니까) 지체된 것을 천문학자들이 발견했다는 보고가 있었다는데 이걸 아무래도 심하다. 왜?

여기서 10도란 말은 10칸이란 말이다. 아하스의 일영표의 10칸이 오늘날의 10도와 동일하다고 말할 수 없다. 가령, 낮을 12등분 했을 때의 10칸이라면 자그마치 150도(10시간)에 해당한다.

11. 해 그림자가 뒤로 10도나 물러가는 기적을 보여주시는 이유는?

히스기야의 병이 나을 것을 확신케 하기 위해서? 그것보다는 ‘여호와와 말씀이 확실하게 응할 것에 대한 보증’(9)이라고 말하는 것이 좋겠다. 구체적으로는 히스기야의 병고침보다는 ‘예루살렘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해야겠다(66, 19:34). 이전 산헤립의 침공 때 성전의 금마져 다 벗겨 주었던 나약한 모습을 보이지 말라는 경고이기도 하다.

12. 하나님께 징조를 구할 때는 확률이 높은 쪽으로 해야 하나 낮은 쪽으로 해야 하나?

당연히 확률이 낮은 쪽으로 해야 한다. 기도할 때는 어느 쪽으로 해야 하나? 우리는 가능성이 있어보여야 기도하는 경향이 있는데? 가능성 여부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살피는 것이 우선이다. 가능성이 아무리 높아보여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기도해도 소용없다. 가능성이 없어보여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해야 한다.

13. 앗수르는 위험 세력이고, 바벨론은 우호 세력이다. 히스기야가 바벨론의 사절단에게 잘못된 것이 무엇인가? ‘보물을 보여준 것’은 초등학교 아이들의 맞은 답이고...

일종의 교만이다. 히스기야 시대에 영광을 누렸더라도(대하 32:22-23, 27-31)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했다. 돈 있다고 티내지 말고, 아는 게 좀 있다고 티내지 말자.

14. 바벨론은 후일에 유다를 멸망시키는 나라이다.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강대국이 뿔하러 이 작은 나라에 사절단까지 보냈을까?

바벨론이 후일에 강대국이 되지만 현재로서는 힘없는, 앗수르의 속국이기 때문이다. 히스기야가 거트름을 피워도 될 만큼 약한 나라이다. 바벨론 왕 부로닥발라단(므로닥발라단 사 39:1)은 BC 722년에 앗수르에 반란을 일으켜 바벨론을 통치하다가 사르곤에 의해 쫓겨났다가 다시 회복했으나 산헤립에게 또 추방당했다. BC 702년에 엘람에 근거지를 정하고 앗수르에 대항하고 있었다. 이 때 히스기야의 병 나은 소식을 듣고 앗수르에 대항하기 위한 군사동맹을 목적으로 사절단을 보냈을 것이다.

15. 왕하 18:15-16절에 의하면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와 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여호와와 전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앗수르 왕에게 주었더라’고 했는데 웬 보물이 이렇게 많이 있나?

히스기야가 실제로 앗수르 왕에게 준 것은 은 삼백 달란트와 금 삼십 달란트였다(왕하 18:14). 그것은 산헤립이 요구한 것이었는데 자진해서 더 주었을 리가 없다. 그렇다면 바로 위의 왕하 18:15-16은 기만술책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진짜 보물은 숨겨두고 이렇게까지 끌어모아서 바치는 것처럼 위장했을 것이다. 다음 번에 앗수르에 악착같이 대항하는 모습도 이럴 가능성을 지지한다고 하겠다.

16. 이사야가 히스기야를 찾아온 것은 책망하기 위함이다. ‘이 사람들이 어디서 왔느냐?’고 묻는 것도 책망받을 대답을 듣기 위함인데 히스기야의 대답 ‘먼 지방에서 왔나이다’라는 말이 어떻게 책망이 대상이 될까?

가장 먼 바벨론에서 왔다는 자부심이 담고 말이었을 것이다.

17. 유다가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 잡혀가는 것이 결국은 히스기야의 잘못 때문이네?

전체적으로 유다 역사를 보면 그 일이 히스기야 때문이 아니라 민족적인 범죄행위 때문이다. 히스기야의 교만이 일조했음은 틀림없지만 전적으로 이 일 때문만은 아니다.

18. 끔찍한 선고에 기꺼이 순응하는 히스기야의 모습은 다윗의 어떤 모습을 연상시키는가? 아마도 이런 점 때문에 그의 생전에는 태평과 진실이 있었을 것이다.

나단 선지자의 지적에 바로 회개하는 다윗: 엘리도 그랬고, 다른 선지자들도 그랬던 것 같은데?

히스기야의 업적 중에 독특한 것이 못과 수도이다. 지금도 맑은 샘물이 흐른다. 암벽을 뚫어 만든 좁은 터널을 허리에까지 잡아서 533m를 걸으면 30분 정도 걸린다.

처치: 일을 감당하여 치름, 처리하여 치우거나 없앴

열왕기하 21 장

1. 므낫세가 왕이 될 때에 12세이었다면 히스기야가 병이 들었을 때 통곡하며 하나님께 기도를 올린 이유 하나를 추측해 보자.

15년이 연장되었으므로 그 당시에는 아들이 없었다는 말이다. 적군의 침입이 예상되는 시점에 간신히 나라를 튼튼하게 세웠는데 후계자도 없이 죽는다면... 도저히 죽을 수 없는 상황이다. Thiele 박사의 연구에 의하면 히스기야가 10년 간 섭정을 했다고 한다. 앗수르와 바벨론의 연대기와 비교한 결과 그렇다고 한다(므낫세부터 예루살렘 멸망시까지 유대 왕들의 통치연수를 합치면 실제보다 10년이 더 길다). 그렇다면 히스기야가 병이 들었을 때 므낫세는 7살, 병이 낫고 5년 후에 12살(법적으로 성인)의 므낫세를 왕위에 올리고 자신은 10년간 섭정을 했다는 말이다. 아주 설득력이 있는 말이다.

2. 므낫세가 왜 이렇게 악한 왕이 되었을까? 본문에는 정답이 없다. 가능한 경우를 상상만 해보자.

너무나 신앙적이었던 아버지에 대한 반항 아닐까? 아버지가 자식을 너무 신앙적으로 키우려는 것이 때로는 부작용을 일으키기도 한다.

혹은, 너무 어려서 왕이 된 것과 왕 노릇을 너무 오래한 것 때문 아닐까?

히스기야 시대에 사마리아는 망해버렸지만 예루살렘은 크게 번성하였다. 그런 가운데서 자라난 므낫세는 아버지 덕분에 간신히 되찾은 평화를 자기 탓으로 착각하고...

초강대국 앗수르에 대한 두려움을 하나님보다는 온갖 신들을 다 동원해서 벗어나려고 하지는 않았을까? 모든 신을 다 섬기려고 했던 것 같다.

이런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뜻일뿐 정답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3. 므낫세의 악행 중에서 다른 유대 왕보다 유독 악한 점이 있다면 두 가지를 지적해 보자.

아합 왕의 소위를 본받은 것(3)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본받은 것이나 혈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운 것이 곧 아합 왕의 소위이다. 아합 왕은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이다. 하필이면 남의 집안의 가장 못된 왕의 소위를 본받은 것이 무엇인가? 자기 집안의 가장 못된 놈 본을 봐도 시원찮을 판인데... 유대 왕 중에 아합 가문의 아달라나 아하스(대하 28:2, 열왕기에는 기록이 없음)외에 바알을 숭배한 왕은 없었다.

여호와와의 전에 단들을 쌓고, 여호와와의 전 두 마당에 단들을 쌓고(4-5) 여호와와의 성전에 바알의 단을 세운 것을 말한다. 우상을 섬기던 다른 왕들도 이러지는 않았다. 다른 곳에 단을 쌓거나 다른 곳에서 우상을 섬겼지 하나님의 전에서 그러지는 않았다(왕하 16:11-14, 아하스가 한 번 그런 짓을 하기는 했지만 므낫세는 더 심했다).

부친 히스기야의 혈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운 일(3)이나,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한 것(물렉 숭배)도 그에 못지 않지만 특히 위의 두 가지는 심하다. 이런 악행으로 인해 유대 멸망의 핵심인물로 지목된다.

4. '내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멍이에 도로 누웠다'(벤후 2:22)는 속담에 어울리는 므낫세의 행위는 무엇인가?

부친 히스기야의 혈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운 일(3)

5. 산당을 다시 세우는 것,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것 외에도 므낫세가 저지른 악행(5-6)을 신 18:10-11 (레 18:21, 19:26, 19:31)과 비교해서 평가한다면?

하지 말라고 한 짓만 골라가면서 하는구나! 하나님의 명령을 모르고 잘못하는 것이 아니라 알고 고의적으로 반항하는 듯하다.

6. 하나님께서는 '이 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 지라'고 하셨는데 므낫세는 뭐라고 답한 셈인가?

이래도 영원히 두신단 말입니까? 여호와와의 전에 단들을 쌓고, 여호와와의 전 두 마당에 단들을 쌓아도? 정말 못된 놈이다. '용서하신다구요? 이래도 용서한다는 말이 나오니까?' 하면서 반항하는 놈과 같다.

7. 옛적에 여호와께서 '다시는 그 열조에게 준 땅에서 떠나 유리하지 않게 하리라'고 하셨다(7-8)는 말씀을 새삼스럽게 인용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 약속의 전제조건(8a)이 무너졌으므로 더 이상이 효력이 없음(9)을 말하려고.

8. '내가 이제 재앙을 내리리라' 해도 므낫세는 별로 겁을 내지 않는다. 뭐라고 했을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55년) 왕 노릇 했겠냐? 므낫세에게는 죽기 전에 아무 일도 없었다. 예루살렘은 므낫세 사후 약 60년이 지나서 망하고 만다. 아무리 못된 짓을 해도 아무 일이 없다? 미움보다 무관심이 더 큰 불행이라는 것을 므낫세가 알거나 할까?

9. 하나님께서 줄과 추를 들고 계시면 그 다음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

줄은 땅을 측량하는 도구다. 줄로 재고 척량하여 기존건물을 파괴하고 땅을 파고 새로운 집을 짓는다. 추는 수평을 재는 도구다. 만약 수평이 아니라면 팔아내든지, 허물어버린다. 결국 예루살렘이 사마리아와 아합의 집처럼 될 것이라는 말이다. 아합의 집은 예후의 의해서 멸절되었고, 사마리아는 앗수르에 망했다.

10. 그릇을 씻어 얹으면 깨끗하겠단 그지? 다음 식사 때 잘 사용하고?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일반적으로는 다음에 사용하기 위한 준비일 수도 있으나 여기서는 더 이상 사용하지 않고 내용물을 다 없앤다는 뜻이다. 유다는 그릇이 아니라 그릇의 내용물이다. 예루살렘을 씻어버릴 것이다. 그 다음의 14절과 동일한 의미이다.

11. 남은 자를 버림? 이사야에 따르면 반드시 남은 자를 구원하리라고 하셨는데 왜 여기서는 남은 자를 버린

다고 하는가?

이사야의 남은 자와 여기 남은 자는 다르다: 이사야가 말하는 것은 남쪽 유다마저 잡혀가도 일부를 남기겠다는 말이고, 여기서는 북이스라엘이 잡혀가고 남은 자, 즉 유다를 가리키는 말이다. 남은 자 사상과 관계없다.

12.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던 때부터 지금까지 악을 행하였다고 한다. 정말 그랬을까? 밥에 돌이 한두 개 나오는 걸 보고 온통 돌 뿐이라고 투정부리는 꼴 아닌가?

선하기보다는 악한 경우가 훨씬 많았다. 문자 그대로다. 하나님께서 엄청난 인내로 참아 주셨기에 망정이지... 같은 현상이 창 8:21절 후반부 아닐까? ‘... 사람의 마음의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13. 유대인의 전승에 의하면 이사야는 므낫세의 명에 의하여 톱에 끼여 죽었다고 한다(히 11:37). 므낫세의 이런 범죄를 가리키는 말이 어디에 있는가?

16절 후반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유다로 범하게 한 죄’는 29절의 범죄를 가리킨다. 그 외에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렸다(16)는 것은 아마 종교적인 죄나 정치적인 죄로, 억울하게 많은 사람을 죽인 것으로 보인다.

14. 다른 악한 왕의 역대지략에 기록된 것과 므낫세의 것을 비교하면 차이점은?

‘범한 죄가 추가(유일한 기록)

15. 므낫세가 이렇게 악한 왕이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곱게 죽지? 왕 노릇도 오래 하고? 대하 33:10-13을 읽고 역대기와 열왕기의 차이점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

열왕기는 선지자가 ‘범죄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측면에서 기록하였으나 역대기는 제사장의 입장에서 ‘비록 범죄했지만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긍휼에 대한 기록’이다. 열왕기에는 범죄행위가 부각되지만 같은 이야기라도 역대기에는 좋은 면이 많이 서술되어 있다. 열왕기에는 생략해버린 일들이 역대기에서는 소중하게 취급되기도 한다. 므낫세가 회개한 일이 백성들에게는 별 의미없는 일이었을 수도 있다. (대하 33:10-13, 앗수르 왕이 바벨론으로 끌려간 것은 앗수르가 바벨론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유대인들의 분류에 따르면 열왕기는 선지서이지만 역대기는 성문서(음, 시편, 잠언...)이었다.

16. 아몬이란 이름은 이스라엘에 흔한 이름이 아니다. 오히려 애굽의 우상의 이름이었다. 아몬의 신복들이 왜 반역을 했는지 성경은 말하지 않는다. 다만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음을 강조함으로써 여호와와의 징계를 받았음을 암시할 뿐이다. 유다의 반역을 이스라엘의 반역과 비교할 때 가장 뚜렷한 차이는 무엇일까?

몇 번의 반역이 있었음에도 왕조는 변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더구나 요시야가 8살밖에 되지 않았다. 내면적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다윗의 위가 영원하리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이다. 표면적인 이유는 뭘까? 쿠데타를 성공시키고도 주동자가 왕이 되지 못하는 것은 어떤 경우일까? 백성들의 의식이 뚜렷하면 합부로 왕조를 바꾸지 못한다. 유다 백성들에게는 다윗왕조에 대한 의식이 강하고 있었음이 틀림없다.

17. 신복들이 반역하여 왕을 죽였는데 ‘그 국민이 왕을 반역한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 아들 요시야로 대신하여 왕을 삼았더라’는 것은 참으로 드문 일이다. 정치 지도자들의 잘못을 백성들이 바로잡기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럴 만큼 신복들이 대의명분을 제대로 세우지 못하고 일을 저질렀던 모양이다. 무슨 실수를 했을까?

신복들이 자기들의 개인적인 야욕에 근거해서 왕을 죽인 것은 틀림없다. 그렇더라도 대의명분은 하나님과 백성들을 위한 것이라고 둘러대야 하는 법인데 백성들이 보기에 그렇지 않았던 모양이다. 그래서 백성들이 어리지만 다윗의 혈통을 이어가는 8살짜리 요시야를 왕으로 세웠다.

열왕기하 22 장

1. 므낫세가 67세 죽었다. 그러면 아몬과 요시야는 각각 아버지가 몇 세 때 출생했는지 찾아보자.
므낫세가 67세에 죽을 때 아몬이 22세(21:19) 그러면 45에 아몬을 낳았다. 아몬이 24세에 죽을 때(21:19) 요시야가 8세면 아몬이 16세에 아들을 낳았다. 15세에 장가갔나?
2. 요시야 왕의 어머니 이름이 '여디다'란다. 어디선가 들은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솔로몬의 이름이 '여디디야'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자라는 뜻이다. 같은 이름의 여성형이란다. 좋은 이름인데 불행하게도 어떤 여자인지 알 수 없단다. 짐작컨대 어린 요시야의 후견인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3. 자녀가 정직히 행하는 것이나 악하게 행하는 것이 그 아버지의 행위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가?
일반적으로는 어느 정도 닮는다고 하는데 전혀 상관없는 경우도 적지 않다. 사울과 요나단, 다윗과 그 아들들(암논, 압살롬, 솔로몬), 히스기야와 므낫세, 므낫세와 요시야... ; 교육도 출신도 절대적인 요인이 되지 않는다.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리는 수밖에!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자. 결코 부모의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다.
4. 요시야에 대한 평가(2)는 아주 극찬이다. 여호사밋이나(대하 17:3) 히스기야(18:3)와 동등하다(후일에 유다의 3대 성군). 그렇게 훌륭한 왕이었으니 유다의 장래는 안심해도 되는 건가?
이미 므낫세로 말미암은 여호와와의 진노를 멈출 수는 없었다(17, 23:26)! 지연은 시켰다(20)!
5. 신약성경의 서기관은 아주 종교적인 사람들이다. 여기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원래 서기관은 궁정의 중요사건을 기록하던 관리였고 왕의 비서 역할이었다. 나라가 없어진 후대에 가서 율법을 가르치는 역할로 바뀌었다. 우리 식으로 말하면 선비였으니까. 글쓰는 재주를 가진 사람이 관직에서 물러나면 거의 대부분 후학을 가르치는 스승 노릇을 한 것과 비교하면 될 것이다.
6. 레위기나 신명기에 부정한 짐승으로 '사반'이 나온다. 서기관 사반의 이름과 같은 말일까 다른 말일까?
같은 말이다: 오소리, 너구리 종류인 모양이다. 부정한 짐승을 이름으로 삼다니?
7. 요시야가 그렇게 선한 왕으로 평가받았는데 18년째에 성전을 수리하도록 명했다는 것은 무엇인가 빠진 듯한 느낌이다. 요시야의 2차 종교개혁이 이렇게 해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말할 뿐, 그 이전에 행한 일은 생략되어 있다. 대하 34:3-7을 읽어보자.
8세에 등극하여 20세가 되던 통치 12년에 이미 한 차례 종교개혁이 있었다. 돈을 드려서 성전을 수리한 것도 아하스 때와 여기뿐이다. 요시야가 이렇게 종교개혁을 시도할 수 있었던 것은 당시의 국제정세와도 관련이 있다. 요시야 즉위 14년(BC 625)에 앓수르 제국의 앓술바니팔 왕이 죽으면서 앓수르가 쇠퇴하기 시작한다. 신 바벨론과 애굽이 세력을 키우던 때이다. 덕분에 앓수르의 간섭에서 벗어나 개혁에 매진할 수 있었다.
8. 여호와와의 전 수리가 몇 년 만인가? 솔로몬이 짓고 요아스가 수리하기 까지는 약 150년 정도 경과하였다. 그 이후 몇 년이나 지났을까?
약 200년: 이스라엘의 역사는 통일왕국 120년, 분열시대 253년, 이스라엘 멸망후 유다 136년이다. 솔로몬 이후 유다의 역사는 389년인 셈이다. 솔로몬이 즉위 4년에 전을 건축하기 시작하여 7년 만에 완공했으니 성전 건축 이후 유다의 역사는(솔로몬의 통치연한 40-4-7+389=) 418년이다. 요시야 왕도 유다가 멸망당하기 얼마 전의 왕이었던 점을 감안해서 대략 추정해보면 200년 정도라는 계산이 나온다. 그 사이에 악한 왕은 아하스와 므낫세 뿐인데 두 사람의 통치기간이 71년으로 적지 않다.
9. 당시에는 헌금을 누가 받았는가?
문지키는 자: 요즘식의 단순한 수위가 아니다. 현대인의 성경은 '성전출입구를 담당한 제사장'이라고 의역을 해두었다.
10. 저희 손에 붙인 은을 회계하지 않은 것이 옳은 일인가? (왕하 12장 참고)
그만큼 진실하게 일을 했다는 말이지 회계업무를 제대로 해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는 말이 아니다: 일을 맡기면 믿어야 한다. 믿지 못할 사람에게는 일을 맡기지 말고... 일하는 사람이 진실하다는 것은 그 윗사람이 진실하기 때문이다. 지도자가 진실하지 못하면 따르는 사람이 진실하기 어렵다. 정치권의 현금 배달 사고? 정치는 목표가 사람을 기르는 것이 아니니까 그렇다 치자! 교회마저 사람을 믿지 못하는 풍토가 쌓이는 것은 슬픈 일이다. 그렇다고 회계처리를 대충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다. 계산은 분명히 하는 것이 옳다.
11. 원래 율법책이란 성전에 있던 것 아닌가? 새삼스럽게 대제사장이 발견했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
율법(토라)책(세페르)이라고 번역된 말에서 율법을 가리키는 말은 '토라'이다. 여러 주장이 있지만 '토라'는 모세오경을 가리킨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원래 이것은 성전에 비치된 것이었는데 아마도 므낫세의 박해가 심하던 시절에 훼손을 막기 위해서 누군가가 숨겼을 것이다. 이런 것들은 꼭 공사할 때 나탄다.
12. 일을 맡으면 그 일을 다한 후에 반드시 시킨 사람에게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이것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복명(9, 20): 이걸 성경공부가 아니다. 실제로 결과를 보고하지 않거나 뒤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는 일들이 많아서 해본 소리다.
13. 율법의 말씀을 듣고 보인 요시야의 반응이 놀랍다. 제사장도 사반도 놀라기는 했겠지만 왕이 이렇게 은혜를 받다니?
어디를 읽느냐가 중요하다. 요시야가 들어서 놀랄 부분을 읽었으니 망정이지... 사반이 읽은 부분이 아무래도 범죄한 이스라엘에게 심판이 있을 것을 예고한 부분일 것이다(신 28:15-68, 레 26:16-19).
14.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그래서 물었더니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답변

은 무엇이며 그에 대한 요시야의 반응(23장에서)은 무엇인가?

심판이 지연되기는 하겠지만 피할 수 없다. 요시야의 종교개혁(왕하 23장)!

15. 이 시대에 활약했던 선지자는 예레미야나 스바냐가 있었다. 예레미야는 베냐민 땅 아나돗 출신(렘 1:1)으로 요즘 말로 촌사람이었다. 스바냐는 왕족 출신이다(슘 1:1). 홀다는 왕궁의 예복을 주관하는 살룸의 아내이었으니 중앙무대에서 활동한 대표적인 선지자이었던 모양이다. 그런데 우리는 왜 덜 유명한 예레미야나 스바냐를 더 잘 알까?

글을 남겨야 후대에 유명해진다. 글을 남긴다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이다. 위대한 일을 하고도 그것을 소개하는 글을 남기지 못하면 명성이 짧다.

16. 왕을 가리켜서 이런 식으로 말해도 되나?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고하기를...’

이런 어투가 선지자적인 어투일지도 모르겠다(1:6). 선지자가 왕의 신하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로서 구별된 존재임을 나타내기 위한 어투가 아닐까? 자신의 이기적인 권위를 내세우려는 사람이 보면 정말 반가워하겠

다.

17. 사반이 왕에게 읽어준 율법책의 내용이 무엇인지 짐작할 수 있는 구절은?

16절: ‘이곳과 그 거민에게 재앙을 내리는 것과 ‘유다 왕의 읽은 책의 모든 말’은 같은 내용이다. 그러므로 사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반했을 때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릴 것이라고 선언한 부분을 읽어주었다.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본문이 신 28:15-68과 레 26:16-19이다.

18.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진노하시는 이유를 세 가지로 정리해 보자(16절). 결국은 하나이지만.

1) 하나님을 버리고, 2) 우상을 섬기고, 3) 악을 행함(=손의 모든 소위) 하나님을 버리면 그 다음이야 자명한 길이다.

19. 요시야가 이렇게 선행에도 느닷없는 악함이 더 큰가? (23:26-27)

단순하게 그렇게 비교할 수 없다: 쉽게 마음을 돌이키시던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시지 않는 것은 그 동안 유다가 지은 죄가 너무나 컸기 때문이다. 단순히 느닷없는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유다에 대한 심판을 연기하기 시작한 것은 여호람(요람)왕 때부터이다(8:19).

20. 홀다는 답변을 두 번 한 것 같다. 16-17과 19-20은 각각 누구를 향한 답변인가?

16-17: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 = 유다의 대표자로서 왕을 가리키는 말이다. 그러니까 유다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말씀이다. 범위한 주체가 17절에서 보듯이 ‘이 백성’이다.

19-20: 너희를 보내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 = 개인으로서 왕을 가리키는 말이다. 대상이 ‘네, 너’ 이다. 비록 하나님께서 돌이키시지는 않지만 요시야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말이다(19:20에서도). 그래서 특별히 따로 개인적인 말씀을 하신 것이다.

21. 요시야는 평안히 묘실로 들어갈 것이라. 그러나 요시야는 전쟁터에서 죽었는데(23:29)?

늘어서 죽으리라는 뜻이라기보다는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꼴을 보거나 당하지는 않으리라는 뜻이다. 하나님의 노가 쏟아지는 장면을 보지 않으리라는 뜻이다. 완전하게 망하는 것은 시드기야 때이지만 실질적으로 망하는 것은 3년 뒤부터 시작된 셈이다(24:1-4)

시신(侍臣): 가까운 데서 왕을 모시는 신하(近臣)

열왕기하 23 장

1. 온 백성들 앞에서 요시야가 낭독한 하나님의 말씀을 요약한 것(3절)이 어느 성경의 내용과 가장 닮았는가?
신명기 6:4-9: 그래서 어떤 이는 요시야가 발견한 율법이 신명기였을 것이라고 한다. 그것도 요시야 직전에 써졌다고 하면서...

2. 요시야 이전에는 율법의 내용이 도대체 무엇인지도 몰랐다는 말인가? 말씀의 내용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무엇을, 왜,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모른 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부지기수다. 일반적인 우상을 섬기는 것은 그런 식으로도 가능한 일이다. 어차피 실존하지 않는 신이니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 자는 그럴 수 없다. 성경이 뭐라고 하는지 날마다 살피지 않으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없다.

3. 우상의 뿌리가 이렇게 깊은가? 이전에 우상을 파괴한 유다의 왕이 누구였더라? 아직도 파괴해야 할 우상이 남아 있나!

요아스: 이세벨의 딸로서 유대로 시집와서 왕자들(손자들)을 죽이고 권력을 찬탈한 아달라가 뿌린 우상을 제거하였다(왕하 11장).

히스기야: 부친 아하스가 세운 우상을 제거하였다(왕하 18장).

4. 요시야가 파괴한 것들의 목록은 다음과 같다. 어떤 느낌인가?

- 1)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일월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기명을 불사르고(4, 바알과 아세라 숭배 폐지)
- 2)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들과 해, 달, 별에게 분향하는 자들을 폐하고(5, 전체숭배 폐지)
- 3) 여호와와 전에 있던 아세라 상을 기드론 시내로 가져다가 불사르고(6)
- 4) 여호와와 전에 가운데 미동(=남창)의 집을 헐고(7)
- 5) 제사장이 분향하던 산당을 더럽게 하고 성문의 산당들을 헐어버렸고(8)
- 6) 산당의 제사장들은 예루살렘 여호와와 단에 올라가지 못하게 하고(9, 자숙시킴)
- 7) 또 힌놈의 아들 골짜기의 도벳을 더럽게 함(10, 물룩 숭배를 폐지함)
- 8) 태양을 위하여 드린 말들을 제하고 태양 수레를 불사르고(11, 태양 숭배 폐지)
- 9) 아하스의 다락 지붕에 세운 단들과 느밧세가 여호와와 전에 세운 단들을 헐고(12)
- 10) 예루살렘 앞 멸망산 우편 산당(아스다롯과 그모스와 밀곰의)을 더럽게 함(13)
- 11) 석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찢고 사람의 해골로 그곳에 채웠더라(14)
- 12) 여로보암이 벰엘에 세운 단과 산당을 헐고 불사르고 뿔아 가루를 만들며 아세라 목상을 불사름(15) 모실에서 해골을 취하여 단 위에 불살라 그 단을 더럽게 함(16) 벰엘 정화.
- 13) 사마리아의 각 성읍의 산당을 다 제하고 제사장들을 다 단 위에서 죽이고 사람의 해골을 단 위에 불사름(19-20, 유다 지역이 아닌 사마리아까지)
- 14) 신접한 자와 박수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함(24)

웬 놈의 우상이 이렇게도 많아? 이스라엘이 철저하게 부패했음을 알 수 있다. 요시야의 이런 개혁에도 유다의 멸망을 돌이키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결국은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향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온전히 준행한 임금'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는 평가를 받았다(25).

5. 우상을 섬기기 위한 기명들이 여호와와 전에 있었다(4)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하나님과 우상이 아예 구별이 안 되는 수준이었다는 말이다.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지 않으면 그럴 수밖에 없다! 하나님을 알기 전에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은 천지신명께 열심히 비는 것과 전혀 다를 바가 없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것과 기도는 병행하는 것이어야 한다.

여호와와 전에 아세라 목상을 세운 것은 느밧세였다(21:3, 4) 회개한 이후에는 제거했지만(대하 33:15) 그의 아들 아몬이 다시 세웠다(대하 33:22).

6. 우상을 위한 기명을 불사르고 재를 벰엘로 가져간 이유는?

벰엘이 우상숭배의 근거지였으므로 되돌려 주려는 의미가 있을까? 재를 되돌려 준다는 의미는 우상숭배가 끝났다는 의미 아닐까?

7. 한때 이스라엘은 가리키는 말은 '단에서 브엘세바까지'였다. 이 말이 어떻게 변했는가?

게바에서 브엘세바까지'로 축소되었다: 게바는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몇 마일 정도 떨어진 곳으로 벰엘과 인접한 베냐민 지파의 성읍이었다(수 21:17) 전국이 절반 정도로 쪼그라든 셈이다.

8. 미동의 집은 '여인이 아세라를 위하여 장막을 짜는 처소였더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율법에 따르면 뜰에 맞아 죽을 놈들이 거하는 집이다(신 23:17). 왜? (렐 16:15-19 참고)

남창이 거하는 집: 아세라를 섬기는 여사제와 음란을 행하기도 하고 남색을 하는 자들의 상대 역할도 했다. 요즈음 호스트바라는 게 있다는데...

9. 제사장이 여호와와 전에 올라가지 못하게 하는 것은 직위해제인 셈이다. 목사더러 설교할 자격을 빼앗아 버린 셈이다. 그러면 '그 형제 중에서 무교병을 먹게 하는 것'(9)은 무슨 의미인가?

생계만 보장해 주는 것 (렐 21:21-23): 먹고 살게는 해야지...

10. 여로보암이 산당을 두 군데(벰엘과 단) 세웠는데 요시야가 왜 벰엘 한 군데만 헐어버렸는가?

벰엘은 국경 너머에 있었지만 가파우니까: 북 이스라엘이 망하지 않았더라면 벰엘이나 단은 요시야의 통치

영역이 아니다. 이곳은 앗수르의 속국이 되어버렸지만 앗수르의 통치권이 제대로 미치지 않은 모양이다. 벨 열은 유다와 인접한 곳이기 때문에 요시야가 은근히 세력을 뻗친 모양이다. 좀 더 나아가 사마리아까지 통치 영역을 넓힌 모양이다(19-20).

11. '이 일을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였더니 그 전한 여호와와 말씀대로 되었더라'(16)는 말씀은 내용을 모르는 사람이 보면 무슨 말인지 알기 어렵다. 왕상 13장, 특히 2절의 예언을 보라. 그 선지자가 역을하게(?) 죽음으로 범죄한 이스라엘에 어떤 영향, 혹은 효과를 끼쳤는가?

여로보암의 제단조차 거절(왕상 13:7)하고 가던 선지자가 죽었다. 하나님의 말씀이긴 하지만 여로보암이 보기에는 사소한 잘못인데 그만한 일로 선지가 죽어야 했다면 여로보암 자신은 골백번 더 죽어도 싸다는 엄중한 경고를 받은 셈이다. 300년이 지났다. 그 선지자가 예언하던 요시야가 등장하여 예언을 이루고 있다. 역을하게 죽은 선지자의 메시지가 잘 전달되고 있었음을 본문에서 알 수 있다(23:17). 그 젊은 선지자는 살아서 경고, 죽음으로 경고, 여기서는 해골로 누워서 멸망을 향해가는 요시야에게 경고함.

12. 역을하게(?) 죽은 그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3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잘 전해지고 있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왕의 물음에 성읍 사람들이 쉽게 대답하는 것을 보아서(17)

13. 유다에서 왔던 하나님의 사람(17)과 사마리아에서 온 선지자(18)는 각각 누구인가? 아니면 어떤 관계인가?

유다에서 왔던 하나님의 사람은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갔다가 역을하게(?) 죽은 선지자이고 사마리아에서 온 선지자는 그를 유혹하여 죽음에 이르게 하고 자기 시체도 같은 묘실에 함께 장사지내 달라고 한 늙은 선지자이다(왕상 13:31).

14. 요시야가 사마리아에 있는 산당을 제하면서 제사장을 다 죽였단다(19-20). 9절의 이야기와 왜 다르지? 9절은 유다의 제사장이고 20절의 제사장은 사마리아의 제사장이다. 북이스라엘의 제사장은 여로보암 때부터 레위인이 아니었다(왕상 12:31). 레위인 중에서도 아론의 자손만 제사장직을 맡도록 하였는데 이것을 어기고 제사장 노릇을 하였기 때문이다.

15.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는 언약책은 어느 성경일까?

가장 자세하게 유월절을 설명하는 책은 출애굽기이다(출 12-13장). 유월절을 지키라고 그렇게 신신당부했는데 지금까지 유월절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더라(22) 거의 800년이나 흘렸는데... 정말 신비로운 일이다. 나라가 망해도 절대로 할 말이 없을 것 같다.

16. 요시야의 종교 개혁의 절정은 무엇인가?

유월절 준수(요시야 18년):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만 섬길 때 가장 요긴한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셨음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이다. 우리는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는가?

17. 요시야가 이렇게 전무후무한 개혁을 이루었는데도 예루살렘을 버리시다니(습 1장 참고)?

요시야의 개혁에도 백성들은 므낫세의 악행을 그대로 행하고 있었다(습 1, 렘 2-13, 16-19). 아들들(여호아하스, 엘리아김, 시드기야)조차 아버지의 이런 영향을 받지 않았다. 설교 한두 번에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 '내가 어떻게 은혜롭게 설교를 하고 성도들이 은혜를 받았으니 됐을 것이다?' 사람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하나님의 뜻이 확고하게 정해진 뒤에는 방법이 없을 수도 있다. 아들을 살려달라던 다윗의 기도를 애써 외면하신 것과 비교해 보자. 죽일 놈은 므낫세다!

이제 그만하면 됐다. 새로운 나라를 세우려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로운 이스라엘로 나아가신다. 유다를 버리시는 것이 완전포기가 아니다. 요시야가 너무 서운하지 않아도 된다고 위로 하실 것이다.

구원은 오직 은혜로: 요시야의 선행도 하나님께서 받아 주셔야 선행이지 심판하시기를 정했으면 어떤 선행도 그 자체로 하나님의 뜻을 돌이킬 힘이 없다. 우리의 선한 행위, 믿는다는 고백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받아주시니 믿음이 되는 것이다.

18. 다음과 같은 역사적 사실은 고고학이 발전하면서 최근에 밝혀진 것이다. 이런 사실을 알기 전에 번역한 성경은 약간의 오류가 있다(마치 잘 모르는 내용을 번역하는 것처럼). 29-30절과 비교하면서 차이점을 찾아보자.

[주전 609-605년에 세계 대전이 있었다. 앗수르와 바벨론이 하란에서 대전을 치를 때 애굽왕 바로 느고가 앗수르를 돕기 위해서 가는 길을 요시야 왕이 므깃도에서 막다가 전사하고 말았다. 히스기야 이후 유대는 반앗수르, 친바벨론 정책을 펴고 있었기 때문이다. 3개월 후 느고가 돌아오는 길에 패심죄로 유대를 침공하여 여호아하스를 폐위하고 엘리아김을 왕위에 올리고 이름을 여호야김으로 고쳤다.]

앗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 → 앗수르 왕을 돕고자 하여: 영어식으로 하면 *for the king of Assyria*이다. *for*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against, to, for, upon* 으로 번역할 수 있기 때문에 생긴 오류다. 최근의 번역본들은 이렇게 수정되어 있다.

19. 애굽 왕이 침공해서 허수아비 왕을 세웠다. 엘리아김을 왕으로 세우더니 이름을 바꾸란다. 엘리아김이 순종하기는 했는데 잘 보면 반항이다. 왜 그럴까? (일제시대 때 개명에 반대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일본 이름을 쓴 사람 중에는 입에 담지 못할 욕을 자기 이름을 삼은 사람도 있었다는데...)

엘리아(야)김의 이름 뜻(하나님께서 세우심)은 여호야김(여호와께서 세우심)과 똑같다. '엘'은 하나님이고 '여호야'는 하나님의 이름을 뜻하는 말이니깐.

<므깃도에 대해서> 므깃도는 팔레스틴 내륙에서 페니키아(페니게)로 가는 도로와 애굽에서 해안선을 따라서

수리아로 가는 도로의 교차점이다. 군사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요충지이다. 우리나라로 치면 문경새재 정도 되지 않을까? 여기에서 큰 전투가 많이 벌어졌다. '헬(=산)므깃도'라는 전쟁터를 뜻하는 명칭이 계시록에서는 '아마겔돈'이라고 음역되었다.

<산당에 대해서> 원래 산당은 가나안인들이 우상을 섬기던 곳이다. 사무엘과 솔로몬의 시대에는 산당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 산당에서 바알을 밀어내고 여호와를 섬긴 셈인데 예후가 금송아지를 만들고부터 다시 산당이 우상숭배의 장소가 되었다. 그러다보니 산당이 이교적인 제사를 지내는 곳이면서 하나님을 섬기기도 했던 모양이다. 말하자면 혼합종교의 양상을 띠게 된 모양이다. 그러니까 솔로몬이나 사무엘 시대의 산당과 열왕의 시대 산당은 의미가 다르다. 아사, 여호사밧도 제하지 않았다가 요시야에게서 예배의 중앙화가 완성된다. 요시야 시대에는 산당을 제거해서 백성들이 엉뚱한 짓을 않도록 하는 것이 옳았다.

열왕기하 24 장

1. 여호야김이 느부갓네살을 배반하였는데(1) 왜 하나님께서 유다를 쳐서 멸하시려는가(2)?

여호야김의 배반이 먼저가 아니고 그날세의 범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유다를 멸하시기로 하신 것이 먼저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작정하고 계시는데 여호야김이 느부갓네살의 군대에 빌미를 제공했다는 말이다.

<시대적 배경> 바벨론의 나보폴라살이 B.C. 612년에 앗수르를 멸망시킴, B.C. 605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과 애굽의 느고가 하란에서 대전하여 느고가 패함, 가나안 지역의 패권을 바벨론이 잡음, 여호야김 생포되고 유다는 속국이 됨(24:1),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감(1차 침공).

2. 갈대아의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여호야김에게로 보내어 유다를 치는 것(2)은 느부갓네살인가, 하나님인가?

외형상 느부갓네살이다. 내용상은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하나님께서 친히 나타나셔서 직접 하시는 것이 아니다. 역사가 사람의 뜻대로 움직일지라도 그것을 자신의 뜻대로 주관하시는 실제적인 분은 하나님이다. 바로를 향하여 '내가 너를 세웠음은...'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출 9:16)을 듣고 바로가 기가 막혔지만 어쩌랴, 사실이 그런 걸.

3. 이제 유다는 멸망의 날을 눈앞에 두고 있다. 그러나 바벨론이 침공했다고 바로 망한 것은 아니다. 3차 침입 때에야 비로소 망하고 만다. 적어도 1, 2차 침공 때에는 속국이 되었을망정 나라는 존재했다. 하나님 편에서 본다면 단번에 멸망시키지 않는 이유가 혹 있을까? (대하 12:8을 참고)

바벨론을 섬기는 것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어느 쪽이 좋을지 생각해 보라고 기회를 주는 것 아닐까?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으니... '그러나 저희가 시삭의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열국을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 알게 되리라 하셨더라'(대하 12:8)

4. 여호야김의 반역이 결국은 유다의 멸망으로 이어진다. 실제로는 하나님을 버린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지만 여호야김은 무엇이라고 말할까?

바벨론의 속국으로 있느니 죽을 때 죽더라도 짝 소리는 한번 해봐야 할 것 아니냐? 외형상으로는 외교적 실패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 범죄한 탓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을 것이다. 슬픈 인생이 이런 법이다. 엉뚱한 이유만 자꾸 찾는다. 실제 원인은 따로 있는데...

5. 여호야김의 악행에 대해서 열왕기 기자는 별로 말하지 않는다. '헤어지는 마당에 그 동안 섭섭했던 이야기들을 자세히 하면 뭣하나?' 그런 심정 아닐까? 그래도 궁금하면 렘 36장을 보라. 무슨 짓을 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았다. 선지자의 말이 들기 싫어 책을 불살랐다. 다른 신하들의 충고도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렘 26:20-23, 36:9-26).

6. 여호야김의 마지막에 대한 기록이 <대하 36:6-12, 왕하 24:6, 렘 22:19> 세 곳에서 제 각각이다. 찾아서 비교해 보라(질문 없음). 다음과 같이 추정해 볼 수 있다.

[주전 605년에 느부갓네살이 이집트 군대를 쫓아내고 예루살렘까지 함락하였다. 여호야김과 귀족들을 사로잡아 쇠사슬로 결박하였는데(대하 36:6-12) 갑자기 부친의 사망소식이 들려 급히 귀환하면서 여호야김에게 충성할 것을 다짐받고 풀어주었을 것이다. 주전 601년에 이집트가 득세하자 여호야김은 바벨론을 배반한다(왕하 24:1). 느부갓네살이 주전 597년에 출전하자 예루살렘에서 반란이 일어나 여호야김을 죽이고(렘 22:19) 아들 여호야קים을 왕위에 올린다. 경건한 사람들이 여호야김을 조상들의 무덤에 묻어주었을 것이다(왕하 24:6)]

7. 유다가 멸망을 향해 졸달음치는 기록을 하면서 애굽의 이야기는 왜 하는가(7)?

애굽이 전혀 유다에게 도움이 되지 못하는데도 애굽을 의지하려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아무리 외쳐도 '그래도 애굽이 우리를 도우지 않을까?' 기대하는 자들에게 하는 말이다.

8. 바벨론의 2차 침입으로 여호야김이 느부갓네살에게 항복할 때 함께 나간 인물들이 좀 이상하지 않은가?

왕비 대신 모친이? 정상적인 경우에는 왕비가 함께 나가는 것이 굴욕적이기에 정복자들이 원하는 것이다. 모친이 왜 함께 가나? 어린 왕을 대신하여 여호야김의 11년 통치기간동안 실권을 휘둘렀을 가능성이 많다. 렘 22:26, 29:2에도 왕의 모친이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이 그런 이유일 것이다.

9. 느부갓네살이 '여호와와 그의 모든 보물과 왕궁 보물을 집어내고,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만든 것 곧 여호와와 그의 금 기명을 다 휘파한 것이' 어떻게 여호와와 말씀과 같을 수 있는가? 그렇게 될 것이라고 미리 말씀하셨는가?

이사야(왕하 20:16-19, 히스기야 때)와 예레미야의 예언(렘 20:5)의 성취이다.

10. 유다가 망할 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외친 대표적인 선지자는 예레미야이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렘 27장을 보자!

바벨론에 대항하지 말고 그의 멍에를 매라고 하였음, 선지자의 말을 거역한 댓가다. 선지자를 통한 마지막 경고조차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11. 여호와를 배반한 탓에 나라가 망해가고 있는데 왕들은 여전히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기에 바쁘다. 요시야 이후 당사자 네 사람이 누구인지 찾아보고 존수관계를 따져보자!

여호야하스(23:32), 여호야김(23:37), 여호야긴(24:9), 시드기야(24:19)인데 한결같이 악했다. 여호야긴(여호야김의 아들)만 제외하고 세 사람은 형제로, 그렇게 선한 왕이었던 요시야의 아들이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아니, 이러니 요시야가 그렇게 선한 일을 했어도 유다의 멸망을 멈출 수 없었다! 끝없이 인내하시던 하나님(출 애굽기, 여호수아, 사사기, 열왕기에서)께서 드디어 유다를 자기 앞에서 물리치기로 하시니(24:3) 일이 이렇게 되는 것이다.

열왕기하 25 장

1.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여호야킨을 포로로 잡아가고 대신에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웠다(24:17).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위가 영원하리라고 하셨는데 다윗의 위는 시드기야로 이어지는가 아니면 여호야킨으로 이어지는가?

메시아의 계보는 여호야킨으로 이어진다. 말미에 여호야킨의 이야기를 언급한 것이 그런 연유이다: 마 1장의 여고냐가 여호야킨이다(대상 3:16, 렘 37:1의 고니야).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를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이거한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마 1:10-12)...

2. 유다의 멸망은 므낫세의 악행이 결정적인 것이었다. 요시야의 개혁도 대세를 돌려놓지 못했다. 그렇다고 완전 파멸에 이르지 않는 방법은 없었을까? 렘 21장과 34장, 겔 12:1-16을 참고하자.

예레미야는 바벨론에 대항하지 말고 항복하라고 외쳤다. 시드기야는 이 경고마저 무시하고 바벨론을 배반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들었더라면 완전 파멸은 피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패망의 모습을 에스겔도 몸으로 보여주었다. 결국은 예레미야와 에스겔을 통한 하나님의 마지막 경고마저 듣지 않았다. 최후에 남았던 무리들마저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고 애굽으로 떠나버렸다(렘 43:4-7).

3. 열왕기에는 연대가 끊임없이 등장한다. 본 장의 연대는 다른 특징을 보여준다. 본 장의 연대가 다른 본문의 연대와 다른 점이 있다면?

날짜까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점. 그만큼 위기 상황이었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4. 바벨론 군사들이 예루살렘을 얼마동안 포위하고 있었는가?

시드기야 9년 10월 10일에 시작하여 11년 4월 9일이면 1년 6개월간 포위하고 있었다.

5. 성벽에 구멍을 뚫었다는 것은 선공부대가 들어왔다는 말이고, 모든 군사가 도망하여 여리고 평지까지 갔다는 것은 포위망을 뚫고 탈출하는 것은 성공했다는 말이다. 그럼에도 시드기야가 잡혀서 비극적인 최후를 맞게 된 것은 끝내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은 것에 따른 필연적인 결과이다(겔 12:14). 누구의 무슨 말을 그렇게 듣지 않았다는 말인가(렘 38:17-23)?

예레미야의 바벨론에 대항하지 말고 섬겨라는 말(대하 36:12, 렘 38:17, 겔 17:15). 시드기야의 비극적인 최후도 예언되었던 것이다. 렘 38:17-23, 렘 32:4, 34:3, 겔 12:13.

6.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둘러쌌다더니(1) 왜 립나에 있나(6)?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 아마도 립나에 본부를 차려놓고 여기 저기 군사를 파견했는데 그 중의 한 부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아마 느부사라단의 인솔 하에). 아니면 개전 초기에 참가했다고 포위 기간이 길어지자 중간에 본대로 귀환했을 수도 있고...

7. 느부갓네살 19년(8)이 유대식으로 말하면 언제일까?

시드기야 11년이다. 그 해 4월 9일에 양식이 떨어졌고(3) 함락되었다(8, 렘 52:12). 한 달 뒤에 전후처리를 위해서 느부사라단이 도착한 모양이다. 그러니까 느부사라단의 기사는 또 다른 전쟁이야기가 아니라 같은 이야기 중에서 전후처리 문제에 관한 것이다.

8. 이전에도 여러 번 침입을 받았지만 이번처럼 여호와와 전과 왕궁과 집을 모조리 불태우지는 않았다. 느부갓네살의 침공 목적이 이전과 어떻게 달랐다는 말인가?

점령이 목적이 아니라 예루살렘을 파괴하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이다.

9. 경주의 감포 앞 바다에서 황룡사의 거대한 종을 찾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으나 아직은 성과가 없다. 몽고 군사들이 신라의 황룡사를 불태우고 이 종을 가져가려고 했으나 너무 크고 무거워 배로 운반하려고 재를 넘어서 바닷가로 가져가다가 어디선가 물에 빠뜨려버렸고, 그 종이 아마도 감포 앞바다 어디엔가 있을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바벨론 군사들은 몽고 군사들보다 더 무식하다. 왜?

성전의 두 기둥과 돛바다를 깨뜨렸으니: 워낙 커서 깨뜨려서 바벨론으로 가져갔다. 깨버리면 값어치가 훨씬 떨어지는데... 돛기둥의 지름은 약 4규빗, 높이가 18규빗이고, 돛바다의 크기는 직경 10규빗, 둘레 30규빗, 높이 5규빗, 용적 2000뽀, 두께 한 손 넓이(뽀이 아니고 손바닥 넓이로 6분의 1규빗, 3인치), 열두 마리의 소가 사방을 바라보며 바다를 받치고 있었다(왕상 7장). 1규빗을 대략 50cm로 계산해 보라.

10. 성전의 기물들을 빼앗기는 과정도 이전과 좀 다르다. 이번에는 주로 돛으로 된 물건을 빼앗겼다. 왜 무게를 기록하지 않았을까?

너무 많아서

11. 13절과 16절은 중복 같아 보인다. 왜 같은 내용을 두 번이나 기록하였을까?

두 번째 언급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무게를 말하려는 것이다.

12. 성전 기둥에 웬 그물과 석류인가(17)?

그물 모양과 석류모양으로 된 장식을 일컫는 것이다.

13. 사로잡혀 간 자와 사로잡혀 죽임을 당한 자를 비교해 보자.

처음에 사로잡힌 자 중에서 쓸 만한 인재는 다 잡아가고 빈천한 자만 남겨 두었다(11-12). 그 후에 사로잡힌 자는 전부 죽었다(18-21). 아마도 끝까지 바벨론에 항복하지 않으려 했던 사람들 같다.

14. 빈천한 사람만 남겨두고 다 사로잡아 갔다는데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달리야가 방백이 되었다는 말을 듣고 나타난 군대장관과 쫓는 자는 어떤 자들인가?

아마도 도망친 자들(40:11-12), 예레미야와 바룩, 몇몇 왕족들(렘 43:6)

15. 그달리야는 출세한 셈인가? 출세의 비결은 무엇일까?

점령당한 지역의 총독으로 세워진 것이 출세라고 말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그러나 잘 하면 그나마 민족의 명맥을 이어갈 수 있을 수도 있으니 책임이 막중한 것은 사실이다. 그가 이런 일을 맡게 된 것은 아마도 예레미야의 말을 들었기 때문이리라(24, 렘 40장 참고).

16. 예루살렘은 철저히 파괴된 모양이다. 그달리야가 새로운 곳에 수도를 정한 셈인데 어디인가?

미스바

17. 이스마엘이 그달리야를 칠 때 죽인 갈대아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그달리야에게 파괴된 바벨론 관리들: 아마도 실제적인 권력을 쥐고 있었을 것이다.

18. 왕족 엘리사마의 손자 느다니야의 아들 이스마엘의 반역으로 유다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만다. 그달리야를 죽이고 애굽으로 도망갈 판이라면 왜 그런 짓을 하는가? 렘 40장과 41장에서 이유를 찾아보자.

이스마엘은 암몬 왕 바알리스를 믿고 일을 벌인 모양이다. 이에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에 나셔서 이 시도를 무산시켰고 요하난은 두려워서 예레미야의 말을 무시하고 모든 백성을 이끌고 애굽으로 갔으니 결국 유다는 스스로 황폐화 되고 만 셈이다.

19. 27-30은 다 끝난 편지 말미에 붙이는 '추신'이나 마찬가지로. 이 기록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희미한 빛이다. 끊어지지 않는 다윗 왕조, 즉 메시아의 계보가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1번 질문 참조).